설맞이

렐트리 기출 미니 모의고사

설날은 벼락치기의 기간입니다

명절 연휴 일주일간의 학습만으로 전체 점수를 크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대소설 및 고전소설과 같이 출제 유형이 꽤 정형화되었고 텍스트의 양으로 승부하는 영역은 예외입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두 파트의 특성상, 단기간 집중 학습을 통해 빠르게 감을 익힌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평가원 주요 산문 기출들을 이 책에 모아봤으니 한번 벼락치기한다는 생각으로 학습해보세요.

쉽지는 않을겁니다

렉트리 미니모고는 고난도 독서 및 문학 44 지문을 집중 학습함으로써 단기간에 기출 회독과 실전 감각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과도하게 난해한 지문은 배제하였으나, 여전히 난이도가 있는 지문들로 구성된 모의고사입니다. 따라서 문제 풀이 결과에 좌절하지 마시고, 시간 배분에 연연하기보다 지문 자체를 깊이 있게 소화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그때 등을 밀어준 건
도망치지 않았던 나 자신

CONTENTS

미니 모의고사 1회

미니 모의고사 3회

미니 모의고사 5회

미니 모의고사 7회

미니 모의고사 9회

미니 모의고사 11회

미니 모의고사 13회

미니 모의고사 15회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 경마식 보도는 경마 중계를 하듯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려는 조치가 있다.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에 근거를 둔 ㉯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의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언론 단체의 ㉰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은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 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책 중 하나로 선거 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간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초청 대상자는 한정된다. ㉡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 다수 의견은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규정은 합리적 제한이라고 보았다. 반면 ⓑ 소수 의견은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에게도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본 것이다.

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 전반기에 더 많다.
②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
③ 당첨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④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
⑤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운다.

2.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②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선거 방송의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④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3. ㉡과 관련하여 ⓐ와 ⓑ의 입장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②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③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강화되겠군.

④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약화되겠군.

4. ㉮~㉰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보 기 >

다음은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당선인 예측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세 조사 모두 신뢰 수준 95%, 오차 범위 8.8%P임.)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조사일		선거일 15일 전	선거일 10일 전	선거일 5일 전
조사 결과	A후보	42%	38%	39%
	B후보	32%	37%	38%
	C후보	18%	17%	17%

①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겠군.

②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만, ㉰에 위배되지 않겠군.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A후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1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에 모두 위배되겠군.

④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고,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겠군.

[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수능)

(가)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의 앞 글자를 딴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임오군란 이후,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 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성문화된 규정에 따른 대민 정치에서의 법적 처리 절차 실현 등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었다. 그는 개화 실행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풍속의 진보와 통치 방식 변화라는 의미를 내포한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뿐 아니라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다. 이후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기 위해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했고, 유길준은 『서유견문』을 저술하며 개화 개념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를 떼어 내고자 했다. 이후 간행된 『대한매일신보』 등의 개화 개념은 국가 구성원 전체를 실행 주체로 하여 근대 국가 주권을 향해 그들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다.

을사늑약 이후, 개화 논의는 문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졌다.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을 수용하여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앞서 문명화를 이룬 일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그는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지만,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 또한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그가 제시한 근대 주체는 과학적·철학적 인식의 주체이자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나)

중국이 서양의 과학과 기술에 전면적인 관심을 기울인 때는 아편 전쟁 이후였다. 전쟁 패배에 따른 위기감은 반세기에 걸쳐 근대화의 추진과 함께 의욕적인 기술 수용으로 이어졌지만,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강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인과 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 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空想)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지속했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시찰했던 장쥔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한 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것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했다.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했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

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② (가):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을사늑약 이후에 제기되었다.
③ (나): 진정한 근대를 이루려면 기술 수용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하였다.
④ (나):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⑤ (나):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6.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항 이전의 개화 개념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관련 있었다.
②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③ 『한성순보』와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자인 왕을 개화의 실행 주체로 상정하였다.
④ 개화의 실행 주체로 왕에게 역할을 부여하지 않은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었다.
⑤ 『대한매일신보』의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 제기되었다.

7. (나)의 '천두슈'와 '장쥔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 사상은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②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인격의 수양을 동반하는 근대 주체의 정립에, ㉡은 전통적 사유 방식에 기반을 둔 신문화의 달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② ㉠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③ ㉠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한 과학 연구의 시급성을, ㉡은 과학의 방법에 영향 받지 않는 사상이나 철학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④ ㉠은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⑤ ㉠은 과학과 철학이 문명의 두 축을 이루는 학문이라는 견해에, ㉡은 철학보다 과학이 우위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9. (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와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 마을들과 조화롭게 살아왔다.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마을 사람들은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을의 역량으로 달성할 수 있는 미래상을 지속해서 홍보했다. 이후 마을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경제적 이권을 두고 이웃 마을들과 경쟁하며 갈등하게 되었다. 격화된 경쟁에서 A 마을은 새로운 기술의 수용만을 우선시했고, 과거에 중시되었던 협력과 나눔의 인생관은 낡은 관념이 되었다. 젊은이들에게 전통문화는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다.

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간행한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하겠군.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의 개화 개념에 내포된 개화의 지향점은 통치 방식의 변화와 관련 있다는 점에서,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와 다르겠군.
③ (가)에서 박은식은 과학과 구별되는 철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젊은이들의 자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이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보겠군.
④ (나)에서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술과 정신적 자질을 강조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겠군.
⑤ (나)에서 장쥔마이는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지적했으므로, <보기>에서 마을이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겠군.

10.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다행히 비는 그사이에 그쳐 있었다.
② 우리 학교는 이번에 16강에 그쳤다.
③ 아이 울음이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④ 그는 만류에도 말을 그치지 않았다.
⑤ 저 사람들은 불평이 그칠 날이 없다.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수능)

(가)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넣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사랑은 참 부드럽게도 **떠나**지
뵈지도 않는 길을 부드럽게도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듯이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지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
잠시 머물다 가라앉고

그런데 오,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오는 **배**여

- 장석남, 「배를 밀며」 -

(나)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그래서 불러봅니다 킥킥거리며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 한 슬픔이 문을 닫으면 또 한 슬픔이 문을 여는 것을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 단풍의 손바닥, 은행의 두 갈래 그리고 합침 저 개망초의 시름, 밟힌 풀의 흙으로 돌아감 당신……,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 상처의 몸이 나에게 기대와 저를 부빌 때 당신……, 그대라는 자연의 달과 별……, 킥킥거리며 당신이라고……, 금방 울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 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 그러나 ⓐ 치병*과 환후*는 각각 따로인 것을 킥킥 당신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

-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

* 치병 : 병을 다스림.
* 환후 : 병을 정중하게 이르는 말.

(다)

그녀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던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만큼 표현의 욕구로 흘러넘치는 것도 없다. 무언가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편지를 쓰게 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는 것처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모든 사랑의 편지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정보나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희미한 불빛 아래서 스스로 옷을 벗어야 할 때처럼,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따위. 고백이란 결국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왔다. 한동안 그는, 사랑하는 ○○에게로 시작되는 편지를 자주 썼다.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 편지 속에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 있었다. 또 다른 영혼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 가진 존재였다. 그도 역시 그녀처럼 자신의 편지 속 1인칭 화자에게 깊이 매료되었다. 하지만 너무 뻔해서 가혹했던 지리멸렬한 시간들 속에서 그는 편지 속의 1인칭 주체를 잊어버렸다.

편지조차 쓸 수 없는 시간들이 무심하게 지나가고, 다시 편지를 쓰고 싶었을 때, 그는 이미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편지 속의 그'를 연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 그는 '사랑하는 ○○에게'라는 편지를 쓰고 싶어 하는 자신 속의 어떤 늙지 않는 영혼을, 그 순수한 인격을 외면하고 싶었다. ⓑ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모든 고백이란, 위선이 아니면 위악이다.

- 이광호, 「이젠 되도록 편지 안 드리겠습니다」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
② 자연물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한다.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상황의 반전을 표현한다.
④ 특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드러낸다.
⑤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여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한다.

12.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배'를 밀던 '손'이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이별의 정서적 긴장감을 드러낸다.
② '뵈지도 않는 길'은 '사랑'이 '떠나'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별의 막막한 상황을 공간의 형상으로 드러낸다.
③ '슬픔'을 '밀어내는 것'을 '배'를 밀듯 '한껏 세게 밀어'낸다고 한 것은 이별의 아픔을 떨쳐 내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④ '배가 나가'며 생긴 '흉터'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는 것은 이별의 슬픔이 잦아든 상태에 있음을 드러낸다.
⑤ '밀려들어' 온 '배'는 '아무 소리 없이' 다시 돌아온 배라는 점에서, 대상과의 재회가 예상대로 이루어짐을 드러낸다.

13.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이다.
②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③ 화자의 눈앞에 없지만 '부'름으로써 환기되는 대상이다.
④ 화자가 '버릴 수 없'고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 존재이다.
⑤ 화자에게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이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써 형상화한다.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줄임표와 쉼표 등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내면을 생생하게 그려 내는 역할을 한다.

① '킥킥'은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웃음의 의성어로서,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②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를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③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들이 한데 이어진 서술로서, 감정들이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④ '마음의 무덤'은 화자의 심적 상태를 형상화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을 안고 생을 살아 내야 하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한 표현이겠군.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로서,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감정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이겠군.

15.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치병의 노력으로도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화자의 인식을 말한다.
② ⓐ는 화자가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환후를 의식하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③ ⓑ는 사랑의 편지가 상대를 향한 표현일 때, 위선과 위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④ ⓑ는 더 나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욕망이야말로 상대를 매혹하는 진정한 요인임을 말한다.
⑤ ⓐ와 ⓑ는 모두, 아픔을 겪는 이나 고백을 하는 이가 그 아픔이나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한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이상화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기에 편지는 '그녀'가 사랑할 만한 '그'로 채워진다. 사랑의 편지를 받은 '그녀'는 '편지 속의 그'를 사랑하고, 편지를 쓰는 '그'도 '편지 속의 그'에게 매료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자기 고백이 지속될 수 없는 까닭은 이 이상화된 '그'와 실제의 '그' 사이의 간극이 주는 부끄러움 때문이다.

①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잊음으로써,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말하는군.
③ '2인칭을 경유하여 1인칭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편지가 상대를 향한 '도구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고백에 그치게 됨을 말하는군.
④ "편지 속의 그'를 그녀는 사랑했다'는 것은 편지를 받은 그녀가 사랑한 상대는 편지 속의 '또 다른 영혼'임을 말하는군.
⑤ '자신의 비루함을 뼛속 깊이 실감했다'는 것은 실제 자신과 이상화된 자신 사이의 간극을 자각한 '그'가 부끄러움에 빠져 있음을 말하는군.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9모)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홍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솔 위에 걸렸거든
잡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헌사할샤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꼈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A]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낯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엊그제 빚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 정철, 「성산별곡」 -

* 소선 :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적선 :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고블 :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꿩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종* 갈기 솔질 활활 솰솰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꽝꽝쌍쌍 박아 숭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자나 굵으나 굵으나 자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뻗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뚝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꿰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종 :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 작은 바구니.

- 작자 미상,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

1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인물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을 통해 다양한 대상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구를 사용하여 대조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18.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삭풍'이 가을 잎을 쓸고 간 자리에 구름을 불러와 '공산'을 눈 세상으로 만들었다고 한 것에는, 인물이 거처한 공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적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⑤ 세상을 등진 인물의 삶을 '기산'의 '고블'에 비유한 것에는,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인물의 선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드러난다.

1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② (가)의 '학'은 이상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이군.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④ (가)의 '산옹'은 계절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고, (나)의 '나'는 사냥과 고기잡이를 통해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인물이군.

⑤ (가)의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이고, (나)의 '술병'은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이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③	②	②	④
⑤	③	②	①	②
④	⑤	②	②	①
①	②	④	①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경마식 보도가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였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고 했으므로,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② 경마식 보도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시청자와 방송사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

③ 경마식 보도는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 등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으로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으므로,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춘다고 볼 수 있다.

④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으므로,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헌법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선거일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고 하였으므로,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 그 결과를 보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는 3문단에 제시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로 보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대해, ⓐ(다수 의견)는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며, ⓑ(소수 의견)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가 있다고 본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하는 상황은 이 규정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수 의견은 초청 대상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심층적인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의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소수 의견의 지적이 언급되었다.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떨어진다는 것은 소수 의견에서 지적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소수 의견은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의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며,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함을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을 가진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들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의 입장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의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된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화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 없다. <보기>의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8.8%P)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따라서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라고 보도하는 것은, 오차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와 ㉰에 모두 위배된다. '9일 전'이라는 시기는 ㉯, ㉰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무관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의 지지율이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

의 지지율이 C 후보에 대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0%P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에 우세"라고 보도하는 것은 ㉯와 ㉰ 중 어느 것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에 위배된다. 그리고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A 후보를 1위라고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하는 것은 '오차 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삽입하더라도 ㉰에 위배된다.

④ 1차 조사 결과는 A 후보가 B 후보에 대해, 그리고 B 후보가 C 후보에 대해 지지율이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므로 1차 조사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라고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있으며, B 후보와 C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다. 그러므로 오차범위 내에 있는 A 후보와 B 후보를 서열화하는 보도는 ㉰에 위배된다.

⑤ 2차 조사결과에서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내에 있다. 그러므로 2차 조사 결과를 서열화하지 않고 "B 후보, A 후보와 오차 범위 내 경합"이라고 보도하는 것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한편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에 위배된다.

[5~10]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엔푸는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과학 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정치적 변혁이 아니라 과학 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로를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

② (가)의 4문단에서 을사늑약 이후 박은식이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하였다.

③ (나)의 1문단에서 청일 전쟁의 패배는 기술 수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낳았으며, 이에 따라 20세기 초반 진정한 근대를 이루기 위해 기술 배후에서 작용하는 과학 정신을 사회 전체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고 하였다.

⑤ (나)의 4문단에서 장쥔마이는 근대 과학 문명에서 초래된 사상적 위기가 주체의 책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다고 하였다.

6.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에 나타난 개화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통시적 흐름을 보이는 이 글의 논지 전개를 고려할 때, 한성순보는 3문단에 제시된 「대한매일신보」보다 앞선 시기에 발간된 신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성순보」는 1883년,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발간되었다. 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고 하였다.

②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지의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으며,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고 하였다.

③ (가)의 2문단에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에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하였고, 이어지는 3문단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는 개화 실행 주체를 왕으로 생각했다고 하였다.

④ (가)의 3문단에서 개화 실행 주체로서의 왕의 역할이 갑신정변에서 사라졌으며,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표상되었다고 하였다.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천두슈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신문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제1차 세계 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장쥔마이는 통제되지 않은 과학이 불러온 역작용을 목도하고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하면서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둘 다 과학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천두슈는 신문화를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로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이 과학 및 과학 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견해에 동의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생관을 과학과 별개로 파악하고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쥔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옌푸는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 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옌푸의 입장은 천두슈에게 이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통 사상의 폐단은 과학 정신이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만능주의에 기초한 신문화 운동에 의해 부정된 중국 전통 가치관의 수호를 내세웠던 장쥔마이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④ 서양의 과학 정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당면한 국가의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견해에 신문화 운동을 주도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쥔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국가의 위기는 과학적 방법으로 사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부재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에 과학 및 과학의 방법을 이용한 신문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 천두슈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인생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한 장쥔마이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은 박은식의 견해로, 박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사상적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은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은 천두슈의 견해로,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도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해 철학이 필수적이라고 보았고,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 전반에 대해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은식은 생존과 편리 증진을 위해 과학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④ 앞서 근대 문명을 이룬 국가를 추종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로, 이들은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박은식은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라는 당시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서 근대 주체를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을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과학에서 초래된 비극은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박은식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자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다. 한편 천두슈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서 고종은 자강 정책을 추진하면서 반(反)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한성순보 를 발간했다고 하였다. 한편 <보기>에서는 A 마을 사람들이 정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다고 하였다. 즉 <보기>에서 정부의 홍보 취지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정책에 공감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 개화당의 한 인사가 제시한 개화 개념은 서양 근대 국가의통치 방식으로의 변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을 도입하며 내세운 목표는 마을의 경제 발전에 있으므로, 이 둘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 따르면, 박은식은 가치관 정립과 인격 수양을 위한 자국 철학 전통의 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보기>에서 젊은이들은 전통문화가 서양 문화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겼는데, 박은식은 젊은이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가 가치관 정립을 위한 철학의 부재 때문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④ (나)에 따르면, 옌푸는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옌푸는<보기>에서와 같이 기술의 수용만을 중시하면 마을 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⑤ (나)에 따르면, 장쥔마이는 인생관의 문제에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쥔마이는 <보기>의 마을에서 과거에 중시했던 인생관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1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공상에 그칠'과 '16강에 그쳤다'의 '그치다'는 모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어떤 상태에 머무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④, ⑤의 '그치다'는 모두 '계속되던 일이나 움직임이 멈추거나 끝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11~16]

1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배'를 미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배' 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당신'을 부르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나'와 대상인 '당신'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사랑의 편지'를 쓰는 행위를 중심으로 행위의 주체인 '그'와 대상인 '그녀' 혹은 '편지 속의 그'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단풍', '은행' 등은 가을의 조락과 관련된 것으로 볼 경우 시간의 흐름과 연관이 있는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의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의 한 허공'도 하강적 이미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을 보여 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② (가)에서는 '바닷물', '허공', (나)에서는 '단풍', '은행', '개망초', '풀', '흙' '달', '별' 등의 자연물을 찾을 수는 있지만, 이에 빗대어 부정적 현실의 극복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는 '배를 민다', '부드럽게도', (나)에서는 '킥킥거리며', '킥킥 당신' 등을 반복하거나 변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복과 변주가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다)에서는 '편지 속의 그'를 '또 다른 영혼'으로 표현하는 등의 변주는 있지만 상황의 반전과는 상관없다.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한껏 세게' 배를 밀어내었고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의 흉터'도 가라앉았다고 했다. 사랑하던 이를 힘겹게 떠나보낸 뒤 이별로 인한 심리적 상처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소 잠잠해진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는 '내 안으로' 배가 '아무 소리 없이' 밀려들어온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서 환기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다는 정도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대상과의 재회를 예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 '아슬아슬히 배에서 떨어진 손' 등의 시구는 이별하는 순간의 정서적 긴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사랑' 은 '뵈지도 않는 길'을 떠난다. 이는 이별에서 오는 막막한 심리적 정황을 공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화자는 '배'를 '한껏 세게' 밀어내는 것과 같이 이별로 인한 '슬픔'도 그렇게 밀어내려 한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을 떨쳐내려는 화자의 심리적 태도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배'가 나가고 남은 '빈 물' 위에 '흉터' 가 생기고,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가라앉'는다. 이는 이별의 아픔과 슬픔이 잠시 잦아든 상태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나'는 '마음의 무덤'에 '병자'처럼 벌초하러 간다. 그러므로 '병자'는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랑의 상처와 고통을 드러내는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어지는 '치병'과 '환후'에 연결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③ '나'는 '한때 적요로움의 울음이 있었던 때'의 기억으로 '당신'을 부른다. 그러므로 '당신'은 화자와 '한때'의 기억을 잇는 매개적 존재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신'은 '나'의 눈앞에 없지만 '이만큼 살아옴의 상처에 기대' 부름을 통해 환기되는 존재이다.

④ '내가 아니라서 끝내 버릴 수 없는, 무를 수도 없는 참혹……, 그러나 킥킥 당신'에서 보듯이 '당신'은 '나'가 버릴 수도, 무를 수도 없는 숙명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적요로움의 울음', '슬픔', '상처' 등과 함께 '사랑', '아름다움', '이쁜' 등의 시어는 '당신'이 사랑과 슬픔을 경험하게 하는 이중적 존재임을 보여 준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에 기대, 나 킥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한 서술이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서술은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의 일부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에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킥킥'은 웃음소리를 본뜬 시어이다. 이는 사랑과 슬픔이 내재된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는 의성어이다.

③ '킥킥거리며 세월에 대해 혹은 사랑과 상처,'는 맥락이 없이 이어져 있는 서술로 그 의미 파악이 쉽지 않다. <보기>에 의하면 이러한 맥락이 없어 보이는 표현은 사랑의기억, 상실의 고통 등의 뒤섞인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마음의 무덤'은 사랑의 기억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화자의 내면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서술로 볼 수 있다.

⑤ '이쁜 당신……, 당신이라는 말 참 좋지요,'는 말줄임표와 쉼표를 사용하여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에 해당한다. '이쁜', '참 좋지요'는 대상에 대해 사랑을 품고 있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5.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는 '병을 다스림'과 '병'은 다른 것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병'은 사랑과 이별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상처, 아픔과 슬픔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병을 다스리려는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낫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삶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환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③, ④ 사랑의 편지는 상대를 향한 표현이지만 거기에는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내 고백을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충만한 느낌,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 등만이 있다.

⑤ ⓐ는 '치병'과 '환후'가 서로 다르기에 병을 다스린다고 해서 병이 낫지는 않는다는 말이고, ⓑ는 편지에 적는 사랑 고백 같은 것이 위선 또는 위악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는 아픔을 겪는 이가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아픔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하는 이가 병을 다스리려고 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또한 고백을 하는 이가 고백의 실체를 지각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고백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위선 또는 위악을 행할 뿐일 것이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첫째 문단에 따르면 사랑의 편지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글쓰기는 최후의 순간에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한다.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사랑의 편지를 통해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 역시 '익명의 욕구'에 의해 처음에 품었던 현실적 목표를 잊어버리게 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에서 '전언'은 사랑의 편지를 쓸 때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혹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와 연관된다. 따라서 '아무 전언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글쓰기의 '현실적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③ 사랑의 편지는 상대 즉 '그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기에 '2인칭'으로 쓰인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들끓는 고백의 언어들'로 귀결된다.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에 도구적이지 못하여,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를 배반하기 때문이다.

④ '그녀'는 '그'의 편지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것은 '편지 속의 그'이고, 이는 '그'가 찾아낸 '자신의 또 다른 영혼'이다. 편지 속의 그 영혼은 그녀와 그를 매료시킨다.

⑤ '편지 속의 그'는 '순수한 열정과 끝 모를 동경과 깊은 이해심을가진 존재'로 실제의 자신과는 깊은 간극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기에 '그'는 '편지 속의 그'가 되지 못하는 자신의 비루함을 실감하게 된다.

[17~19]

17.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의 초장에서 '활활 솰솰'은 말을 솔질하는 종의 행위를, '꽝꽝쌍쌍'은 말뚝 박는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으며, 중장에서 '주섬주섬', '와지끈 뚝딱', '주루룩', '너슬너슬' 등은 물고기를 잡는 화자의 행위를 역동적으로 나타낸 구절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영탄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가)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 정경의 변화를 묘사한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 (나)에서는 두 개의 개별적 공간에서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으며, 공간 이동의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화자는 생매를 이용하여 꿩 사냥을 한 후 여울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화자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⑤ (가)의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샤'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성현과 호걸은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의 중장에서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와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대구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에서 고기들을 대조적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

18.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화자는 '어찌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변화가 심한 인간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화자의 담담한 태도가 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화자는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을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산에 눈이 덮인 것은 '삭풍'이 불어 공산에 쌓인가을 잎을 쓸고 간 이후이므로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계절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로, 화자는 경요굴 숨은 세계를 찾을 이가 있을까 봐 두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가 성산의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성산의 경치가 속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화자는 '만고 인물'을 거슬러 생각하며 시운의 흥망에 애달픔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산중에 벗이 없'는 적적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기산의 늙은 고블'은 기산에 은거한 전설적인 인물인 허유를 가리키는 말로, 허유는 세상과 단절하고 은거하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다. 험한 세사와의 단절과 은거 지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지조가 가장 높다'는 말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한 소재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생매'는 꿩 사냥에 동원된 새인 '매'를 가리키므로 이를 고고한 취향을 보여 주는 소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학'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고

기'는 앞내 여울과 뒷내 여울을 오르내리는 물고기로 화자는 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움버들 가지에 꿰어 놓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물고기는 풍요롭고 생동하는 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③(가)의 '소선'과 '적선'은 각각 소동파와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로 청정한 강호의 세계인 성산에서 떠올린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학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아오거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 달라 말하고 있다. 화자는 뒷내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으므로 '선관'은 화자가 함께 물고기를 잡으며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가)의 '산옹'은 서하당과 식영정의 주인 김성원을 가리키는 말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산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상 세계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나)의 '나'는 초장에서는 매를 이용하여 꿩을 사냥하는 모습을, 중장에서는 여울에서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현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세상사는 구름처럼 험하다고 탄식하며 술을 마시고 있으므로 '술'은 강호에서 세상에 대한 시름을 달래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동자에게 학을 타신 선관이 자신을 찾으면 술을 가져 오라는 말을 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으므로 '술병'은 물고기를 잡는 풍류의 장에 흥취를 더해 줄 소재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5학년도 수능 B형)

역사가 신채호는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그가 무장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를 투쟁만을 강조한 강경론자처럼 비춰지게 하곤 한다. 하지만 그는 식민지 민중과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간의 연대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의 사상에서 투쟁과 연대는 모순되지 않는 요소였던 것이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채호의 사상에서 아란 자기 ㉠본위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주체인 동시에 항상 나와 상대하고 있는 존재인 비아와 마주 선 주체를 의미한다. 자신을 자각하는 누구나 아가 될 수 있다는 상대성을 지니면서 또한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아가 생성된다는 상대성도 지닌다. 신채호는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여 아의 이러한 특성을 규정했다. 그는 아의 자성(自性), 곧 '나의 나 됨'은 스스로의 고유성을 유지하려는 항성(恒性)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려는 변성(變性)이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아는 항성을 통해 아 자신에 대해 자각하며, 변성을 통해 비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자성이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신채호는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였다. 그에 따르면,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이며,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이다.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相續性)과 보편성(普遍性)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상속성이란 시간적 차원에서 아의 생명력이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보편성이란 공간적 차원에서 아의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을 뜻한다. 상속성과 보편성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데, 보편성의 확보를 통해 상속성이 실현되며 상속성의 유지를 통해 보편성이 실현된다. 대아가 자성을 자각한 이후, 항성과 변성의 조화를 통해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 만약 대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여 멸절(滅絶)할 것이며,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우월한 비아에게 정복당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아의 개념을 통해 우리는 투쟁과 연대에 관한 신채호의 인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직면하여 그는 신국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 민족이 신국민이 될 때 민족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국민은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역사적 주체 의식이라는 항성과 제국주의 국가에 대응하여 생긴 국가 정신이라는 변성을 갖춘 조선 민족의 근대적 대아에 해당한다. 또한 그는 일본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에 대항하자는 동양주의에 반대했다. 동양주의는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식민 지배가 심화될수록 일본에 동화되는 세력이 증가하면서 신채호는 아 개념을 더욱 명료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아에도 일본에 동화된 '아 속의 비아'가 있고, 일본이라는 비아에도 아와 연대할 수 있는 '비아 속의 아'가 있음을 밝혔다. 민중은 비아에 동화된 자들을 제외한 조선 민족을 의미한 것이었다. 그는 조선 민중을, 민족 내부의 압제와 위선을 제거함으로써 참된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의 연대를 통하여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함께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이러한 민중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다.

1. 윗글에서 다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② 신채호 사상에서의 자성의 의미
③ 신채호가 밝힌 대아와 소아의 차이
④ 신채호 사상에서의 대아의 역사적 기원
⑤ 신채호가 지향한 민중 연대의 의의

2. 윗글의 자성(自性)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성을 갖춘 모든 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다.
②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면, 상속성과 보편성이 모두실현된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④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⑤ 소아의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상속성은 실현되어도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

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신채호가 『조선 상고사』를 쓴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의 자성을 역사적으로 어떻게 유지·계승할 수 있는지 모색하기 위한 것이겠군.
②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비판한 것은, 동양주의로 인해 아의 항성이 작아짐으로써 아의 자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겠군.
③ 신채호가 신국민이라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대아인 조선 민족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여 비아와의 연대를 통해 아의 생존을 꾀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겠군.
④ 신채호가 독립 투쟁을 한 것은, 비아인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기에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⑤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지향한 것은, 아가 비아 속의 아와 연대하여 억압을 이겨 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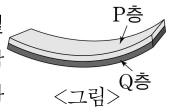
4.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판단이나 행동에서 중심이 되는 기준.
② ㉡ : 자기의 처지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③ ㉢ :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
④ ㉣ :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다른 데로 미침.
⑤ ㉤ : 어떠한 일이나 사물을 직접 당하거나 접함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중 길이의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 선형 열팽창계수인데, 이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며, 변화량이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다.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며 물질마다 그 값이 다르다. 합금인 인바(invar)와 순수한 금속인 알루미늄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이며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다른, 두 종류의 물질 P와 Q를 서로 같은 두께의 두 층으로 접합하여 평평한 띠를 만든다고 하자. 이때 Q가 P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크다면 온도를 올렸을 때 Q층은 P층보다 더 팽창하려고 한다. 그러나 두 층이 접합되어 있어 독립적인 팽창이 억제되므로, <그림>과 같이 띠가 P층 쪽으로 원의 호 형태로 휘면서 팽창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한다. 이후 다시 처음의 온도로 내리면 띠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



<그림>

물체의 휨의 정도는 곡률로 수치화할 수 있는데, 띠 또한 휨의 정도를 곡률로 나타낸다. 띠의 길이에 비해 두께가 매우 얇고 폭이 좁아 띠를 하나의 곡선이라고 간주하면, 띠를 원의 호로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이 원의 호를 포함하는 원의 반지름을 휘어진 띠의 곡률 반지름이라 하는데, 곡률은 이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다. 즉, 곡률 반지름이 작을수록 더 심하게 휘어진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가 크거나 온도 변화가 클수록 띠가 더 휘어진다. 온도 변화량이 같아도 띠를 이루는 물질에 따라 띠가 휘는 정도는 달라지며, 이를 나타내는 것이 휨 민감도이다.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열을 가하면 띠가 휘면서 반대쪽 끝이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된다.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액추에이터의 설계에는 최대 이동 거리,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 반응 완료 시간 등이 고려된다.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진다. 최대 이동 거리는 휨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없다고 가정할 때, 주어진 온도 변화량에서 띠의 끝이 최대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이다.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가 휘면서 띠의 끝이 외부에 힘을 가할 수 있는데, 이 힘은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여 휨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된다. 따라서 띠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 반응 완료 시간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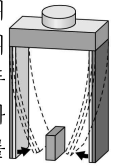
① 온도의 변화에 따라 물체의 길이는 변하지만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
②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열을 가해 변화되었을 때의 길이를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이다.
③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인 물질보다 그 종류가 더 많다.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계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⑤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

6. 윗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에 열을 가하면 길이가 줄어든다.
②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
③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내리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휜다.
④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
⑤ 한쪽 끝이 고정되고 길이가 다른 평평한 두 띠가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만든, 두 종류의 띠 a와 b가 있다. 두 물질의 선형 열팽창 계수의 차이는 b가 a보다 크고, 두께와 길이는 a, b 모두 같다. 이 띠를 활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이 띠가 안으로 휘어 물체를 잡는 집게를 만들었다. a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A이고, b를 두 개 사용한 것은 집게 B이다. 온도 T0에서 A와 B의 모든 띠는 평평한 형태였다. 이후 온도를 T1로 올렸을 때는 B만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T0에서 T1보다 높은 온도인 T2로 온도를 올렸을 때는 A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단, 선형 열팽창 계수 차이, 온도 변화외에 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T0에서 T1로 올렸을 때보다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와 b 모두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의 곡률은 더 크겠군.
②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휨이 멈춘 시점에서의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작겠군.
③ T0에서 T1로 올렸을 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b의 반응 완료 시간이 a보다 짧겠군.
④ T0에서 T2로 올렸을 때, a의 최대 이동 거리가 b보다 더 크겠군.
⑤ B와 달리, T2가 되어야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휨 민감도가 크기 때문이겠군.

8.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① ⓐ : 그는 이 실험에서 예측한 근사치를 얻었다.
ⓑ : 그는 은퇴한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② ⓐ : 그는 친구의 도움에 용기를 얻었다.
ⓑ : 곧 그에게 발표할 차례가 돌아온다.
③ ⓐ : 그는 열심히 일해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 : 그는 지름길을 두고 먼 길로 돌아왔다.
④ ⓐ :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얻었다.
ⓑ : 모임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온다.
⑤ ⓐ : 그는 가족의 열렬한 호응에 자신감을 얻었다.
ⓑ : 우리 부서에 적은 돈이 몫으로 돌아왔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학년도 6모 b형)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민 노인을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아버지는 왜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냐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 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떼밀어 조각을 내었다.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한평생이, 일단은 **세련된 입신(立身)**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도 그랬다.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와 자식을 모른 체한 민익태, 한때는 아편쟁이로 세상을 구른 민익태,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떼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 민 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다 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 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 가면서도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어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하였다.

(중략)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그럴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그대로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도대체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처음부터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버지의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얏!"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버지의 손바닥이 성규의 볼때기를 후려쳤다.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되레 풀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네가 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해요.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물릴 지경이거든요.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저도 이해합니다.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 그걸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또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합니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하여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나,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아버지의 입가에 냉소가 머물렀다.

"그건 인식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할아버지에게서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한(恨)을 배가시키고, 생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만은 갖고 있습니다."

- 최일남, 「흐르는 북」 -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
② ㉡ :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③ ㉢ :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대비하여 인물의 처지를 강조한다.
④ ㉣ :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⑤ ㉤ :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준다.

10. 윗글의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역사의 의미'는 '민 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④ '생활인의 감각'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11. 다음 <학습 활동 과제>를 해결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과제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에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룬 소설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작품을 감상해 보자.
>
>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그런데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관이 급격히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여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

①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민 노인'과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군.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것은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군.
③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겠군.
④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⑤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9모)

제1회 봄놀이

오작교에선 선랑(仙郎)이 봄바람에 취하고
버드나무 언덕에선 가인(佳人)이 그네를 뛰네

〔A〕 '광한루기'는 작품 전체의 제목이다. 광한루가 없었더라면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을 것이요, 이도린이 놀러 가지 않았더라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요,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이 무엇을 바탕으로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솟구쳐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으며,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중략)

그네 뛰는 모습을 이도린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앞이 어질어질하여 김한에게 말했다.

"너는 저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 아니면 귀신이냐? 그것도 아니면 선녀냐? 너는 저것을 아느냐?"

김한이 대답했다.

"금도 아니고 옥도 아닙니다. 낙수(洛水)에 빠져 죽은 이의 넋도 사라지고, 양대(陽臺)에서 구름과 비를 만들었던 여인의 일도 이제 아득하기만 한데, 어떻게 귀신 같고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란 말이냐?"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도련님께서는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기억하시는지요?"(이게 무슨 말이야?)

"저렇게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어떻게 반쯤은 쭈글쭈글해진 노파에다 비교할 수 있느냐?"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며 글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며 그 용모와 자태는 정말 절색입니다. 남원의 절색일 뿐 아니라 도내의 절색이요, 도내의 절색일 뿐 아니라 국내의 절색이라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도린이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 정말이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네가 가서 불러 오거라."

"도련님께서는 저 아이를 불러다가 무엇을 하시려고요?"

"고운 얼굴 한번 보려고 그런다."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도련님께서 저 아이를 보시고 무엇 하시려고요?"(눈치 빠른 김한)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네가 알아서 뭣 하느냐?"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저 아이한테 달렸지 너한테 달리지 않았으니, 너는 그 새 주둥이 같은 입을 그만 닥치거라."

이에 김한이 머리를 떨구고 갔다.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다.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는데, 봄바람에 옷자락이 흐트러져 버드나무 가지를 꽉 잡은 채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이게 누구지?) 춘향은 몸을 돌려 꽃그늘 속으로 들어가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도린이 꽃무늬가 있는 작은 종이를 손에

쥐고 홀로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티 없이 맑아 춘향은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었다. 갑자기 김한이 바쁜 걸음으로 와서 불렀다.

"춘향 낭자 어디 있소?"

춘향이 다시 몸을 돌려 숨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김한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꽃그늘에까지 와서 춘향을 발견했다.

(중략)

김한이 웃으며 말했다.

"춘향은 노여워 말고 내 말 한번 들어 보오. 어제 남문 밖 큰 길에서 까치 같은 옷차림의 사령들이 쌍쌍이 앞에서 인도하고, 호랑이 무늬의 활집을 진 군관들이 대열을 이루며 뒤에서 호위한 채, 한 귀인이 구름 같은 가마에 앉아 아전들과 기생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는데, 낭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오?"

"네가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구나. 내가 어찌 본관 사또를 몰라보겠느냐?"

"내가 말한 귀인은 바로 사또 자제 도련님이오."(기특한 김한)

"사또 자제 도련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낭자, 우리 도련님을 한번 만나러 갑시다."

"도련님이 어떻게 춘향인지 추향인지 알겠느냐? 네가 춘향입네, 기생입네 하면서 농지거리해서 일을 벌였겠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어도 못 가."

"춘향 낭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 속담에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했듯이 도련님께서 춘흥이 발한 것이 우연히 오늘이며, 낭자가 그네 뛰며 논 것도 마침 이때이니, 이는 참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된 것이오. 도련님께서 낭자를 보시고는 '귀신이냐? 선녀냐?'라고 물으시기에, '귀신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럼 누구냐?'라고 하시기에, '행수 기생의 딸입니다.'라고 말했소. 젊은 사내가 어찌 한 번쯤 그 아름다움을 살피려 하지 않겠소? 춘향 낭자는 잘 헤아려서 처신하시오. 갈 수 있으면 가는 것이고, 못 가겠다면 못 가는 것이지만, 화와 복이 눈앞에 놓여 있으니 낭자는 잘 생각하시오."

춘향이 한참 동안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네 말이 일리가 있다."

- 수산, 「광한루기」 -

1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도린은 춘향이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② 춘향은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지만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
③ 이도린은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김한의 말을 믿었다.
④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모르는 척했다.
⑤ 옆집 여자 아이는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왔지만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

13. 꽃그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
②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
③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
④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
⑤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

14. 윗글에서 '김한'의 역할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이도린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
② 이도린에게 춘향이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여,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③ 이도린에게 풍류를 즐길 만한 상대가 춘향이라고 이야기하여,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④ 춘향에게 춘향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일깨워 주어, 춘향이 이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
⑤ 춘향에게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주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A],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광한루기 는 '수산(水山)'이라는 호를 쓴 사람이 춘향전 을 바탕으로 지은 한문 소설로, 총 8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회의 앞부분에는 내용을 소개하는 시구와 해당 회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고, 본문 속에는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한 짤막한 평이나 감상이 작은 글씨로 제시되어 있다. 광한루기의 독자는 이와 같은 다양한 비평적 견해를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① [A]에서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군.
② [A]를 통해 해당 회의 주요 공간인 '광한루'를 소개하여, 그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군.
③ [A]에서는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여,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보여 주고 있군.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한 평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도린의 반응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고 있군.
⑤ [A]와 ㉠을 통해 독자에게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 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④	④	③	③	⑤
③	①	①	⑤	④
④	①	③	⑤	⑤

[1~4]

1. 정답해설 : 신채호가 아를 소아와 대아로 구별하면서 대아의 개념을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대아의 개념이 생겨난 역사적인 기원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투쟁과 연대가 모순되지 않는 요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채호 사상의 핵심 개념인 '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자성'이 '나의 나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소아는 개별화된 개인적 아로서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아는 국가와 사회 차원의 아로서 자성을 갖고 상속성과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조선 민중이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과 함께 부당한 폭력과 억압을 강제하는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 연대의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 정답해설 : 3문단에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항성이 크고 변성이 작으면 환경에 순응하는 적응력이 약화되고,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환경에 대한 주체적인 대응 능력이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대아의 상속성과 보편성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소아는 자성은 갖지만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자성을 갖춘 모든 아가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② 소아는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소아의 항성과 변성이 조화를 이룬다 하더라도 대아로서의 상속성과 보편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③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다는 것은, 대아의 고유성이 약하고 적응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유성을 상속성과 적응성을 보편성과 연계하여 이해한다면, 대아의 항성이 작고 변성이 크면 상속성이 실현되기 어렵다.

⑤ 소아는 대아와 달리 상속성과 보편성을 갖지 못하므로 상속성과 보편성의 실현 여부를 소아와 연계하여 설명할 수는 없다.

3. 정답해설 : 4, 5문단에서 신채호는 조선 민중을 아의 중심에 놓으면서 조선 민중을 민족 생존과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주체이자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 즉 '비아 속의 아'와 연대를 통해 제국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아'가 아니라 '비아 속의 아' 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신채호가 조선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저술하였다고 언급한 점에서 『조선상고사』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아로서의 조선 민족의 자성을 유지·계승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신채호는 동양주의가 비아인 일본이 아가 되어 동양을 통합하는 길이기 때문에 조선 민족인 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채호가 동양주의를 아의 항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상속성과 보편성을 지닌 대아로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신국민을 강조한 것에서 신채호가 일본 제국주의가 아의 상속성과 보편성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신채호가 제국주의 국가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중(비아 속의 아)과 식민지 민중의 연대를 통해 '인류로서 인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4. 정답해설 : '설정'의 사전적 의미는 '새로 만들어 정해 둠.'이다.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뽑아 정함.'은 '선정'의 사전적 의미이다. 정답 ③

[5~8]

5.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인 반응 완료 시간은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고 하였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로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휨이 빨리 완료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열을 가했을 때 길이의 변화량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은 길이 변화율이다.

③ 1문단에서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라고 하였다.

④ 4문단에서 액추에이터란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6.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다. 온도 변화에 따라 더 많이 변화하는 것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이며,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쪽으로 휘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값이라고 하였고 길이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있다면, 온도가 변화하였을 때 처음 값보다 나중 값이 작을 것이므로 길이가 줄어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매우 작은 선형 열팽창 계수를 갖는다고 하였다. 즉 인바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으므로 온도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더 적합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을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이며, 변화량은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두 물체의 길이의 변화량이 같다면 처음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띠가 휠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며, 최대 이동 거리는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띠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더 많은 구간이 구부러져 최대 이동 거리가 커진다. 따라서 동일한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고 추론할 수 있다.

7.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이 소멸되는 시점은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을 때이고, 이는 띠가 휘는 과정에서 최대의 곡률에 도달했을 때와 같다고 하였다. A는 T1에서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의 곡률은 T1로 올렸을 때보다 T2로 올렸을 때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B는 T1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2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b가 외부에 가할 수 있는 힘은 T1에서 소멸되지 않으며 T2에 이르러서도 소멸되지 않고 더 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T0에서 T1로 올렸을 때보다 T2로 올렸을 때 b의 곡률은 더 크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T1에서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집게 B보다 곡률이 작을 것이다.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므로 a의 곡률 반지름은 b보다 클 것이다.

③ 5문단에서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았다면 T1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 같았다는 것이며 반응 완료 시간이 같다는 것이다.

④ 집게 A는 T2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a는 T2에서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게 B는 T1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T2에서 b의 최대 이동 거리는 a의 최대 이동 거리 이상일 것이다.

⑤ 3문단에서 휨 민감도가 더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T1에서 집게 B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지만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고, T2가 되어서야 집게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a보다 b의 휨 민감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8. 정답해설 : '얻는'은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무엇을 할 차례나 순서가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얻었다'는 '권리나 결과·재산 따위를 차지하거나 획득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먼 쪽으로 둘러서 오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 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온다'는 '일정한 간격으로 되풀이되는 것이 다시 닥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얻었다'는 '긍정적인 태도·반응·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되다.'의 의미로 쓰였다. '돌아왔다'는 '몫, 비난, 칭찬 따위를 받다.'의 의미로 쓰였다.

[9~11]

9. 정답해설 : ㉤은 '성규'의 어머니의 발화인데,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장면에 삽입되어 있다. '성규'의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의 아들에게 핀잔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민 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아들', '며느리', '민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등으로 서술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이 구절은 '민 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더 많은 힐난을 내쏘고 있음'이라고 해석하여 며느리('성규'의 어머니)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② ㉡은 '허랑방탕한 한평생'이라고 집약된 '민 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면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내와 자식을 모른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성규'의 아버지가 '민 노인'과 갈등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③ ㉢을 살펴보면,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던 과거의 시절에는 그래도 아내가 '어지간히 바람막이 구실'을 해 주기도 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내 없이 '외톨이'로 남게 된 현재의 상황은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보아 아들과의 '단절'로 상징되는 '민 노인'의 현재 처지가 부각되고 있는 서술로 볼 수 있다.

④ ㉣의 앞 발화는 '성규'의 말인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것이 '저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즉 '성규' 자신의 말은 둘 모두를 이해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규'의 아버지는 이를 비꼬기 위해 '기특하'다고 반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10. 정답해설 :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제시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이라고 서술된 내용이다. 이 부분의 발화는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기 때

문에 '생활인의 감각'이라는 구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세련된 입신'은 '민 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은 '민 노인'이 아니라 '성규'의 아버지이다. 이 구절은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민 노인'의 소망이 아니라 아들, 즉 '성규'의 아버지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평가로 볼 수 있다.

② '날씬한 생활'은 '민 노인'이 자신의 아들의 삶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성규'가 지향하는 삶과 연관성이 없고, '성규'의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과도 무관한 구절이다.

③ '역사의 의미'란 '전 세대끼리의 갈등'을 '다음 세대'가 화합하는 것과 연관된 것으로 이는 '쾌적한 만남'으로 상징된다. 따라서 '성규' 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비극의 차원'은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11.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성규'가 '민 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④의 진술은 일단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성규'가 아버지와 '민 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아버지와 달리 '성규' 자신은 민 노인과 불화할 까닭이 없음을 아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성규'의 아버지와 '민 노인'의 갈등은 '민 노인'의 예술 지향적인 삶을 '성규'의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할아버지의 삶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규' 와 '성규'의 아버지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중략된 부분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민 노인'은 아들에게 '자신의 고통과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게 한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민 노인'은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⑤ 이 글의 앞부분을 보면 '성규'의 아버지는 '민 노인'이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 이유는 '민 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이 '제 체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12~15]

12. 정답해설 : 춘향은 꽃그늘 속에서 이도린을 바라보며, '티없이 맑'은 그의 모습을 보고 '은연중에 찬탄하는 말을 내뱉'을 만큼 이도린에게 호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는 춘향이 꽃그늘에 숨어서 한 행위이므로 이도린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춘향은 '원래 춘향은 풍경을 즐기려는 옆집 여자 아이를 따라 나온 것'이었으므로 춘향이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 설사 '그네를 타기 위해 나들이에 나섰다고 가정하더라도 춘향은 '채색 줄로 만든 그네를 탔'으므로 기대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이도린이 춘향을 불러오라고 김한에게 요청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면 이도린 자신을 만나러 올 것이라는 말은 김한이 한 말로 볼 수 없으며, 이도린이 그 말을 믿었다는 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④ 이도린이 김한에게 그네 뛰는 여인이 '누구란 말이냐?'라고 묻자, 김한은 '교방 행수 기생 월매'를 언급한다. 이에 이도린은 '아리따운 여인'을 '노파에다 비교'한다며 의아한 반응을 보이자, 김한은 '저 사람은 월매의 딸 춘향'이라고 알려준다. 이를 통해 이도린은 월매가 춘향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아예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⑤ 옆집 여자 아이는 '풍경을 즐기려'고 했을 뿐, 그녀가 이도린을 만나기 위해 춘향과 함께 나왔거나 풍경을 즐기는 것에 만족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해설 : 정답해설 : '꽃그늘'은 춘향이 '몸을 돌려' '들어가 숨고서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광한루 동쪽 난간에 기대어 있'는 이도린의 모습을 보며 찬탄하던 곳이다. 따라서 '꽃그늘'을 춘향이 몸을 감추고 이도린을 바라보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꽃그늘'은 춘향이 타던 '그네를 멈추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으려' 하다가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숨기려고 들어간 곳이다. 따라서 그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장소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꽃그늘'은 춘향이 갑자기 '광한루 위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자' '몸을 돌려 숨'은 곳이며, 그런 그녀를 김한이 이리저리 찾다가 발견한 곳이다. 따라서 춘향이 김한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꽃그늘'은 춘향을 불러오라는 이도린의 요청을 받은 김한이 숨어 있던 춘향을 찾은 곳이다. 이도린은 광한루 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므로, '꽃그늘'을 김한이 이도린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광한루에 놀러 간 이도린은 그네 뛰는 춘향을 우연히 보았으며, 그 모습에 반하여 김한의 도움을 받아 춘향과 만나려고 한다. 이에 김한이 춘향을 찾아간 곳이 '꽃그늘'이므로 이곳을 이도린이 춘향과 만나기 위해 미리 약속한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정답해설 : 김한은 춘향에게 찾아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속담을 언급하고, '도련님께서 춘흥이 ~ 그렇게 된 것이오.'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김한이 춘향과 이도린과의 만남은 거듭된 우연으로 이루어진 인연임을 알려 준 사실과, 김한이 두 사

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도린이 그네 뛰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 금이냐, 옥이냐?'라고 한 것은 춘향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감탄해서 한 말이며 실제 그것이 금인지 옥인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두고 김한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금과 옥이 아니라고 이도린에게 알려 주어 이도린의 무지를 일깨우는 비판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김한은 고사를 인용하여 '선녀 같은 아가씨가 요즘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을 두고 이도린에게 선녀 같은 아가씨라고 말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한이 춘향을 기생 월매의 딸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도린이 춘향의 고귀한 신분을 알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춘향을 '풍류를 즐길 만한'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은 김한이 아니라 이도린이다. 또한 이도린이 김한에게 춘향을 불러오라고 명령하자 김한은 '부른다 해도 저 아이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김한을 이도린이 춘향을 부르게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도린의 요청에 따라 춘향에게 찾아간 김한은 춘향이 이도린과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서 이다지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오?'라고 말하며, 춘향이 이도린과 만나도록 춘향을 설득한다. 따라서 김한은 춘향과 이도린의 만남을 돕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춘향이 도린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자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정답해설 : [A]에서는 「광한루기」가 8회로 구성된 한 편의 작품임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으며, ㉠에서는 인물의 대화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보태어 인물의 말에 동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A]와 ㉠을 통해 작품의 감상법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광한루기」를 8회로 구성한 이유를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오작교에선 선랑(仙郞)이 봄바람에 ~ 가인(佳人)이 그네를 뛰네'라는 시구를 활용하여, '봄바람'과 '버드나무 언덕'이 어우러진 봄날의 분위기를 보여 주면서 해당 회의 제목인 '봄놀이'와 관련된 서사의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② [A]에서는 '광한루 하나가 공중에 ~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힘으로써, 해당 회의 주요 배경인 '광한루'를 소개함과 동시에 작품 탄생의 시발점으로서 '광한루'라는 공간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에는 '광한루 하나가 ~있었기에 이도린이 놀러 갈 수밖에 없었고', '춘향이 이도린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며 두 인물이 만나게 되는 계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어 서사 전개의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은 인물의 말에 대해 서술자가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의 논평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표현은 '어찌 ~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설의적 방식을 통해 서술자가 이도린의 말에 동조하며 그러한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여 주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레트리 기출 미니 모의고사 5회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가)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예술의 본질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상품에 불과하다. 그는 대중 예술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은 다른 개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은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하나의 가치 체계로 통일시키려는 속성을 동일성으로, 하나의 가치 체계로의 환원을 거부하는 속성을 비동일성으로 규정하고, 예술은 이러한 환원을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은 예술가가 직시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들에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예술은 동일화되지 않으려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쇤베르크의 음악이 감상자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했던 것처럼 예술은 그것에 드러난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래서 미학은 작품에 침전된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읽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는 전위 예술을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으로 제시했다.

(나)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통해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술은 사회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에서 떨어져 사회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미학은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 가령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아도르노의 미학으로 읽어 낸다면, 이 그림은 사회의 본질과 ⓑ유리된 '아름다운 가상'을 표현한 것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주관적 인상을 붉은색과 회색 등의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로 표현한 미메시스일 수 있다.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것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세잔의 작품은 눈에 보이는 특정의 사과가 아닌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 곧 자연의 생명력과 그에 얽힌 농부의 삶 그리고 이를 ⓒ응시하는 예술가의 사유를 재현한 것이 된다.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미적 체험을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시킴으로써, 진정한 예술을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한다. 결국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고 있다.

한편 아도르노의 미학은 예술의 영역을 극도로 축소시키고 있다. 즉 그 자신은 동일화의 폭력을 비판하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전위 예술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주장하며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이는 현실 속 다양한 예술의 가치가 발견될 기회를 ⓓ박탈한다.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1. 다음은 (가)와 (나)를 읽고 수행한 독서 활동지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나)
글의 화제	아도르노의 예술관 ····· Ⓐ	
서술 방식의 공통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함 ····· Ⓑ	
서술 방식의 차이점	(가)는 (나)와 달리 화제와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의 변화 과정을 제시함 ····· Ⓒ	(나)는 (가)와 달리 논지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이의 견해를 인용함. ····· Ⓓ
서술된 내용 간의 관계	(가)에서 소개한 이론에 대해 (나)에서 의의를 밝히고 한계를 지적함 ····· Ⓔ	

① Ⓐ ② Ⓑ ③ Ⓒ ④ Ⓓ ⑤ Ⓔ

2.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②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 능력을 표준화한다.
③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
④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
⑤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

3. ㉠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정형적 형태뿐 아니라 정형적 형태 역시 재현되기 때문이다.
②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③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④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기 때문이다.
⑤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4.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일화는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실현 불가능하다
② 전위 예술의 속성은 부조리 그 자체를 폭로하는 것이므로 비동일성은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
③ 동일성으로 환원된 대중 예술에서도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예술의 동일화는 무의미하다.
④ 전위 예술은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는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
⑤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화가 아니라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5. 〈보기〉는 학생이 미술관에 다녀와서 작성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A)과 (나)의 글쓴이의 관점(B)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말 동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다. 기억에 남는 세 작품이 있었다. 첫 번째 작품의 제목은 「자화상」이었지만 얼굴의 형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고, 제각각의 형태와 색채들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어 불편한 감정만 느껴졌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었다. 그리고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TV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 세 번째 작품은 시골 마을의 서정적인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색감과 조형미가 뛰어나 오랫동안 기억에 잔상으로 남았다.

① A: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습니다.
② A: 두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느낀 익숙함은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감각이 무뎌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③ A: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는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B: 첫 번째 작품의 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⑤ B: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맞바꾸는
② ⓑ : 동떨어진
③ ⓒ : 바라보는
④ ⓓ : 빼앗는다
⑤ ⓔ : 찾아내는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정책 논의를 위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를 평가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중차분법은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을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추세 가정에 근거해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가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에 주목했다.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몰랐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 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시행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또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②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③ 평행추세 가정에서는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한다.
④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의 차이는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8. 다음은 이중차분법을 ㉠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한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보다 (A) 것이다. 그러므로 ㉠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는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보다 (B) 것이다.

	A	B
①	클	클
②	클	작을
③	같을	클
④	작을	클
⑤	작을	작을

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와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고, Q주는 1992년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P주 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P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집단	평균 피고용인 수(단위: 명)		
	사건 전(A)	사건 후(B)	변화(B-A)
P주 저임금 식당	19.6	20.9	1.3
P주 고임금 식당	22.3	20.2	-2.1
Q주 식당	23.3	21.2	-2.1

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1.3명이다.
②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식당들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다.
③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해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시행집단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
④ 비교집단의 변화를, P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로 파악할 경우보다 시행집단의 1991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에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얻는다.
⑤ 비교집단을 Q주 식당들로 택하든 P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10. 문맥상 ⓐ~ⓔ의 단어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 그 사건의 전말이 모두 오늘 신문에 났다.
② ⓑ :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바꿔 바다로 갔다.
③ ⓒ : 기상청에서 전국에 건조 주의보를 내렸다.
④ ⓓ : 회원들이 회칙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⑤ ⓔ :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6모)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 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그리고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나를 휘감고 있는 어떤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영영 벗어날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발견한 유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하여 매장하는 일을 행한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졌다. 금방이라도 쩔걱쩔걱 쇳소리를 낼 듯한 철삿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 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뵈는 빰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엉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퀭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나'의 지각 내용을 '나'가 서술하는 상황으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
② ㉡ : 서술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분된다.
③ ㉢: '나'가 아니라 '나'가 지각하는 대상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지각의 대상을 부각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④ ㉣ : 인용 부호 없이 서술된 발화에서 인물의 목소리가 드러난다.
⑤ ㉤ : 지각의 주체를 알리는 표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지각한 바를 서술한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 빚어진다.

12. 윗글에서 ⓐ와 ⓑ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 이야기의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면, ⓑ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늠하도록 하는 단서이다.
② ⓐ가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추진력이라면,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다.
③ ⓐ가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이다.
④ ⓐ가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된 종착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된 정점이다.
⑤ ⓐ가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면, ⓑ는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귀결점이다.

13.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에 비해 능동적이므로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② ㉮는 ㉯와 달리, 시간과 공간에 관여되면서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게 된다.
③ ㉯는 ㉮와 달리,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이다.
④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될 경우 ㉮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진다.
⑤ ㉮와 ㉯ 모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됨으로써 인물이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진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심리 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 재응고화'는 마음의 상처로 남은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원리이다.

① '낙인'과도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 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②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비롯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군.
③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 사발'을 올리는 '어머니'의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
④ '모래밭'에서의 '어머니'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해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사된다고 할 수 있겠군.
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경위를 엿볼 수 있겠군.

[15~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황상과 만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좌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크게 꾸짖길,

"이 몹쓸 흉악한 놈아,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하고 칼을 들어 치니 아귀가 몸을 기울여 피하고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니 서경태가 날리어 아귀 입으로 들어갔다. 상이 보시다가 크게 놀라,

"짐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으되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으니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

정서장군 한세충이 나와 아뢰길,

"소장이 비록 재주 없으나 저것을 베어 황상께 바치리다."

하고 황금 투구에 엄신갑을 입고 팔 척 장창을 들고 청룡마를 내달아 외쳐 말하길,

〔A〕 "흉적은 목을 늘여 내 칼을 받으라."

아귀가 크게 웃고 말하길,

"아까는 내 숨을 들이쉬니 모기 같은 것도 삼켰으니 지금은 숨을 내쉴 것이니 네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라."

하고 입을 벌려 숨을 내부니 황상과 만조백관이 오 리나 밀려갔다. 아귀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이때 황상이 제신과 함께 정신을 겨우 차려 환궁하시니 세 공주가 다 없었다. 상께 이 연고를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하교하시되,

"이런 해괴한 변이 천고에 없으니 경들의 소견이 어떠하뇨?"

하고 용루를 흘리시니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가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였다.

이우영이 아뢰길,

"전 좌승상 김규가 지모 넉넉하오니 불러 문의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상이 깨달아 조서를 내려 김규를 부르셨다.

이때 승상이 원을 데리고 평안히 지내더니 천만의외에 사관이 조서를 가지고 왔거늘 받자와 본즉,

"전임 좌승상에게 부치나니 그사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 짐은 불행하여 공주를 잃고 종적을 모르니 통한함을 어찌 측량 하리오. 경에게 옛 벼슬을 다시 내리나니 바삐 올라와 고명한 소견으로 짐의 아득함을 깨닫게 하라."

하였다. 승상이 사관을 후대하고 ㉠ 국변을 물으니 아귀 작란하던 일과 세 공주 잃은 말을 대강 고하니 승상이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사은숙배하니, 상이 보시고,

"경이 고향에 돌아감은 짐이 불명한 탓이로다. 국운이 불행하여 세 공주를 일시에 잃었으니 짐의 이 원을 어찌하리오? 경의 소견으로 이 일을 도모하면 평생의 한을 풀리로다."

승상이 엎드려 아뢰길,

"소신이 자식이 있삽는데 창법 검술이 일세에 무쌍하와 매일 종적 없이 다니옵기 연고를 물으니 **철마산**에 가 무예를 익히다가 일일은 그 산에서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감을 보았노라 하옵기 과연 허언이 아닌가 싶사오니 ⓑ자식을 불러 들으심이 마땅하올까 하나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원은 황상을 뵙고 원수가 되어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다.

원수가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야 계교를 베풀리이다."

하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조금 나았으니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이 원한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술과 성찬을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으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어찌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시어 첩 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 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취하매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듣고 잠을 자려 하거늘, 막내 공주가 곁에 앉아 말하길,

"보검을 놓고 주무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번 휘둘러 치면 잔명이 죄 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이 드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주거늘, 공주가 받아 놓고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칼을 들어 기둥을 치니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 작자 미상, 『김원전』 -

15.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③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인물의 회상을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암시하고 있다.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

16.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황상은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②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한다.
③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린다.
④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한다.
⑤ 원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된다.

1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에서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② ⓑ와 ⓒ에서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
④ ⓑ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⑤ ⓒ에서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에서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1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주제로, 초월적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인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 준다. 특히 적대자의 압도적 무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인물에 따라, 혹은 인물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여 줌으로써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

① 서경태가 입직군을 동원해 아귀와 맞서고 원수가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는 데서,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군.

② 한세충이 황상의 한을 씻고자 아귀에게 대항하고 승상이 황상의 불행에 슬퍼하며 상경하는 데서, 인물들이 충군의 가치를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③ 원이 아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아귀가 남두성인 원에게 원한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데서, 주인공과 적대자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군.

④ 공주가 황상에게는 국운의 불행으로 잃은 대상이지만 원수에게는약속대로 아귀를 잠들게 하는 인물인 데서, 여성 인물이 사건의 피해자이자 해결을 돕는 존재임을 알 수 있군.

⑤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 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③	①	⑤	⑤	③
①	①	⑤	④	②
②	③	④	③	②
①	③	⑤		

[1~6]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2문단에서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을, (나)는 2문단에서 '미메시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에 '동일성', '비동일성' 등의 개념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가)의 2문단에서 서로 다른 가치 체계가 하나의 가치 체계로 환원되는 동일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개념의 변화 과정이 아니라 동일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며 따라서 예술 작품에는 사회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침전되어 있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아도르노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그것의 한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아도르노의 예술관을 글의 화제로 삼아 글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가)는 3문단에서 쇤베르크의 음악을 제시함으로써 동일화에 저항하는 전위 예술의 예를 들고 있다. (나)는 1문단에서 사과를 표현한 세잔의 작품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 세잔의 작품은 예술가의 시선에 포착된 세계의 참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그것에 담긴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④ (가)는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는 인용하고 있지 않다. 반면 (나)는 4문단에서 아도르노의 미학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작가의 주관이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⑤ (가)는 동일성, 비동일성을 바탕으로 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에 대해 1문단에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점과 기존의 예술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을 그 의의로 제시하면서, 2~4문단에서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된다는 점, 전위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등 그의 미학 이론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 예술은 예술의 본질을 상실하고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문화 산업을 통해 상품화된 개인의 정체성과 대중 예술은 모두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로 동일화된 것이다. 즉 양자는 상품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질적이므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표준화된 상품으로 규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일정한 규격에 맞춰 생산될 뿐 아니라 대중의 감상능력을 표준화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대중 예술이 예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이는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자본주의의 교환 가치 체계에 종속된 것으로서 예술로 포장된 상품에 불과하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 한다고 보며, 대중 예술은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 예술은 모든 것을 상품의 교환 가치로 환원하려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을 은폐한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으며, 그것의 규격성으로 인해 개인의 감상 능력이 표준화되고 개인의 개성이 상실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중예술은 문화 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닌 개성의 차이를 상실시킨다는 아도르노의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에서 알 수 있듯이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에 임박해 보도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3. 숨겨진 전제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란 세계를 바라보는 주체의 관념을 재현하는 것, 즉 감각될 수 없는 예술가의 주관을 감각 가능한 것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을 감상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이때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되며, 이에 대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주관의 재현이라는 미메시스가 부정되는데, 그 이유는 아도르노의 미학이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 즉 예술가의 주관을 직접 드러내는 대신에 비정형적인 형태만을 통해 부조리를 체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가려지고 작품에 나타난 형태에 대한 체험만이 강조되기 때문에 예술 작품에서 주관의 재현이 부정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정형적 형태는 도외시되며, 예술가의 주관도 재

현되지 않는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즉 아도르노의미학에서는 예술가의 주관이 재현되지 않으며, 재현의 주체가 예술가로부터 예술 작품의 감상자로 전환되지도 않는다.

③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미적 체험의 대상은 예술가에게 포착된 세계의 본질이며, 이러한 세계의 본질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국한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대상이 사회의 부조리에서 세계의 본질로 변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는 ㉠의 이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미메시스에서의 재현이란 예술가의 주관이 감각 가능한 대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가 강조한 미적 체험은 감각적 대상인 형태 그 자체의 비정형성에 대한 체험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미적 체험의 과정에서 예술가의 주관은 작품에 재현되지 않으며, 비정형적인 형태가 예술가의 주관으로 왜곡되지 않는다.

4.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예술이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한다. 따라서 아도르노의 미학이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의 동일화를 시도한다는 (나)의 비판에 대해,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동일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전위 예술의 본질이므로 전위 예술의 관점에서 예술을 동일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며, 전위 예술을 추구하는 것은 비동일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을 통해 대중 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즉 동일화된 상품에 불과함을 알 수 있으며, 2문단을 통해 아도르노가 주장하는 진정한 예술은 이러한 동일화를 거부하는 비동일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일화가 애초에 예술과 무관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며, 비동일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동일화의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동일성이 결국 동일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아도르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중 예술이 상품의 교환 가치라는 동일성으로 환원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중 예술에서 비동일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전위 예술은 비동일성 그 자체를 속성으로 하므로 전위 예술이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구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의 아도르노의 관점에서는 전위 예술의 속성에 의해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전위 예술로의 동일화가 새로운 차원의 비동일성으로 전환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아도르노는 쇤베르크의 음악과 같은 전위 예술이 그 자체로 동일화에 저항하면서도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다는 것을 높게 평가하며, 이는 저항이나 계몽을 직접 표현하는 것에는 비동일성을 동일화하려는 폭력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에 따라 세 번째 작품에 표현된 서정성과 조형미가 부조리에 대한 저항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예술이어야 진정한 예술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예술은 비동일성을 지녀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아름다운 상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그 자체로 추하고 불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도르노에게 있어 예술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체험하게 하는 매개여야 한다. 첫 번째 작품은 얼굴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기괴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고, 학생은 이에 대해 불편한 감정만 느꼈다. 따라서 A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에서 학생이 기괴함과 불편함을 느낀 것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예술적 체험의 충격 때문일 수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문화 산업에 의해 양산되는 대중 예술이 현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은폐하고 있다는 아도르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작품은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으로, 작품에 사용된 색채와 구도가 대중 매체에서 본 상업 광고의 한 장면같이 익숙하게 느껴져서 좋았다는 학생의 진술을 볼 때 학생은 대중 매체와 같은 문화 산업의 논리에 동일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로 학생이 느끼는 익숙함은 A에 따르면 대중 예술에 은폐된 현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무감각과 같은 것일 수 있다.

④(나)의 4문단에 따르면, 실수로 찍혀 작가의 어떠한 주관도 결여된 사진에서조차 새로운 예술 정신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베냐민의 지적처럼, 전위 예술이 아닌 예술에서도 미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B에 따르면, 첫 번째 작품의흩어져 있는 형태와 색채가 예술가의 표현 의도를 담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작품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에 따르면, 대중음악이 사회적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례도 있듯이, 자본의 논리에 편승한 대중 예술이 사회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사회에 비판적인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으로, 대량 복제되어 유통되는 작품이다. 따라서 B에 따르면, 두 번째 작품은 대량 생산을 통해 제작된 것이지만 그 연예인의 사회 비판적 이미지를 이용해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일 수 있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는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지다.'라는 뜻의 '전락하다'의 사동사이므로, '더 보태거나 빼지 아니하고 어떤 것을 주고 다른 것을 받다.'라는 뜻의 '맞바꾸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따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동떨어진'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③ ⓒ는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바라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④ ⓓ는 '남의 재물이나 권리, 자격 따위를 빼앗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므로, '빼앗는다'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⑤ ⓔ는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는 뜻의 단어이므로, '찾아내는'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다.

[7~10]

7. 글의 중심 내용

정답해설 : 1문단에서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두 집단에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사건을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지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으므로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평행추세 가정을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가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특정 사건만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④ 3문단에서 스노는 이중차분법을 1854년에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으며,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고 하였다. 스노가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사건 전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전에도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였다.

8.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경우,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사건)이 없다면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에서의 고용률 증가 정도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의 경우, 시행집단은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집단에 비해 크므로 사건 전의 상태(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고용률 증가가 작게 된다. 따라서 ㉠의 경우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즉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뺀 값은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되는 비교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보다 작게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⑤

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고용처럼 경기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가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할 때는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행집단의 다른 시기의 변화로 파악하여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는 것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시행집단은 P주의 저임금 식당이다. 따라서 시행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는 20.9-19.6=1.3명이다. ② 5문단에서 시행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집단을 구성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행집단과 비교집단이 여러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비교집단을 Q주의 식당들로 택할 때, 시행집단인 P주의 저임금 식당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효과는 1.3-(-2.1)=3.4명 증가로 평가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여러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에 이중차분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추세 가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제시할 수 있는 Q주 식당이나 P주 고임금 식당은 모두 -2.1의 변화를 보여 평행추세 가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10. 단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수원을 바꿨는데'와 '생각을 바꿔'에서 '바꾸다'는 '원래의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의 의미로 쓰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결과에 차이가 날 이유가'에서 '나다'는 '어떤 작용에 따른 효과, 결과 따위의 현상이 이루어져 나타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오늘 신문에 났다'에서 '나다'는 '신문, 잡지 따위에 어떤 내용이 실리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결론을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건조주의보를 내렸다'에서 '내리다'는 '명령이나 지시 따위를 선포하거나 알려주다. 또는 그렇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에서 '높이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를 더 높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목소리를 높였다'에서 '높이다' 는 '어떤 의견을 다른 의견보다 더 강하게 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에서 '줄이다'는 '힘이나 세력 따위를 본디보다 약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반면 '이만 줄입니다'에서 '줄이다'는 '말이나 글의 끝에서, 할 말은 많으나 그만하고 마친다는 뜻으로 하는 말'로 쓰였다.

[11~14]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라는 표지를 통해 서술의 주체가 '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과 '온통 잿빛의 풍경'인 사위를 지각하는 주체가 '나'라는 점에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서술의 주체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별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서술의 주체인 '나'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과 서술자가 겹쳐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닫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건(그것은)'을 주어로 서술함으로써, '나'가 본 '사내의 환영'과 '나'가 언젠가 액자 속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는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말로, 인용 부호 없이 어머니의 말이 전달되고 있다.

⑤ '불현듯 시야가 부옇게 흐려 왔다.'의 주체는 서술자인 '나'일 수도, 총에 맞아 의식을 잃어 가는 '가슴과 팔목에 철삿줄을 동여맨 사내'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지각의 주체가 모호한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12.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어머니가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내용의 말인 ⓐ를 들은 '나'는 그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는 ⓐ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참호를 파던 과정에서 발견한 유골을 수습한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부대원들이 '좋은 일'을 했다고 낄낄대면서 주고받는 말이 ⓑ이므로, 이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완화됨을 드러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은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하게 된 '나'가 이해와 연민을 통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환기되면서 주제가 심화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어머니의 말인 ⓐ는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심화된 주제를 구현'하는 제재라고까지 하는 것은 다소 과할 수 있다. 한편 ⓑ는 유골 수습 후 '음복인 셈'인 술잔을 기울이는 군인들이 '낄낄대며' 보태는 말이므로,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주제 가늠의 단서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② ⓐ는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원인일 뿐, 이야기를 절정에 치닫도록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유골 수습 후 '작은 술판'을 벌이는 병사들이 주고받는 말인 ⓑ로 인해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는 이야기를 결말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없다.

④ ⓐ로 인해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는 이야기의 위기감이 해소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는 유골 수습이 끝났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야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 때문에 '나'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는 이야기를 일으키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로 인해 이야기의 전모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나'가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게 된다는 점에서 ㉮는 한국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후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된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자신의 아버지가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라고 묻고 있다는 점에서, ㉯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서 연상되는 상황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에 투영된 어머니의 염원, 즉 아버지의 귀환이라는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는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동물이고, ㉯는 땅에 묻힌 아버지가 '피워 내'는 식물이므로, ㉮가 ㉯에 비해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점 때문에 인물이 처한 문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진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는 어머니의 말에 등장하는 대상이고, ㉯는 '나'가 상상한 아버지의 상황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둘 다 이야기의 배경에 실감을 더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는 아버지가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매장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과는 관련이 없고, 인물이 원하는 바를 집약한 결과라고 할 수도 없다. 오히려 ㉮가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⑤ ㉮는 한국 전쟁 중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선 아버지의 귀환을 바라는 어머니의 염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과 ㉯는 이데올로기 문제로 빚어진 전쟁의 와중에 희생된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생각해 보면, ㉮와 ㉯ 모두 이데올로기와 연관이 있기에 관념적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와 ㉯로 인해 아버지가 이념에 편향되어 있음이 알려지는 것은 아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은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죄'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나'는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는 죽어서도 유골을 얽매고 있는 철삿줄을 풀어

주고자 하는 노인의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어머니가 '물 사발'을 올리는 것은 아버지의 무사함과 귀환을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 '나'의 기억을 재응고화하기 위한 노력과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후부터 '아버지의 죄'를 자신도 나누어 지니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응고된 기억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죄'를 들은 충격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게 된다는 점에서, '나' 의 심리적 불안정은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모래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장면은 현기증을 느낀 '나'가 본 환영으로, 여기서 아버지는 어머니가 간직한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 '나'의 심리적 불안정이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에 시달리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나'의 어머니와 학생복 차림의 아버지가 어우러지는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편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철삿줄에 묶인 채 매장된 유골을 수습한 후 무덤이나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 매장되어 있을 아버지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점차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감정이 해소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의 변화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부정적 기억이 재구성됨으로써 '나'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5~18]

15.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황상과 여러 신하들의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상하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아귀를 향해 달려드는 한세충과 아귀의 대화를 통해 그들 사이의 적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A]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는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③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여 장면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④ [A]는 황상의 부하 장수들과 아귀가 싸우는 사건과 아귀가 세 공주를 납치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인물의 회상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에서는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것과 세 공주가 납치되었음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황상의 충격이 나타나 있으며, 그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황상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대한 인물의 반응을 과장되게 서술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완화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복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6..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황상은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 입으로 들어가자 크게 놀라며 본인이 여러 번 전장을 지내었지만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여러 신하들 중에서 누가 아귀를 잡아 한을 씻을 수 있을지 묻고 있다. 따라서 황상이 ㉠의 심각성을 이전의 '전장'과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의 경험에 근거하여 ㉠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아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조정'에 모인 여러 신하 중 이우영은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모가 넉넉한, 전 좌승상 김규를 불러 문의해야 한다고 황상에게 아뢰고 있다. 따라서 이우영은 ㉠의 해결을 위해 '조정'에서 황상의 질문에 답하며 ㉠에 대처할 방안을 찾아 줄 지모 있는 인물을 거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 김규를 부를 때 승상은 원을 데리고 '고향'에서 평안히 지내고 있었다. 따라서 황상은 ㉠의 여파가 미치지 않은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승상에게 ㉠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황상을 찾은 승상은, 세 공주를 일시에 잃은 황상이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자 '철마산'에서 무예를 익히던 자기 자식이 아귀를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간 일을 보았음을 아뢰면서 자기 자식을 황상에게 천거하고 있다. 따라서 승상은 ㉠의 원흉인 아귀를 원이 '철마산'에서 본 것을 황상에게 아뢰고, ㉠을 해결할 단서를 제공할 인물을 천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좋은 계교를 생각해 내고는 이를 공주와 공유하고, 공주는 '협실'에서 아귀가 잠들었음을 알려 준다. 따라서원(원수)은 ㉠의 해결 방안을 떠올리고, '협실'에서 공주를 만나 ㉠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을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7.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황상은 조서를 승상 김규에게 보내면서 ⓐ를 통해 공주를 잃은 통한을 승상에게 드러내고 있고,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와 같이 말하여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상대에게 드러내고, ⓓ에서는 자신들의 의도를 상대에게 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는 아귀에게 공주를 잃은 황상의 통한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다. 따라서 ⓐ와 ⓑ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숨겨 온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에는 세 공주를 잃은 황상의 원을 풀어드리기 위한 승상의 충정이 담겨 있는 반면, ⓒ에는 남두성(김원)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에서는 아귀가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시녀들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는 승상이 황상에게 올리는 충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어 상대의 복종을 이끌어내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다. ④ 승상은 자기 자식인 원이 아귀라 하는 짐승을 만나 겨루고 그 뒤를 좇아 바위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에서 무예가 뛰어난 자기 자식을 불러 사태를 해결할 것을 청하고 있으므로 ⓑ가 당위를 내세워 상대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를 통해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술에 취하게 하려 하고 있으므로 ⓓ가 상대의 안위를 우려하여 자제를 요청한 말로 볼 수 없다.

⑤ ⓒ에는 남두성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하는 아귀의 다짐과 시녀들에게 자신을 위로하라는 강압적인 명령이 담겨 있다. 따라서 ⓒ는 상대에게 자신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들은 원수의 계교에 따라 ⓓ와 같이 말하며 아귀를 속이고 그를 안심시켜 잠들게 하려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는 상대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말로 볼 수 없다.

1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원수는 원수 자신의 칼로 기둥을 쳐 보라고 하는 막내 공주의 말에 기둥을 쳤으나 반쯤 부러지는 데 그쳤다. 이에 공주가 크게 놀라 아귀에게 그 칼을 썼더라면 큰 화가 미칠 뻔하였다고 하였으며, 이후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원수가 아귀를 처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칼이 아니라 아귀가 쓰던 비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세에 무쌍한 무예를 갖춘 원수가 아귀의 비수로 기둥을 베어보는 데서, 주인공이 적대자를 처치하기 위해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좌장군 서경태는 급히 입직군을 동원하여 칼을 들고 내달아 아귀를 꾸짖으며 칼을 들어 치다가 아귀 입으로 들어갔으나, 황상을 뵙고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백계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계교를 마련해 아귀를 상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서경태와 원수는 압도적 무력을 지닌 적대자인 아귀에 대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② 좌장군 서경태가 아귀에게 당하자 황상은 크게 놀라 '제신 중에 뉘 이 짐승을 잡아 짐의 한을 씻으리오'라고 한다. 이에 정서장군 한세충은 아귀를 베어 황상께 바치겠다며 아귀에 대적하러 나간다. 아울러 황상이 조서를 내려 전 좌승상이었던 김규를 부르자 승상은 나라에 발생한 변란에 못내 슬퍼하며 상경하여 황상을 뵙고 자신의 자식을 불러 아귀에게 대적하도록 충언을 올린다. 따라서 한세충과 승상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군을 지키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아귀는 원의 칼에 상한 머리가 거의 낫자 사오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원한을 풀고자 한다. 따라서 주인공인 원과 적대자인 아귀는 피할 수 없는 대결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정서장군 한세충이 아귀를 치러 나가자 아귀는 입을 벌려 숨을 내 불어 황상과 만조백관을 오 리나 밀어낸다. 그런 후에 궁중이 텅 빈 것을 본 아귀는 세 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가는데, 이에 황상은 공주를 잃은 일에 대한 통한을 느낀다. 한편 철마산 아귀의 소굴로 들어간 원수는 공주에게 계교를 일러주고 약속을 정해 여러 여자를 청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는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공주는 이 계교에 따라 아귀를 잠들게 하고 아귀의 비수를 원수에게 가져다 준다. 따라서 공주는 사건의 피해자이면서 사건 해결을 돕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8 수능 예시문항)

21세기 들어 보편화된 디지털 영상 기술은 영화 미학, 영화 창작 방식, 관객의 영화 체험 등 영화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를 가공하는 '디지털 후반작업'이 통상적 제작 과정으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는 현실을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리얼리즘적 매체라는 오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화는 처음 발명되었을 때부터 놀라운 현실 재현 능력으로 주목받았다. 카메라의 셔터가 작동하면 피사체의 이미지가 필름에 새겨진다.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에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 따라서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 ㉠지가 베르토프는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이산적인 전자 정보로 저장되며, 이 정보들은 디지털 후반작업 과정에서 변형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이미지를 합성하거나,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 그래픽만으로 가상의 인물과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해졌다. ㉡레프 마노비치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붓'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영화는 사진보다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변형되고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가 오히려 영화의 사실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스티븐 프린스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인위적으로 변형된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영화에서 관객이 보는 것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된 이미지이다. 따라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 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필름 영화와 디지털 영화는 이미지의 실재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② 디지털 영화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속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초래했다.
③ '트루 라이즈'는 인위적으로 가공된 디지털 이미지에서 관객이 사실적인 느낌을 받는 현상을 말한다.
④ 영화가 기록이자 증언이라는 주장은 영화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실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⑤ 디지털 영화에서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며 관객은 이 정보를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여 받아들인다.

2. ㉠~㉢의 관점에 대해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회화에 대한 영화의 우위를, ㉡은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고 있군.
② ㉠은 영화의 현실 재현 능력을, ㉢은 영화를 보는 관객의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③ ㉡은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는 역량을, ㉢은 영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④ ㉠과 ㉢은 모두 영화에서 '지각적 리얼리즘'을 중요하게 생각하겠군.
⑤ ㉡과 ㉢은 모두 ㉠의 리얼리즘 개념이 디지털 영화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겠군.

3. 다음은 영화감독 A의 인터뷰이다. 윗글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 ㉯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다고 할 때, 떠올린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2○년 ○월 ○○일 □□일보

기자 : 감독님께서는 ㉮ 이전 영화들에서 필름 작업만을 고집하다가 ㉯ 이번 작품에는 디지털 기술도 사용하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나요?

A : 제가 디지털 영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 세계를 표현한 영화가 유행하고 있지만, 시각적 쾌감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를 원했고,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제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의 현실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만 컴퓨터 그래픽을 최소한도로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행히 많은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기뻤습니다.

① A가 필름 작업을 고집했던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에서 현실의 역동적 양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② A가 삶의 다양한 양상들이 자신의 영화에 드러나기를 원했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현실의 총체적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③ A가 자신의 영화가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④ A가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면서도 최소화하려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영화-눈'의 가치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⑤ A가 컴퓨터 그래픽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을 통해 ㉯에 대한 비평에서 A가 '지각적 리얼리즘'을 의도하고 연출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8 수능 예시문항)

(가)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발현과 민주주의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공론의 장에 진입하지 못한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사전억제의 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잉금지원칙이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원칙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막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표현을 규제하는 방식이 변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 광고 등 상업적 표현물과 일반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우리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영역의 심의는 법적인 사후심의나 자율적인 사전심의로 대체되었다.

또한 익명 표현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사전에 요구받았던 본인확인제를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에서 건전한 정보의 유통을 추구하려는 이 제도가 가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 본인 확인이 목적 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본인확인제는 익명 표현의 장점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얻는 이익에 비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일부 대상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이 완화되었다. 2002년 대법원은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를 도입했다. 공적 인물이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와 사적 인물이나 사적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책임을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인격권의 보호가 우선할 수 있으나, 전자의 경우 언론 보도의 법적 책임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 법리는 법원의 명예훼손 재판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법원은 공직자나 정치인 등의 도덕성이나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언론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다.

(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쉽게 확산된다.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공유되고,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는 법적 절차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일반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요청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물을 ⓑ지체 없이 삭제해야한다. 만약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기사삭제청구권의 행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은 없지만, 법원은 그 기사가 허위이며 중대하고 ⓒ현저한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사 삭제의 청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이때 기사의 허위성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

언론의 보도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권,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론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으나 무죄 확정판결 또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라면,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그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방송될 내용이 진실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 ㉡방영금지가처분제도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영금지가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열에 해당한다는 점도 ⓔ부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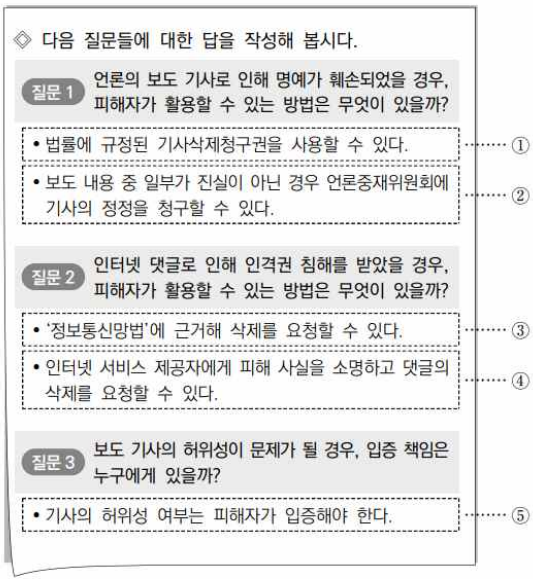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절차를, (나)는 인격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② (가)는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가)는 표현의 자유가 강조된 배경을, (나)는 인격권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상반되는 의견을, (나)는 인격권에 관한 절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대립되는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5.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업적 광고에 대한 심의는 사후에만 허용된다.
②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③ 공적 인물에 대한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대립할 때는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둔다.
④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 인물·공적 사안의 법리'가 채택되었다.
⑤ 영상물에 대한 심의가 검열이라고 판단된 것은 심의 시기와 관련 없이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6.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정 기관이 주체가 되어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억제의 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② 방송으로 인해 훼손된 인격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예방한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③ 인격권을 손상할 것이 명백한 방송이라면, 이를 사전에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④ 현저하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⑤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면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

9. ⓐ~ⓔ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근거를 갖춰 피해 사실을 '밝혀 설명하고'라는 의미이다.
② ⓑ :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이'라는 의미이다.
③ ⓒ : 피해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④ ⓓ : 신청이 '인정되고 받아들여질'이라는 의미이다.
⑤ ⓔ : 검열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6모)

[앞부분 줄거리] 진옥은 월국에 승전한 일을 황제에게 전하고 아오다 문득 대풍을 만나 외딴섬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난다.

그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왈
"사십 후에 한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나이다."
진옥이 왈
"그 자식의 이름을 아시나이까?"
노인이 답왈
"내 자식의 이름은 김진옥이거니와 화초암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더니 지금 사생존망을 모르나이다."
하거늘 원수가 그제야 부친인 줄 알고 그 노인을 붙들고 ㉠대성통곡 왈
"소자의 이름이 진옥이로소이다."
하니 그 노인이 진옥이란 말을 듣고 ㉡ 대성통곡하고 기절하고 엎어지니 진옥이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더라.

그런 뒤에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하더니 한 곳에 다다르니 바람결에 청아한 ⓐ옥피리 소리 들리거늘 살펴보니 일위 동자가 청의를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일엽편주를 타고 살같이 오며 왈
"김 원수는 배를 잠시 멈추소서."
하며 급히 불러 왈
"수부 왕이 청하시니 가사이다."
하거늘 원수가 대왈
"용왕은 수부 용신이요, 진옥은 진세지인이라.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
원수가 부친께 고하여 왈
"어찌 하오리까?"
하니 그 부친이 왈
"용왕이 청하시니 어찌 거역하리오. 아모케든 가리라."
하시니 원수가 동자를 따라 수부에 이르니 일월이 명랑하고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의가 거룩하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맞아 ⓒ백옥상에 좌정한 후 왈
"원수의 존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오늘에서야 처음 보는도다."
원수가 대왈
"저는 인간 사람이라. 이다지 관대하시니 감사무지로소이다."
한참이나 자리를 즐기더니 한 신하가 아뢰어 왈
"동곡 대병이 지경을 범하오니 대왕은 급히 막으소서."
하였더라.
이때 용왕이 원수를 돌아보아 왈
"과인이 김 원수를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동곡 용왕이 지경을 침노하니 원수는 일신을 아끼지 말고 공을 이루라. 만일 적병을 소멸하면 수부의 영광이 될 것이요, 또 공을 표창하리다."
하니 원수가 대왈
"저는 진세 사람이라 어찌 수부 용왕을 당하리오. 그러나 힘을 다하여 보겠나이다."
용왕이 ㉢대희하여 즉시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주거늘 동곡 용왕과 대진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남해 용궁이 가득 찬 듯하더라. 원수 사은하고 물러 나오니 군영이 엄숙하고 위엄이 진동하는지라.

각설, 이때 중국 대병이 회환하다가 일야 대풍에 원수 탄 배 표풍하여 간 곳이 없는지라. 군중이 황황하여 두루 찾았으나 종적을 모르는지라. 삼 삭 만에 본국에 돌아와 황제께 아뢰길 '대원수 김진옥을 중도에 잃어버렸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듣고 대경차탄하시고 다른 제장 군졸들은 무사 귀국함을 기꺼하시나 원수 표풍함을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시더라.

이때 유 승상이 이 말을 듣고 ㉣대경실색하여 부인과 소저와 주야 근심하여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더라. 이에 앞서 우양 공주가 김진옥이 파혼하매 형성군의 며느리 되었으니, 김진옥이 부마됨을 지극히 피함을 시기하여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윽이 틈을 엿보더니, 원수 표풍하여 사생 모름을 듣고 대희하여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쭈오되
"갑자년 난중에 김진옥의 아비 시광도 오랑캐와 내응하다가 성사치 못함으로 월국으로 들어가더니 지금 진옥이 월국을 치는 체하다가 월국으로 도망하여 제 아비와 동심합력하여 중국을 해코자 하오니 그 처자를 어찌 살려 두리까? 황제는 앞날을 생각하소서."
황제 그 말을 듣고 그러할 듯한지라 즉시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가 죽이려 하더라.

(중략)

각설, 이때 원수 수부에서 용궁 대병을 거느리고 일자 장사진을 쳐 제장을 호령하시니 선봉 장신갑이 아뢰어 왈
"동곡 용왕은 유수진을 쳤거늘 원수께서는 어찌 일자 장사진을 쳤나니까?"
원수 웃으며 왈
"오행 중에 상극이 있으니 유수진을 치고 들면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제장이 서로 돌아보고 왈
"원수의 진법은 과연 명장이라."하며 칭찬하더라.

이때 원수가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돋우더니 '동곡 용왕은 들어보라.' 하며 풍운조화를 부리니 동곡 용왕이 ㉤대로하여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들거늘 원수가 응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다가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고 만군 중에 횡행하니 수중 명장이 대경실색하더라.

이때 적진 군중에서 ⓔ항서를 써 올리거늘 원수가 받은 후에 군사를 몰아 돌아오니 용왕이 대희하여 원수와 그 부친을 좌상에 앉히고 원수 공덕을 무수히 치사하시더라. 그 부친으로서 해군을 봉하시고 원수로서 동해군을 봉하시니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이며,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② ㉡ :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의외의 사실을 확인한 '노인'의 반응이며,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기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③ ㉢ : '진옥'의 태도에 만족한 '용왕'의 반응이며, '용왕'이 '진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④ ㉣ : '진옥'의 실종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가족들과 '유 승상'이 '진옥'의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지는군.
⑤ ㉤ : 싸움을 걸며 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곡 용왕'의반응이며, '동곡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려는 행위로 이어지는군.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에 대한 인물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② ⓑ는 인물들이 계획했던 항해가 무사히 지속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당초 목적한 곳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소재이다.
③ ⓒ는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대비되어, 인물이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이다.
④ ⓓ는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하여, 직면한 공격에 상대가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주는 소재이다.
⑤ ⓔ는 갈등의 양상을 감추어, 건네받는 인물이 상대의 진의를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이다.

12. 다음은 학생이 윗글을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상문>

김진옥전 에서는 진옥의 표류를 계기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가족의 상봉과 위기의 서사가 전개되었다. 진옥이 표류해 도착한 공간에서는 진옥이 부친과 상봉했는데,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고,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한편, 진옥이 부재한 공간에서는 진옥의 가족을 해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이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지만,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략을 꾸몄다. 그 후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듯 표류는 진옥과 가족의 만남을 돕거나 방해하면서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김진옥전 의 영웅 서사가 보여 주는 바다 세계에서의 모험담에서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변모된 서술 양상이 드러난다. 이 작품 속 초월적 세계는 다른 영웅소설에서처럼 인간 세계와의 간극을 지닌 곳으로 인식되지만,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일어나는 곳으로도 그려진다. 주인공은 초월적 존재의 요청으로 초월적 세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우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의 자격을 증명한다.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을 보면, 진옥으로 하여금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서 생긴 문제를 대신 해결하게 하려 함을 알 수 있군.
③ 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과 '대진'하는 장면에서 '남해 용궁'에서도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면,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진옥이 '진법'을 펼치는 장면에서 용궁의 '제장'이 '명장'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초월적 세계의 존재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용왕이 진옥을 '치사'하는 장면에서 진옥을 '동해군'으로 '봉하'며 '표창'하는 것을 보면,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수능)

한참 정이와 별의별 말이 다 오고 가고 하였을 때, '불단집*'에서 마악 설거지를 하고 있던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득이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궁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에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의 역성을 들려고는 하지 않고,

㉠"애최에 늬가 말 실수헌 게 잘못이지, 남을 탄해 뭘 허니?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업구……, 온, 글쎄, 그만 허구 들어가아. 늬가 잘못했어. 네 잘못이야."

하고 도리어 딸을 나무라던 것을, 갑득이 어미는 그 당장에는, 귀에 솔깃하여,

"그렇지. 자계가 먼저 말을 냈지. 나야 그저 대꾸헌 죄밖엔 없으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자계가 시초를 낸 게니까 —— "

하고, 뽐내도 보았던 것이나,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은 얼토당토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에는,

㉡"아, 그 배지 못헌 행랑것허구, 쌈이 무슨 쌈이냐?"

"똥이 무서워 피허니? 더러우니까 피허는 게지!"

하고, 그러한 사상이 들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다.

사실, 을득이 녀석이 나중에 보고하는데 들으니까, 저녁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걔두 그만 분별은 있을 아이가, 그래 그런 상것허구 욕지거리를 허구 그러다니……." 쨋, 쨋, 쨋 하고 혀를 차니까, 늙은 마누라는 또 마주 앉아서,

"그렇죠, 그렇구 말구요. 쌈을 허드래두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허구 허는 건, 꼭 하늘 보구 침 뱉기지. 그 욕이 다아 내게 돌아오지, 소용 있나요."

㉢그리고 후유우 하고 한숨조차 내쉬는데, 방 안에서들 그러는 소리가 대문 밖까지 그대로 들리더라 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골목 안 아홉 가구가 공동변소처럼 쓰는 불단집 소유의 뒷간에 양 서방이 갇힌다.

그는 아무리 상고하여 보아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울화가 올랐다.

'제 집 뒷간두 아니구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구 그럴 건 뭐 있누? 늙은이두 제엔장헐…….'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 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꼭 어떠한 수상한 인물인 듯싶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 그는 생각 끝에,

"아, 누가 문을 잠겄어어어?"

"문 좀 여세요오. 아, 누가……."

하고, 그러한 말을 제법 외치지도 못하고 그저 중얼대며, 한참이나 문을 잡아, 흔들어 자물쇠 소리만 덜거덕거렸던 것이다. 을득이한테 저의 아비가 불단집 뒷간에 가 갇히어 있다는 말을 듣고, 어인 까닭을 모르는 채 그곳까지 뛰어온 갑득이 어미는, 대강 사정을 알자, 곧 이것은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계획적으로 한 일임에 틀림없다고 혼자 마음에 단정하고,

〔A〕 "아아니, 그래, 애아범이 미우면 으떻게는 뭇 해서, 그 더러운 뒷간 숙에다 글쎄 가둬야만 헌단 말예요? 그래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예요?"

하고, 혼자 흥분을 하였다. 갑순이 할머니는, 그것은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라, 그래, 눈을 둥그렇게 뜨고, 손조차 내저어 가며,

〔B〕 "그건, 괜한 소리유, 괜한 소리야. 이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 가둬? 모르구 그랬지, 모르구 그랬어. 난 꼭 아무두 없는 줄만 알구서, 그래, 모르구 자물쇨 챘지. 온, 알구야 왜 미쳤다구 잠그겠수?"

발명을 하였으나,

〔C〕 "모르긴 왜 몰라요. 다아 알구서 한 짓이지. 그래 자물쇨 챌 때, 안에서 말하는 소리두 뭇 들었단 말예요? 듣구두 모른 체했지. 듣구두 그냥 잠가 버린 거야."

하고, 갑득이 어미는 덮어놓고 시비만 걸려는 것을,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아무러기서루니 갑순이 할머니께서 아시구야 그러셨겠소?"

"노인이 되셔서 귀두 어두시구 그래 몰르셨지!"

하고 말들이 있었고, 정작, 양 서방이 또 머뭇거리다가,

"자물쇨 채실 때, 내가 얼른 소리를 냈어두 아셨을 텐데, 미처 못 그래 그리 된 거야."

하고, 그러한 말을 매우 겸연쩍게 하여, 갑득이 어미는 집주름 집 마누라를 좀더 공박할 것을 단념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동시에,

㉤"오오, 그러니까, 채, 무어, 말할 새두 없이 문이 잠겨져서, 그냥 갇힌 채, 누구 오기만 기대린 게로군?"

"그래, 얼마 동안이나 들어가 있었어?"

"뭐어 오래야 갇혔겠수? 동안이야 잠깐이겠지만……."

- 박태원, 「골목 안」 -

* 불단집 : 집 밖에도 전등을 단, 살림이 넉넉한 집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②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 인물 간 다툼의 원인임이 드러난다.
③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
④ 이웃을 무시하는 인물의 차별적 언행을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이 드러난다.
⑤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됨이 드러난다.

15.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추궁하며 상대가 잘못했음을 분명히 한다.
② [B]에서 인물은 상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다.
③ [C]에서 인물은 추측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언이 신뢰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상대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몰아붙인다.
④ [A]에서 인물은 상대의 행위와 동기를 함께 비난하고, [B]에서 인물은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⑤ [A]에서 인물이 상대에게 화를 내자, [B]에서 인물은 당황하며 자신을 방어하지만, [C]에서 갈등 상황은 지속된다.

16. 집주름 영감과 양 서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아내가갑득이 어미 앞에서 딸을 나무란 뒤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② 집주름 영감은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게하는, 양 서방은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③ 양 서방이 여러 궁리를 하면서도 뒷간을 빠져나오지 못한이유는 아내에게 밝힌 사건의 경위와 무관하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말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도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려서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이다.

1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의 연이은 사용은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 등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① ㉠ :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자신의 생각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면서 시간의 지연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② ㉡ : 서술자 시선의 서술과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것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는 인물에게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겠군.
③ ㉢ : 말을 전하는 '~라 한다'의 주체가 인물일 수도 있고 서술자 일 수도 있게 서술한 것은,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겠군.
④ ㉣ :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며 설명한 것은, 인물이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⑤ ㉤ : 감탄사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인물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겠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②	③	②	④
①	⑤	②	①	①
①	③	②	①	④
①	②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디지털 영화의 이미지는 0과 1의 정보로 투사되는 것을 관객이 인지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다. 4문단에 따르면, 디지털 이미지는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가 아니라 이미 지각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어 스크린에 투사되는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는 영화 속 인물, 사물, 공간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3문단에서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4문단에서 필름 영화의 이미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디지털 이미지의 실재성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현실의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이른바 '합성 리얼리즘'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스티븐 프린스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공된 이미지인 디지털 이미지를 관객이 사실적이라고 인식하는 '트루 라이즈', 즉 '진짜 거짓말' 현상을 '지각적 리얼리즘'이라고 정의한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필름 표면에 각인된 이미지는 영화가 촬영되는 순간 영화의 대상이 실제로 카메라 앞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므로, 필름 영화는 하나의 기록이자 증언으로 인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3문단에서 필름 영화와 달리 디지털 영화에서는 현실과 영화 이미지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느슨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2.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은 역동적인 현실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명명하고, '영화-눈'이 인간의 지각을 확장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하고 총체적인 인식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 ㉢은 '사진적 리얼리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디지털 이미지에서 더 강한 사실감을 느끼는 관객의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영화가 현실 세계를 회화나 사진보다 더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역량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은 영화가 사실적 재현을 넘어 상상의 세계를 그려 내는 시대로 진입하여 회화나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워졌다고 했을 뿐이지 영화에 대한 회화의 우위를 주장하지 않았다.

③ 카메라가 대상을 포착하는 역량을 중시했던 사람은 '영화-눈'을 언급했던 ㉠이고, 영화 이미지가 가상의 세계를 구현하는 역량을 중시했던 사람은 '영화-붓'을 언급했던 ㉡이다.

④ ㉢은 영화에서 '지각적 리얼리즘'을 중시했으나 ㉠은 그렇지 않다. ㉡은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을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영화의 리얼리즘적 역량을 '영화-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은 이러한 '영화-눈'의 시대가 지나가고 '영화-붓'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였고, ㉢은 영화가 보여 주는 대상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믿음에 기반한 '사진적 리얼리즘'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다. 즉, ㉡과 ㉢은 모두 ㉠의 리얼리즘 개념이 디지털 영화의 시대에 유효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자기 영화가 언제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영화-붓과 합성 리얼리즘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영화-눈과 사진적 리얼리즘을 중시한 것이다. 정답 ③

[4~9]

4. 글의 구조와 전개방식

정답해설 : (가)는 사전심의제도, 본인확인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 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범위, 대상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양상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일반 이용자의 게시물 또는 댓글, 언론의 보도 기사, 시사 보도 프로그램 방송 등을 통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정답 ②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서 대법원이 도입한 '공적 인물' '공적 사안의 법리'는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의 명예나 초상권 등의 인격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 한발 물러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이는 인격권보다 표현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것이다.

정답 ④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서 언론의 보도 기사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면 법원 혹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기사삭제청구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정답 ①

7.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허위 사실의 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며, ㉡을 비판하는 내용이 아닌 유사한 입장이다. 정답 ⑤

8.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지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는 문맥상의 의미를 '(게시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착오가 없

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서 언론 보도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반론보도청구권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A에 대한 의혹이 진실이라도 A는 갑의 신문사의 기사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10~13]

1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부친임을 알게 된 진옥이 헤어졌던 부친과 기적처럼 만나게 된 것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노인'과 함께 전란을 극복했던 과거를 떠올린 '진옥'의 반응으로 볼 수 없으며, 이어서 '진옥' 이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고 난 뒤 '눈물을 그치고 부친을 위로하며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므로 진옥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대성통곡'은 노인이 대면한 사람이 잃어버린 아들인 진옥이라는 의외의 사실을 확인하고 보인 반응이며, 이는 노인이 격한 감정을 못 이겨 '기절하고 엎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③ ㉢의 '대희'는 동곡 용왕이 침노했으니 적병을소멸해 달라는 용왕의 요청에 대해 진옥이 '힘을 다하여 보겠'다고 의지를 보이자 그 태도에 만족한 용왕이 보인 반응이다. 이는 또한 용왕이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병 팔만을 조발하여' 제공하는 행위로 이어진다. ④ ㉣의 '대경실색'은 원수인 진옥이 실종되어 표풍한다는 소식에 대한 유 승상의 반응이며, 이는 유 승상이 가족인 '부인'과 '소저'와 함께 진옥이 '천만다행으로 살아 돌아옴을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생환을 비는 모습으로 이어진다.

⑤ ㉤의 '대로'는 '군법을 정제하고 싸움을' 걸며 '풍운조화'를 부리는 진옥에 대한 동곡 용왕의 반응이며, 이는 동곡 용왕이 진옥을 제압하기 위해 '비룡마를 타고 청전검을 들고 달려'드는 행위로 이어진다.

1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옥피리 소리'는 진옥이 탄 배가 '만경창파에' 뜬 가운데 들려와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존재인 '동자'에 대한 진옥의 주의를 환기하는 소재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의 '일엽편주'는 인물들이 계획하여 당초 목적한 곳인 고국으로 가는 항해가 지속될 수 있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수부 용왕의 청에 따라 '수부'에 이를 수 있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동자가 타고 나타난 것이다.

③ ⓒ의 '백옥상'은 '천지가 광활하고 주궁이 장려하고 위의가 거룩한' 용궁의 주변 풍광을 보여 주는 앞선 장면과 어울려 용왕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주변 풍광과 대비되거나 인물이 당면한 처지에 안절부절못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소재로 볼 수 없다.

④ ⓓ의 '청전검'은 '동곡 용왕'이 들고 진옥에게 달려든 무기이다. 진옥은 싸움에서 이겨 '용왕의 머리를 베어' 들게 되었으므로, 청전검은 인물이 지닌 비범함을 돋보이게 한 소재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곡 용왕의 상대인 진옥이 미처 대응하지 못하게 도움을 준 소재로도 볼 수도 없다.

⑤ ⓔ의 '항서'는 '적진 군중에서' 쓴 것으로 적이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하여 진옥이 '동곡 용왕'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였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을 감추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건네받는 인물인 진옥이 상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없도록 기능하는 소재로도 볼 수 없다.

12.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황제는 진옥이 귀환하지 못했다는 상황에 대해 '슬퍼하시고 또한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 ㉱에서처럼 황제가 '그러할 듯하다고 이해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노인이 '자식을 두었다가 갑자년 난중에 잃었'다거나 '화초함에서 공부하다가 이별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과 부친이 이별하였을 때의 상황이 언급되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진옥이 부친에게 '전후사를 낱낱이 설화'한 뒤, '배를 타고 만경창파에 떠서 고국으로 향'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이 부친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국으로 출발하는 이야기가 이어졌'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우양 공주가 진옥을 '항상 모해할 뜻을 두고 그윽이 틈을 엿보'다가 '병부상서 정동한 등으로 통하여 황제께 여쭈'어 모함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에서처럼 '공주는 진옥의 부재를 기회로 삼아 계략을 꾸몄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가 '유 승상을 삭탈관직하고 진옥의 처 유 씨를 잡아다 죽이려' 했다고 서술되었으므로 ㉲에서처럼 '진옥을 모함하는 말을 들은 황제에 의해 진옥의 가족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1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왕이 '공을 이루라'고 한 장면에서 '적병'의 처치를 진옥에게 요청한 것은 동곡 용왕의 지경 침노에 의한 초월적 세계 안에서 생긴 문제를 진옥에게 대신 해결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인간 세계와 초월적 세계 사이에 생긴 것으로 보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진옥이 '청의'를 입은 동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용궁과 인세가 길이 다르니 어찌 서로 미치리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와의 간극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진옥이 '지경'을 침입한 적인 동곡 용왕과 그의 병사들과 '대진'하는 장면은 '남해 용궁'과 같은 초월적 세계에서도 인간 세계인

'중국'처럼 전란이 생기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를 두고 <보기>의 내용에 따라 초월적 세계에도 인간 세계에나 있을 법한 갈등이 나타난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진옥이 '장사진'을 펼치고 그 이유를 설명하자 용궁의 '제장'이 '과연 명장'이라고 '칭찬'한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초월적 세계인 수부의 존재인 장군들에게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용왕은 진옥에게 적병을 소멸해 주기를 부탁하며 '공을 표창'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진옥이 적의 항복을 받고 회군하자 용왕은 진옥의 공덕을 '치사'하며 '동해군'으로 '봉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에 따라 진옥이 약속된 보상을 받아 영웅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14~17]

14.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자기 딸('정이')을 꾸짖었으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는 '그 배지 못헌 행랑것과 무슨 싸움이냐, 똥은 더러우니까 피하는 거다'와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갑순이 할머니'가 저녁때 돌아온 남편 '집주름 영감'과 '그런 상것하고 욕지거리를 하지 마라,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다. 이 대화의 내용에서 '그 배지 못헌 행랑것', '그런 상것'은 '갑득이 어미'를 가리킨다. 이처럼 '갑순이 할머니' 집 안에서의 대화가 이웃에 노출되어 '갑득이 어미'에 대한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가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갑순이 할머니'의 딸 '정이'와 '갑득이 어미' 사이에 '별의별 말'이 오가는 말싸움이 벌어졌으나, '갑순이 할머니'는 딸을 나무라면서 한사코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또 이후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의 다툼이 일어나지만,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한 것으로, 서로의 말실수에 대한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해 '갑순이 할머니'와 '갑득이 어미'가 다투자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은 '갑순이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웃의 갈등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인물들의 '냉담함'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갑순이 할머니'와 '집주름 영감' 내외는 '갑득이 어미'를 두고 '그 배지 못헌 행랑것', '그런 상것' 등으로 지칭한다. 이러한 차별적 언행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함께 견뎌 내려는 사람들의 결연함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히는 곤경에 처한 상황이 나타난다. '갑득이 어미'는 아들 '을득이'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된다. 이 일로 '갑득이 어미'는 흥분하여 '갑순이 할머니'에게 시비를 건다. 그러나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이 '갑순이 할머니' 편을 들고 '양 서방'도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자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하게 된다. 그러므로 곤경에 빠진 가족의 상황을 다른 가족에게 전한 것이 이웃 간 앙금을 씻는 계기가 된 것은 아니다.

1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을 두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평소에 자기에게 좋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는 '갑순이 할머니'가 '애아범(양 서방)'이 미워서(동기) 뒷간 속에다 가두는(행위) 심사를 부렸다고 비난한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갑순이 할머니'는 [B]에서 그런 말은 괜한 소리고 자신은 모르고 자물쇠를 채웠다고 발명한다. 그러므로 '갑순이 할머니'가 '갑득이 어미'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갑득이 어미'는, '애 아범'이 미워서 뒷간 속에 가뒀냐, 노인이 심사를 그렇게 부려야 옳으냐면서 '갑순이 할머니'를 반복적으로 추궁한다.

② [B]에서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의 비난에 대해 그러한 말은 괜한 소리라고 하며, 모르고 그랬다는 말을 반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있다.

③ [C]에서 '갑득이 어미'는 모르고 그랬다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대해, 알고 한 짓이며 안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체하며 잠가 버린 거라고 추측하며, 억울해하는 '갑순이 할머니'의 말에 반박하며 몰아붙이고 있다.

⑤ '갑득이 어미'는 [A]와 같이 '갑순이 할머니'에게 화를 낸다. '갑순이 할머니'는 '전혀 예기하지 못하였던 억울한 말'이었기에 [B]에서와 같이 당황하며 모르고 그랬다며 자신을 방어한다. 그렇지만 '갑득이 어미' 는 [C]에서 보는 것처럼 '갑순이 할머니'를 불신하면서 몰아붙임으로써 둘의 갈등은 지속된다.

16. 인물의 태도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집주름 영감'은, '분별은 있을 아이(정이)'가 '그런 상것(갑득이 어미)'하고 욕지거리를 했다고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다. 이에 호응하여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는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런 것'들하고 하는 건 하늘 보고 침 뱉기라고 대꾸한다. 그러므로 '집주름 영감'이 딸의 행동을 분별없다고 탓한 이유는 그의 아내인 '갑순이 할머니'가 밝힌 생각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주름 영감'과 '갑순이 할머니' 부부는 '갑득이 어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집주름 영감'의 말이 을득이에게 들려 결과적으로 아내와 '갑득이 어미'의 갈등을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양 서방'이 뒷간에 갇힌 일로 인해 '갑득이 어미'와 '갑순이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만, '양 서방'은 자기 실수라는 투로 말을 하여 '갑득이 어미'는 '갑순이 할머니'에 대한 공박을 단념한다.

③ '양 서방'은 뒷간에 갇혀 여러 궁리를 하였지만 수상한 인물처럼 느껴질까봐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아내에게 자신이 소리를 내지 못해 뒷간에 갇히게 되었다고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있으므로 서로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양 서방'은 아내가 '갑순이 할머니'에게 한 비난과 이에 대한

이웃들의 반응을 듣고, '갑순이 할머니'가 자물쇠를 채울 때 얼른 소리를 냈어야 했다는 식으로 '매우 겸연쩍게' 말했기에 아내에게 무덤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제집 뒷간두 아니구 ~ 늙은이두 제엔장헐…….'로 보아 '양 서방'은 누가 뒷간 문을 잠갔는지 알고 있었다. '양 서방'이 자신의 상황을 '갑순이 할머니'에게 알리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구경 나온 이웃 사람들의 반응 이후이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서술자 시선의 서술인 동시에 '갑득이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바에 대한 진술이기에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한 서술이 겹쳐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 의하면 두 서술 방식이 겹쳐 나타나는 경우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갑득이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에서 말줄임표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순이 할머니'가 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감추거나 다른 할 말을 떠올리기 위한 시간의 지연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갑순이 할머니'는 '갑득이 어미' 앞에서는 '네 잘못이야'라며 딸을 나무라지만, 그 '잘못'의 진짜 의미는 딸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했던 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에서 '~라 한다'의 주체는 인물 '을득이'일 수도 있고 서술자일 수도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인물의 경험을 전하기만 하고 특정 인물의 편에 서지 않으려는 서술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보기>에 의하면 ㉣에서 인물의 생각에 대해 쉼표를 연이어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양 서방'이 소리를 질러 볼까 하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 의하면, ㉤에서 감탄사('오오') 이후 쉼표를 연이어 사용한 것은, '갑득이 어미'가 얼른 소리를 내지 못해 갇히게 되었다는 '양 서방'의 발언을 바탕으로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9학년도 수능)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 (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을 한다. 가령 내가 탄 그 기차가 고장으로 선로에 멈춰 운행이 오랫동안 지연된 세계가 그런 예이다. 하지만 내가 기차를 탄 세계들 중에서, 내가 기차를 타고 별다른 이변 없이 제시간에 도착한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우리의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A가 참인 가능세계들 중에 비교할 때, B도 참인 가능세계가 B가 거짓인 가능세계보다 현실세계와 더 유사하다면, 현실세계의 나는 A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만약 A라면 ~B가 아닌 B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능세계는 다음의 네 가지 성질을 갖는다. 첫째는 가능세계의 일관성이다. 가능세계는 명칭 그대로 가능한 세계이므로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없다. 둘째는 가능세계의 포괄성이다. 이것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능세계의 완결성이다.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즉 P와 ~P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가능세계의 독립성이다. 한 가능세계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야만 하며, 연속된 시간과 공간에 포함된 존재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의 세계에만 속한다. 한 가능세계 W1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가능세계 W2의 시간과 공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W1과 W2는 서로 시간과 공간이 전혀 다른 세계이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철학에서 갖가지 흥미로운 질문과 통찰을 이끌어 내며, 그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아가 가능세계를 활용한 논의는 오늘날 인지 과학, 언어학, 공학 등의 분야로 그 응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②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세계에서 성립한다.
③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
④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
⑤ 전통 논리학에 따르면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된다.

2.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이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
②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가 성립하는 가능세계 중에는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
③ ㉡과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만약 ㉡이 거짓이라면 어떤 가능세계에서도 다보탑이 개성에 있지 않다.
⑤ ㉠과 ㉡은 현실세계에서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지각을 한 가능세계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②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기차 고장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 가능세계가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내가 지각을 한 가능세계가 내가 지각을 하지 않은 가능세계에 비해 현실세계와의 유사성이 더 낮기 때문이다.
④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할 때 그 가능세계들의 대다수에서 내가 지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기 때문이다.

4.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① 가능세계의 완결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과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고, 그중 한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다른 세계로 이어질 수 없겠군.
② 가능세계의 포괄성과 독립성에 따르면,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성립하면서 그 세계에 속한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하고, 그 세계들의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단절되어 있겠군.
③ 가능세계의 완결성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하나는 반드시 참이겠군.
④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가능세계 들이 있겠군.
⑤ 가능세계의 일관성에 따르면,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가능세계가 존재하겠군.

[5~8]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수능)

탄수화물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된다.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위(胃)가 넷으로 나누어진 반추 동물의 첫째 위인 반추위에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생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피브로박터숙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생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한편 반추위에서 죽진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런데 S의 과도한 생장이 반추 동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되어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생장하며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락토바실러스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나 S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5.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섬유소는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된다.
② 반추 동물의 세포에서 합성한 효소는 셀룰로스를 분해한다.
③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생장을 멈추고 사멸한다.
④ 반추 동물의 과도한 섬유소 섭취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한다.
⑤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장한다.

6. 윗글로 볼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와 ⓑ는 모두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생장하지 못하겠군.
② ⓐ와 ⓑ는 모두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하는 물질을 생성할 수 있겠군.
③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는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군.
④ ⓑ와 ⓒ는 모두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겠군.
⑤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하고 ⓒ의 생장은 증가하겠군.

7. 윗글을 바탕으로 ㉠이 가능한 이유를 진술한다고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 이를 이용하여 생장하는 (㉯)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①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② ㉮ :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③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 동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④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
⑤ ㉮ :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
㉯ : 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포도당

8.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9모)

그런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지나니 내 겨드랑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의사**는 나에게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연이틀을 쑤시는가 하면 한 일주일 소식을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새운다는 것은 못 할 일이었다. 나는 제집이면서 꼭 **도적놈**처럼 뜰의 어느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활이 두 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견디다 못해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도 다 있었다.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던 것이 거리를 거닐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곧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내가 의료적인 이유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도 겹치는 점이었다.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을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12시부터 4시까지는 모든 시민은 밖에 나다니지 말기로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규칙이니까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면 이것은 소형(小型)의 도덕률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도덕률을 지키는 한 내 겨드랑은 요절이 나고 나는 죽을는지도 모른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늘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한다. '나'는 밤 산책 중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친다.

오늘은 경관을 만났다. 나는 얼른 몸을 숨겼다. 그는 부산하게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한 것이다. 그가 지나간 다음에도 나는 ㉠은신처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화국의 시민이 어찌하여 그런 엄청난 번모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를 일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백치나 다름없는 감각을 가진 사람이다. 위에서 레닌과 김구를 같은 유(類)에 놓은 것만 가지고도 알 만할 것이다. 그런데 경관이 지나가는 순간에 내가 **혁명가**였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혁명가라고 자꾸 하는 것이 안 좋으면 **간첩**이래도 좋다. 나는 그 순간 분명히 간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간첩이 아닌 것은 역시 분명하였다. 도적놈이래도 그렇다. 나는 분명히 도적놈이었으나 분명히 도적놈은 아니었다. 나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 만해지는 듯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하고 나는 생각하였다. 나도 물론 처음에는 치료라는 순전히 **공리적인** 이유로 이 산책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설사 내 겨드랑의 달걀이 영원히 가 버린다 하더라도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누룩 반죽**처럼. 기적(奇蹟). 기적. 경악. 공포. 웃음. 오늘 세상에도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 간질간질해 왔다. 나는 속옷 사이로 더듬어 보았다. 털이 만져졌다. 그런데 닿임새가 심상치 않았다. 털이 괜히 빳빳하고 잘 묶여 있는 느낌이다. 빗자루처럼. 잘 만져 본다. 아무래도 보통이 아니다. 나는 ㉡바위틈에 몸을 숨기고 윗옷을 벗었다. 속옷은 벗지 않고 들치고는 겨드랑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실소하고 말았다. 내 겨드랑에는 새끼 까마귀의 그것만 한 아주 치사하게 쬐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다른 쪽 겨드랑을 또 들여다보았다. 나는 쿡 웃어 버렸다. 그쪽에도 장난감 몽당빗자루만 한 것이 달려 있는 것이었다. 날개가 보통 새들의 것과 다른 점이 그 깃털이 곱슬곱슬한 고수머리라는 것뿐이었다. 흠. 이놈이 나오려는 아픔이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 날개를 움직이려고 해 보았다. **귓바퀴**가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참말 부끄러워졌다.

- 최인훈, 「크리스마스 캐럴 5」 -

*레닌: 러시아의 혁명가

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
② 유사한 사건을 반복해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
③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⑤ 사건에 대한 중심인물의 내적 반응을 중심인물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1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사'가 '나'의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 것은 '나'의 증상이 '의사'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나'는 자신의 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곤 했다.
③ '뜰'에서의 '나'의 고통은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④ '나'는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 고민한다.
⑤ '혁명가'와 '간첩'은 '나'가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과 비교해 보는 대상이다.

11.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다.
② ㉠은 윤리적인, ㉡은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다.
③ ㉠은 ㉡과 달리,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다.
④ ㉡은 ㉠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⑤ ㉠과 ㉡은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크리스마스 캐럴 5]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에서 자유의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나'의 겨드랑이에 돋은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그로 인한 밤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작품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밤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과 함께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드러낸다.

①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은, 단순히 이동의 자유에 대한 억압만이 아니라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군.
②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가 그만큼 절박하게 요구되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 동시에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하기도 하겠군.
③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겠군.
④ 정체불명의 파마늘이 '날개'의 형상으로 바뀐 것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통해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군.
⑤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겠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6모)

장 소저가 남복을 벗고 담장 소복으로 여복을 개착하고 금로에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먼저 차린 후 제문을 읽으니, ⓐ그 글에 하였으되,

'유세차 기축 삼월 정묘 삭 십오 일에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은 감히 이부 시랑 이 공 영위 앞에 아뢰나이다. 오호 애재라! 소첩의 부친이 대인과 사귐이 깊사옵더니, 그 후에 대인은 귀자를 두시고 부친은 소첩을 얻으시니 피차에 동년 동일생이라.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더니, 슬프다, 양가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 모친 또한 부친의 뒤를 따라 별세하시니, 외롭고 연약한 소첩은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도주하였다가, 남자로 행세하여 용문에 올라 남적을 멸하고 대공을 이룸은, 적자 왕희를 없이하여 원통함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찾아 혼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는데, 사신의 말을 들으니 대인 부자가 형적이 없다 하니, 반드시 수중고혼이 되신지라. 어찌 참통치 않으리잇고. 이에 한 잔 술을 바치옵나니 삼가 바라건대 존령은 흠향 하옵소서.'

하였더라.

(중략)

각설. 이 공자 대봉이 부친을 모시고 ㉠용궁을 떠나 여러 날 만에 ㉡황성에 올라와 머물 곳을 정한 후, 흉노의 머리 벤 것을 봉하여 성상께 올릴새 상소를 지어 전후사연을 주달하였거늘, 이때 성상이 이 시랑 부자의 생사를 알지 못하시고 장 소저의 앞길을 애련히 여기사 마음에 잊지 못하시더니, 또 장 소저의 상표가 이르렀거늘 상이 반기사 급히 열어 보시니 왈,

'신첩 장애황은 일장 표를 용탑 하에 올리나이다. 신첩이 성상의 큰 은혜를 받자와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고혼을 위로하오나, 이승과 저승이 판이하게 달라 영혼이 자취가 없사오니, 비록 앞에 와 흠향하온들 어찌 알 리 있사오리잇가. 아득한 경상과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와 제를 지내며 통곡하옵더니, 천우신조하와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 일비일희하여 즐겁기 무궁하오니, 이는 다 성상의 넓으신 덕택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나 왕희 부자는 국가를 혼란스럽게 한 간신이옵고 신첩의 원수라. 바라건대 폐하는 왕희 부자를 엄형 국문하사 국법을 밝히시고, 그 부자를 신첩에게 내어 주시면 남선우 베던 칼로 난신을 죽여 이익의 부자에게 제하여 영혼을 위로하리이다.'

하였더라.

상이 다 보신 후 정히 처결코자 하시더니, 이때 또 하나의 표문이 올라오거늘, 상이 의괴하여 열어 보시니 ⓑ그 소에 하였으되,

'죄신 이대봉은 황공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려 절을 올리며 한 장 표문을 황상 용탑 하에 바치옵나이다. 신의 부자가 간신 왕희의 모함을 입었사오나, 폐하의 성덕을 입사와 이 한목숨에 너그러움을 베풀어 ㉢해도에 내치신 덕택으로 유배지로 가옵더니, 도중을 향하와 배를 타고 대해 중에 행하옵더니, 뜻밖에 뱃사람들이 달려들어 아비를 결박하여 물에 던지거늘, 신의 아비 죽는 양을 보고 또한 뒤를 따라 수중에 빠지오매 거의 죽게 되었삽더니, 마침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나 서역 천축국 ㉣백운암에 가 팔 년을 의

탁하였나이다. 생각하옵건대 신의 부자가 국가의 죄인이라. 타처에 오래 있사옴이 옳지 않아 세상에 나와 수중에 빠진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하와 중원으로 돌아가옵다가, 농서에서 한나라 장수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고, 사평에서 오추마를 얻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어, 황성으로 향코자 하옵다가, 반적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와 전죄를 무릅쓰고 천 리를 달려와 금릉에 이르러 자칭 충의장군이라 하옵고 필마단창으로 적군을 파하고 적장 묵특남과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하옵고, 흉노가 도망하는 것을 따라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나이다. 돌아오는 길에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나흘 밤낮을 정처 없이 가다가 천우신조하옵고, 성상의 하해지덕으로 무인절도에 다다라 바람이 그치오며, 그 섬에 올라가 죽었던 아비를 만났사오니 황명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감히 함께 와 대죄하옵나니, 신의 부자의 죄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하오나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요 신의 원수라. 뱃사람이 재물 없이 적소로 가는 죄수를 무단히 살해하올 일은 만무하온즉, 이는 반드시 왕희의 사주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바 없는지라 바라옵건대 성상은 엄형 국문하옵신 후 왕적을 내어 주시고 신의 죄를 다스리옵소서.'

하였더라.

-작자 미상, 「이대봉전」-

* 진진지연(秦晉之緣) : 혼인의 인연.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이대봉이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칼을 얻은 공간이다.
② ㉡은 흉노가 침범한 곳이자 이대봉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이다.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간신의 모해로 유배 간 공간이다.
④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다.
⑤ ㉤은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이다.

14. 장 소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②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③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은 혼약이 어그러진 것과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고 여겼다.
④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변복 도주했다.
⑤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했다.

15.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고전 소설에서는 제문, 표문 등과 같은 다양한 글이 활용되기도 해요. 윗글의 ⓐ와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고려하여, 글의 특징이나 기능에 대해 말해 보세요.

학 생 : _____ [A] _____

선생님 : 네, 맞아요

① ⓐ는 망자에게 바치는 제문이고, ⓑ는 성상에게 바치는 표문이에요.
② ⓐ는 상대의 원통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는 상대에게 사건 경과를 알려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어요.
③ ⓐ와 달리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었어요.
④ ⓐ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이 오해했던 사건의 실상이 ⓑ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⑤ ⓐ와 ⓑ는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과 상대를 서두에서 밝히고 있어요.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당위로 제시되고,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그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들 또한 주인공의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에 조력한다. 공적 활약을 통해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면에 사적 목표의 추구를 배치하는 이러한 구도는 영웅소설이 지향하는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데에서,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②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 수 있군.
③ 흉노의 침입으로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여 이대봉이 출전한 데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군.
④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이 시랑과 재회한 데에서, 비현실계의 존재가 이대봉의 공적 활약에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이대봉이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성상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데에서,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인물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①	②	③	④	⑤
④	①	③	⑤	④
③	③	④	③	③
④				

[1~4]

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제시된 가능세계의 성질 중 완결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느 세계에서든 임의의 명제 P에 대해 "P이거나 ~P이다."라는 배중률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배중률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문단에 따르면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나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 모두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명제인데, 전자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는 데 비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가능한 명제는 현실 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그러므로 필연적인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가능세계가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1문단에서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모순율에 의하면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즉, A의 거짓임이 "만약 A이면 B이다."를 참인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만약 A이면 B이다."의 참 거짓은 A의 참 거짓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만약 다보탑이 개성에 있다면, 다보탑은 개성에 있다."라는 명제도 "만약 Q이면 Q이다." 형식의 필연적인 명제이므로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따라서 이 명제가 "성립하는 가능세계"란 모든 가능세계를 말한다. 그런데 2문단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만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은 필연적이지 않은 명제이므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이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는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명제는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③ 1문단에 따르면, ㉠과 ㉡은 모순관계가 아니다. 즉,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참인 경우에는,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도 반드시 참이 된다. 그러므로 "다보탑은 개성에 있지 않다."와 ㉡이 둘 다 참인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④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거짓이라는 것은,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⑤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라는 명제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명제가 모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1문단의 정의에 따르면 모두 참이거나 모두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보탑이 경주에 있는 우리 현실세계에서는 모두 참일 수 있다.

3.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 중에는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 여전히 지각을 하는 세계와, 기차가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해 지각을 하지 않는 세계가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가능세계 중 후자가 전자보다 더 유사성이 높다고 했으므로 ③의 진술이 ⓐ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② 3문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은 가능세계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 들끼리 비교하여야 한다.

④ 3문단은 현실세계와 가능세계 사이의 유사성의 정도를 비교해서 ⓐ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찾아야 함을 말해 준다. 그런데 내가 기차를 타고 지각을 하지 않는 가능세계의 개수가 많다는 것은 유사성의 정도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에 대한 적절한 대답이 될 수 없다.

⑤ ⓐ에 대한 답변은 가능세계의 개념을 통해 제시되어야 한다. 내가 그 기차를 탄 것이 현실세계에서 거짓이라는 것은 ⓐ와 같은 질문을 왜 하는지 이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에 대한 답변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다.

4.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라는 명제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는 반대관계이므로 <보기>에 따르면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명제는 둘 중 하나만 참인 것이 가능하다. 즉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가 참이거나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가 참'인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은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 중 어느 하나만 참인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4문단의 가능세계의 포괄성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하므로 위 주장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라 반대 관계이므로 배중률을 이야기할 수 없고, 따라서 완결성도 말할 수 없다. 더구나 완결성은 어느 가능세계에서나 P이거나 ~P라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지 P인 가능세계가 있거나 ~P인 가능세계가 있다는 원리가 아니다.

② 4문단에 따르면, 가능세계의 포괄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한 명의 학생이 연필을 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할 수 없다.

③ 배중률이 성립하려면 두 명제가 P와 ~P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은 연필을 쓰지 않는다.”라는 두 명제는 둘 다 참일 수 있기 때문에 모순 관계, 즉 P와 ~P의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완결성을 논할 수 없다.

⑤ 학생들 중 절반은 연필을 쓰고 절반은 연필을 쓰지 않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가능세계는 존재한다는 것은 일관성이 아니라 포괄성에 따라 나오는 것이다. 일관성은 어떤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이 성립하는 가능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성질이므로, 달리 말하면,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능한 일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어떤 가능세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5~8]

5.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은 자신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과 얽혀 있는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은 F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통해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고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으며, 반추위 미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생장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유발된다.

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는 젖산 생성 미생물로서 산성도에 따라 젖산의 배출 양에만 영향을 줄 뿐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는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가 되면 생장을 멈추게 되며, ⓑ는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생장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 ⓑ 모두 생장하지 못할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포도당을 분해하며, ⓐ는 포도당을 생존 유지와 생장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배출하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또 ⓑ 역시 산성도가 중성일 때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아세트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할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 이하로 떨어지므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한 ⓒ는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의 섭취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 ⓑ의 생장이 촉진되어 젖산 배출이 증가하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여 생장이 감소하고, ⓒ는 왕성하게 생장할 것이다.

7.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다. 또 비섬유소도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에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③, ④, ⑤). 하지만 섬유소가 F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이 되고, 비섬유소가 S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에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F는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데 이때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S는 산성도에 따라 아세트산과 에탄올,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며, 이 중 아세트산과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F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8.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다. 산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대사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숙신산의 배출은 반추위의 산성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비섬유소인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

성도가 높을 때 대사산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중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프로피온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의 양도 증가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이 분해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생장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가 pH 6.0 이하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가 산성의 환경에서 생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9~12]

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에는 주인공이자 중심 인물인 '나'의 '겨드랑에 생긴 이변'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내적 반응이 '나'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이야기의 인과 관계를 재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윗글에는 '겨드랑에 생긴 이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이 나타나 있으므로, 유사한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서술의 초점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윗글에는 1인칭 주인공 서술자인 '나'에 의한 서술만 나타나 있으므로,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윗글에 '방', '뜰', '거리' 등 공간 이동에 따른 '나'의 경험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0.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④ '나'는 자신이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관청에서 정한 통행제 규칙을 지키면 겨드랑이가 '요절이 나고' 결국 '죽을는지도 모른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한다. '나'가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고민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는 의사 앞에 있는 시간에 자신의 '겨드랑은 멀쩡했기 때문'에 의사가 자신의 증상을 '전혀 이상이 없다고' 진단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자신이 '방에 있으면' 겨드랑이가 쑤신 증상 때문에 제집에서 '도적놈'과 비슷한 방식으로 '뜰의 어느 구석에 숨'는 행동을 하곤 했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뜰에 나와 있어도 가끔 뜨끔거리고 손을 대 보면 미열이 있'었다고 하면서, '방'에서보다는 덜하지만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하고 있다.
⑤ '나'는 '경관'을 만났을 때 몸을 숨기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혁명가', '간첩', '도적놈' 등과 자신을 비교해 보고 있다.

11.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은 타인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은 '경관'의 출현으로 인해 몸을 감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은 정신적 안정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신체적 회복을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통행 제한'이라는 제도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므로, 윤리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고, ㉡은 겨드랑이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몸을 숨긴 공간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몸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④ ㉠, ㉡ 모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 ㉡ 모두 과거의 자신을 긍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면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을 의미한다. 한편 '나'에게 있어서 산책의 '공리적인' 목적은 겨드랑이의 통증을 없애는 것이었는데, <보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행했던 산책이 점차 '누룩 반죽'처럼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산책의 의미가 치료를 위한 행위에서 자유를 위한 실천으로 확장되었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질'되었다는 표현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자유를 위한 실천의 목적이 훼손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작품에서 '통행 제한'으로 인해 산책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을 보여 줌으로써,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가 억압되는 시대적 상황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파마늘이 주는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파마늘' 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나'가 통증을 겪은 결과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아난 점을 고려하면, '파마늘'이 돋을 때의 극심한 통증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고통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윗글에서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고 미약했던 자유를 향한 의지가 산책을 거듭하면서 심화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체불명의 파마늘은 처음에는 명료하지 않았던 자유를 향한 의지를, '날개' 의 형상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된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를참고하면 윗글에는 자유를 향한 의지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윗글에서 '날개'가 '귓바퀴' 같다고 한 것은, 여러 차례의 산책 끝에 '날개'가 돋았지만 그 '날개'를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날개'가 '귓바퀴' 같다는 점에 대해 '나' 가 느낀 부끄러움은, 여러 차례의 산책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의지대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한계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13~16]

1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이대봉은 ㉣에서 '팔 년을 의탁하'다가 '아비 유골이나마 찾고 고국에 있는 어미를 찾아보고자' 중원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은 이대봉이 중원으로 향하기 전에 머물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대봉은 ㉠이 아닌 '농서'에서 이릉의 영혼을 만나 갑옷과 투구를 얻었으며, '화용도'에서 관 공의 영혼을 만나 칼을 얻었다.

② ㉡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함몰'한 곳이므로 흉노가 침범한 곳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대봉은 '금릉'에 이르러 '적군을 파하고', '서릉도'에 들어가 흉노를 베었으므로 ㉡이 흉노를 처단한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은 장 한림 부부가 아니라, 이 시랑과 그의 아들 대봉이 '간신의 모해를 입어' '유배 가'게 된 공간이다. ⑤ ㉤은 이대봉이 '동돌수를 베어 성상의 급하심을 구'한 공간이므로 동돌수가 이대봉을 피해 달아난 공간으로 볼 수 없다.

1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장 소저는 제문에서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어 외딴섬에 유배 가시고, 부친은 대인의 억울함과 소첩의 앞길이 그릇됨을 원통히 여겨 걱정과 분노가 병이 되어 중도에 세상을 버리시니'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부친이 '세상을 버린' 까닭이 이 시랑이 억울하게 유배 가게 된 것과 딸의 혼약이 어그러진 것으로 인한 걱정과 분노로 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 소저가 이 시랑의 죽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을 버린 것으로 여긴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장 소저는 제문에서 '부친이 신기한 꿈을 꾸고는 대인과 진진지연을 깊이 맺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부친과 이 시랑이 '진진지연'을 맺은 데에는 신기한 꿈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장 소저는 제문에서 '시운이 불리하여 대인은 간신의 모해를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은 것은 시운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장 소저는 제문에서 '간적 왕희가 첩의 고독함을 업신여겨 혼인을 강제하옵기로 변복 도주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부터 장 소저는 왕희가 '혼인을 강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변복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장 소저는 상표에서 '삭발 승려를 만나오니 이 곧 시랑 이익의 처 양씨라. 비록 성혼 행례는 아니 하였사오나 어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니리잇가.'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장 소저가 '성혼 행례'는 하지 않았으나, 승려가 된 양씨를 시어머니로 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해설 :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소첩'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에는 글을 바치는 사람이 자신을 '신'으로 지칭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와 ⓑ 모두 글을 바치는 사람이 스스로를 낮추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제문으로 장 소저가 '향을 사르며 시랑의 영위' 앞에서 망자인 이 시랑에게 바치는 글이고, ⓑ는 표문으로 이대봉이 '황상 용탑 하에', 즉 성상에게 바치는 글이다.

② ⓐ는 장 소저가 상대방인 이 시랑이 '간신의 모해를 입'고 억울하게 '수중고혼'이 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원통함을 '한 잔 술을 바치'면서 위로하기 위한 글이고, ⓑ는 이대봉이 상대방인 황상에게 자신과 부친이 '왕희의 모함을 입'어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일과, '왕희는 국가의 난신적자'로서 무고한 사람에 대해 살해를 사주하였다는 사건의 경과를 알려 왕희에 대해 '엄형 국문하'는 특별한 조치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다.

④ ⓐ에서 장 소저는 대인 부자가 억울하게 사망하였다고 생각하고 제문을 바친 것이다. 하지만 ⓑ를 통해 이대봉 부자가 생존하여 있다는 사건의 실상이 드러남으로써, 장 소저의 생각이 오해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⑤ ⓐ의 서두에서 글을 바치는 사람은 '기주 장 한림의 딸 애황'이고, 상대는 '이부 시랑 이 공'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의 서두에서도 글을 바치는 사람은 '죄신 이대봉'이고, 상대는 '황상'임을 밝히고 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를 참고하여 판단할 때, '해중에서 풍랑을 만나'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우신조로 무인절도에서 부친인 이 시랑과 재회한 사건은 가문의 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이대봉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공적 활약을 펼치는 데에 비현실계의 존재가 조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애황이 혼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추구와 관련되고,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여 대공을 세우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한다. 그런데 장애황은 혼약을 이루고자 대공을 세우게 되었으므로, 이는 사적 목표의 추구가 국가 차원의 사건에 참여하는 동력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② 난신 왕희를 국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공적 가치의 실현에 해당하고, 장애황이 왕희를 자신에게 내어달라고 한 것은 개인의 원통함을 풀기 위함이므로 사적 목표의 실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애황이 난신 왕희를 먼저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내어 달라고 한 것에는 공적 권위를 우선으로 존중하되 사적 목표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이대봉은 '흉노가 천자의 자리를 범하여 황성을 함몰하고 어가가 금릉으로 행하셨다 함을 듣고, 분심을 이기지 못하'여 출전하였다. 이대봉은 성상이 피신했다는 소식에 분노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나라와 성상을 구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출전한 것이다. 이러한 인물의 모습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하는 공을 세운 것은 공적 가치인 충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되고, 왕희를 처벌하는 것은 사적 목표의 실현과 관련된다. 따라서 이대봉이 흉노를 제압한 공을 드러내면서 황제에게 왕희의 처벌을 요구한 것에는 충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적 목표인 왕희를 처벌하는 일에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 수능 예시문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줘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A〕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인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저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럭저럭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1. 독서의 목적을 고려하여 윗글을 추천하고자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분에게 추천합니다.

①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읽으려는
②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을 읽으려는
③ 학문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을 읽으려는
④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을 읽으려는
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을 읽으려는

2.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3.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정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 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군.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5.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6.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② ⓑ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③ ⓒ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④ ⓓ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⑤ ⓔ : 독립적인 존재인

[7~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학년도 6모)

DNS(도메인 네임 시스템) 스푸핑은 인터넷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사용자를 위조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으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구현된다.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126.63.1'처럼 점으로 구분된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공인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한다.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 IP 주소와 번호가 변경되기도 하는 유동 IP 주소가 있다.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가 그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편,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서로를 식별할 수 있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 대신 사용하기 쉽게 'www.***.***' 등과 같이 문자로 ㉢이루어진 도메인 네임을 이용한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서버라고 한다.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고정 IP 주소를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사용자가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직접 기록해 놓아야 한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서버에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 패킷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 있다.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서버는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알아낸 IP 주소로 사이트를 찾아간다.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는 UDP라는 프로토콜에 ㉤맞추어 패킷을 주고받는다.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 특정 질의 패킷에 대해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 DNS 스푸핑은 UDP의 이런 허점들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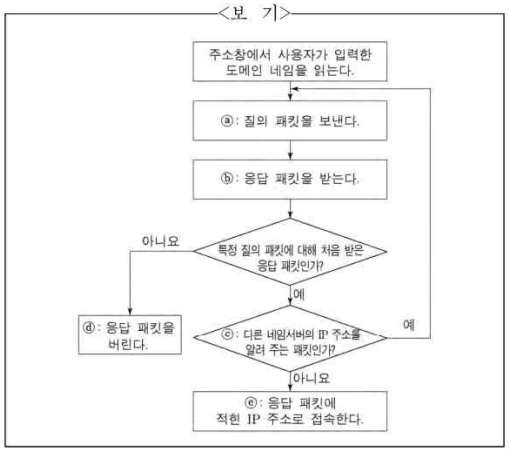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질의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여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7.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컴퓨터 사이의 통신을 위한 규약으로서 저마다 정해진 기능이 있다.
② IP에 따르면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4개의 필드에 적힌 숫자로 구성된다.
③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IP 주소를 요청해야 IP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④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
⑤ UDP는 패킷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킷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8. <보기>는 ㉮ 또는 ㉯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① ㉮ :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이 동일하고 패킷을 받는 수신 측도 동일하다.
② ㉮ :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고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동일하다.
③ ㉮ : ⓒ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④ ㉯ : ⓓ의 응답 패킷에는 공격자가 보내 온 IP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
⑤ ㉯ :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이다.

9.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①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② 동일한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들의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③ 유동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할 수 있다.
④ 고정 IP 주소 방식의 컴퓨터들에는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IP 주소가 서로 다른 컴퓨터들은 각각에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한다.

10.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hosts'라는 파일에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네임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질의 패킷을 보내기 전에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그 주소로 바로 접속하고, IP 주소를 찾지 못했을 때 클라이언트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낸다.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되겠군.
② 클라이언트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③ 클라이언트에 hosts 파일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만 입력하면 되겠군.
④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⑤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되겠군.

11.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 제조(製造)되는
② ㉡ : 표시(標示)한다
③ ㉢ : 발생(發生)된
④ ㉣ : 인정(認定)한
⑤ ㉤ : 비교(比較)해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6학년도 수능)

[중모리] 그때에 사슴이 발론하되 근래 인간이 하 무서워 짐승을 잡아먹기 온갖 꾀가 다 생기고 산중에 수목이 없어 은신할 곳 없어지니 각기 의견 들어 보면 방책이 있을런가 이 모임을 했사오니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주옵소서

[아니리] 호랑이가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룸을 피우며 오늘은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 토끼가 여짜오되

[자진모리] 사냥개라 허는 것은 같은 우리 모족(毛族)으로 사람 집에 기식허니 제 무슨 아첨으로 내 잘 맡는 자랑허여 심산궁곡 층암절벽 찾고 찾어 들어와 동제 간 살해만 허니 수령님 이후로는 사냥개를 있는 대로 다 잡어 잡수오면 그 덕이 모든 금수에게 미치오리다

[아니리] 호랑이 듣더니만 다 잡어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련마는 일등 **포수**가 따러다녀 어설피 물라다가 조총에 불이 번듯 탄환이 쑥 나오면 거 내 신세는 어쩔 것이냐 그때에 별주부 저기 토 선생 계시오 부른다는 것이 수로 팔천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오자니 아래턱이 빳빳허여 토 자가 살짝 늘어져 호 자로 되였것다 저기 호 생원 계시오 불러 놓으니 첩첩산중 호랑이가 생원 말 듣기는 제 평생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듸

[엇모리]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송림 깊은 골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머리를 흔들며 양 귀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득 한 발이 남고 동아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낫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 격으로 잔디 뿌리 왕모래를 좌르르르 흩으며 주홍 같은 입 벌리고 홍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눕고 땅이 뚝 꺼지난 듯 자라가 ⓑ깜짝 놀래여 목을 움치고 가만히 엎졌을 제

[아니리] 호랑이가 척 내려와 이것 무엇인고 이리 보아도 둥굴 둥굴 저리 보아도 둥굴 둥굴아 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옳다 이것 한 입가심 허여 볼까 자라가 ⓒ깜짝 놀래여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 호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보아라 도리줌치 속에 배암 잡어넣어 놓은 것같이 생긴 것이 인사성은 밝네 나는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이로다.

자라가 호랑이란 말을 듣고서 겁짐에 바로 일러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

[중모리] 호랑이 ⓓ반기 듣고 얼시구나 좋을시고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맛진 진미를 먹어 보자 으르르앙 허고 달려드니 자라 듣고 깜짝 놀래여 아이고 내 자라 아니요 이놈 그러면 무엇인고 내가 두꺼비요 두꺼비 같으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채로 불에 살라 술에 타 먹었으면 만병회춘 명약이라니 너를 먹으리라 아이고 내 남생이요 남생이 같으면 더욱 좋다 습기에는 제일이라 허니 너를 산 채로 먹으리라

[아니리] 별주부 듣고 기가 막혀 이 급살 맞어 죽을 놈이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허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드니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구나 허고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 호

랑이 ⓔ깜짝 놀래 에끼 이것 목 나온다 고만 나오시오 하루 수천 발 나오겠소 대체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 나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나리로다 이놈 내 목 이 모양 된 내력을 들어 보아라

[자진모리] 우리 ㉡수궁 퇴락허여 영덕전 새로 질 제 일천팔백 칸 기와를 내 손으로 올리다가 추녀 끝에 뚝 떨어져 목으로 잘각 꺼꾸러져 이 모양이 되얏기로 명의다려 문의한즉 호랑이 쓸개를 열 보만 먹으면 목이 즉효헌다기로 우리 수궁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더니 쓸개 한 보 못 주겠느냐 도리랑귀신 게 있느냐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앞으로 기어들며 도리랑 도리랑 허고 달려들어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돌아 놓으니

[아니리] 호랑이 ⓕ질색허여 아이고 별나리 이것 좀 놓아주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놓아라 호랑이 그 육중헌 놈이 자라에게 매달려 애걸을 허는듸

[중모리] 별나리 전에 비나이다 나는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오 차라리 내 왼눈이나 하나 빼 잡수시오 이놈 잔말 말고 쓸개만 내놔라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리다.

[아니리] 별주부 가만히 생각한즉 쓸개 주겠다고 놓아 달라는 것이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 꽉 물었던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으니

[휘모리] 호랑이 몽그랏다 후다닥 뛰어갈 제 급한 난리 화살 닫듯 조총에서 철환 닫듯 오림에서 조조 닫듯 산을 넘고 바다 건너 홀연히 간 곳 없네

[아니리]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뛴 놈이 의주 **압록강 가**에서 숨을 내쉬고 한편을 살펴보는데 남생이 한 마리가 뾰쪼롬허고 내다보니 별주부로 알았것다 에끼 저놈 그 새 저기 쫓아왔구나 게서 또 후다닥 빼 놓은 것이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다 덜럼 올라앉어 장담을 허것다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였다.
②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③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④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며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
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

1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진다.
②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으로, 자라는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하였다.
③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호랑이는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
④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며,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다.
⑤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며, ㉢은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와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갖춘 상대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②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③ ⓒ와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다.
④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다.
⑤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다.

15.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수궁가 는 우화에서 판소리 사설로 발전한 작품입니다. 동물들이 인물로 등장하는 우화 속 세상에 청중의 현실 속 다양한 요소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의 변모가 이루어졌어요. 이로써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거나,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거나,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였어요.

①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②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③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④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⑤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뛴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군.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3학년도 6모)

[앞부분의 줄거리] 해방 직후, 미군 소위의 통역을 맡아 부정 축재를 일삼던 방삼복은 고향에서 온 백 주사를 집으로 초대한다.

"서 주사가 이거 두구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 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만 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둔 만 원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홱 내던진다.
"내가 알우?"
"우랄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십만 원에 불하 맡아다, 백만 원 하난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둔 만 원야? 엠병헐 자식, ㉠내가 엠피*헌테 말 한마디문,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구서."
"정종으루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눔이 살아나구, 살 눔이 죽구 허는 줄은 모르구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 봐라……. 증종 따근허게 데와. 날두 산산허구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 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 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 쥐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칠 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이백 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패물과를 장만하였다.

〔A〕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옥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일 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 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B〕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이 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여섯 필
고무신 스물세 켤레
지카다비 여덟 켤레
빨랫비누 세 궤짝
양말 오십 타
정종 열세 병
설탕 한 부대

〔C〕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 원어치 여편네의 패물과, 만 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 원짜리 저금통장은 고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 쓰게 산산 다 부수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 왔다.

〔C〕 일변 고을에서는, 백 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작인들한테 팔할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 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 주사네 집을 습격 하였다.

〔C〕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 주사는 비싼 여관 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는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 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 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장수를 한다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저, 저, 방, 방……."

"네, 삼복입니다."

"아, 건데, 자네가……."

"허,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루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리어 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침모에 계집 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 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위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조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아니치 못하였다. 그런 데다 이 녀석이, 언제 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엔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싶었다.

- 채만식, 「미스터 방」 -

* 엠피(MP) : 미국 헌병.

16. 윗글의 대화를 중심으로 '방삼복'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이 꾸미고 있는 일에 관심 없는 상대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
② 질문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도록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
③ 눈앞에 없는 사람을 비난하고 위협함으로써 함께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차에서 내려 상대에게 먼저 알은체하며 동승자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
⑤ 상대가 이름을 제대로 말하기 전에 말을 가로채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

17.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에는 모두 외세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인물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
② ㉠과 ㉡에는 모두 외세와 이를 돕는 인물 간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난다.
③ ㉠과 ㉡에는 모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물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④ ㉠에는 권력을 향한 인물의 조바심이, ㉡에는 권력에 의한 인물의 좌절감이 드러난다.
⑤ ㉠에는 자신의 권위에 대한 인물의 확신이, ㉡에는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인물의 자신감이 드러난다

1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스스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강조하여 인물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
② ⓑ : 방삼복의 제안에 엉겁결에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 인물이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준다.
③ ⓒ :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는 방삼복의 모습에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 : 자신의 처지를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었음을 보여준다.
⑤ ⓔ : 방삼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에 대한 반감이 뒤섞여 있음을 보여 준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는 백 주사가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서술자는 그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또한 세부 항목을 하나씩 나열하여 장면의 분위기를 고조하고 정서를 확장하는 서술 방법으로 독자에게 현장감을 전해 준다. 이때 독자는 백 주사와 그의 가족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된다.

① [A] :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을 '남들'의 굶주린 생활과 비교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가 그를 비판적으로 보게 하고 있군.

② [B] : 부정하게 모은 많은 물건들을 하나씩 나열하여 습격 당시 현장의 들뜬 분위기를 환기함으로써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독자에게 전하려 하고 있군.

③ [C] : '있었더란다'를 통해 누군가에게 들은 것처럼 전하면서도, 전하는 내용을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독자가 '군중'의 입장에 서도록 유도하고 있군.

④ [D] :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서술함으로써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독자가 느끼게 하고 있군.

⑤ [E] : 백 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 주는 사건들을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하여 그들에게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편에 선 독자가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①	①	④	③
③	④	③	②	⑤
②	②	④	③	②
③	①	③	⑤	

[1~6]

1. 정답 ⑤

[정답인 이유] 이 지문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두 견해인 이원론과 동일론의 대립적인 주장을 다루고 있다. 선택지 후반부의 '인간과 사물의 본질을 논쟁적으로 다룬 글'에 이 지문이 해당하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추가된 것은 지문의 중심 내용과의 연계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적절하다.

[오답인 이유]
① 감동적인 경험을 소개한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타인의 일상을 담은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기술에 적용된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사회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글이 아니다.

2. 정답 ①

[정답인 이유] 4문단에서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에서 발생한 일은 다산이 목민심서를 쓴 일이다.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생각할 때, 당연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러한 의심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인 이유]
② 이원론은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ex - 컴퓨터)는 비물리적인 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독립적'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독립적이지만 그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③ 원자나 엑스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은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지 여부'가 '물리적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짓는가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라이프니츠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다. 동일한 대상이라면 똑같은 특성을 가질 것이고, 조금이라도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면 두 대상은 동일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와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원론자이다. 2문단 마지막에 제시된 정신이 가진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으로 바로 이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언어를 사용하고 수학적 추론을 수행하는 기계가 나타났지만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3. 정답 ①

[정답인 이유] 동일론은 정신에 대해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술이 발달하면'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의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기술의 발달이 무한히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인간의 육체와 같은 물리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동일론자들은 육체 중에서도 두뇌의 물리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또한 1문단의 마지막에서 동일론이 이원론을 조목조목 반박해나가는 것이 이 글의 전체 내용임을 생각해보면, 3문단에서 '컴퓨터 언어'가 인간이 쓰는 언어와 종류의 차이가 아닌 정도의 차이만을 보인다는 내용은 동일론자들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론자들은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는 것을 부정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갖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답하게 될 것이다.

[오답인 이유]
②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인간과 종류가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인간과는 다른 정신을 컴퓨터가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④ 동일론자들은 컴퓨터가 정신을 가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인간이 정신을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동일론자들은 컴퓨터가 정신을 가질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④

[정답인 이유] 해당 선택지에서 언급한 <보기>에서의 (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기 +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이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해 밝혀지는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문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의 예외를 확인해야 한다.)

[오답인 이유]
① 단순성의 원리는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내용을 갖는다. 여기에서 더 복잡한 것을 '악령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으로 본다면, 적절한 내용이다.
② 1문단 마지막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무언가가 독

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즉, 악령이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의미하기에 적절한 선택지이다.

③ 이 선택지의 근거는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원론자는 정신도 그렇다고 말하며 정신이 독립되어 존재한다는 판단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에서 확인할 것은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인데 원자나 엑스선이 존재한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것, 이원론자들이 정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면,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태양이 존재한다 + 존재하지 않는다’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모순이다. ‘하늘에 태양이 존재한다’를 ‘존재하지 않는다’로써 아예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이 불가능하다.

‘왼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 모순적이지 않다. 앞말을 부정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이 가능하다.

모순된 것이 아닐 때, 생각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나)의 각 항목은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5. 정답 ③

[정답인 이유] 결국 이원론은 ‘아무리 그래도 인간과 기계는 달라.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이 있어.’와 같은 주장을 해야 한다. 다른 선택지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3번 선택지만 다른 내용을 말한다. 동일론에서는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심지어 앞선 문제에서 여러 근거를 통해 확인했듯이 동일론에서는 기계가 인간과 동일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말한다. 잘못 비판한 내용에 해당한다.

[오답인 이유]

①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②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④ 인간만의 독립적인 정신과 그를 통한 인간만의 수학적 추론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적절하다.

6. 정답 ③

[정답인 이유] 존재한다고 해서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원론자에 해당하는 데카르트는 물질만이 화학적 조성을 띠고 정신은 화학적 조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을 것이다. 적절하지 않다.

[7~11]

7.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의하면 DHCP는 유동 IP 주소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4문단들을 보면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하는 경우는 고정 IP 주소를 사용할 때이다. 따라서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므로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한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의하면 프로토콜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 규약이다. 이 글에는 인터넷 프로토콜(IP, 2문단), DHCP 프로토콜(3문단), UDP 프로토콜(5문단)이라는 세 종류의 프로토콜이 제시되어 있으며, 각 문단에서 이들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문단에 ‘현재 주로 사용하는 IP 주소는 ~ 4개의 필드에 숫자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라고 제시되어 있다.

⑤ 5문단에 ‘UDP는 패킷의 빠른 전송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에게 패킷을 보내기만 할 뿐 도착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며’라고 제시되어 있다.

8.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는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다. ㉯는 클라이언트가 ⓐ에서 네임서버에 보낸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네임서버의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때 네임서버는 자신의 목록에 해당 IP 주소가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므로, 네임서버는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늘 찾는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5문단을 보면, 네임 서버는 질의 내용에 포함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자신의 목록에서 찾다가, 자신의 목록에 없으면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알려 주는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는 단계로 돌아간다. 따라서 ㉮에서 ⓐ가 두 번 동작했다면, 두 질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패킷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네임서버이므로 수신 측은 다를 수밖에 없다.

② ㉮에서 ⓑ가 두 번 동작했다면, 질의 패킷을 받은 첫 번째 네임서버의 목록에 질의를 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네임서버의 IP 주소를 알려 주는 응답 패킷을 받아 ⓐ로 보냈기 때문에 다시 ⓑ가 동작한 것이다. 즉 첫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다른(두 번째)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내용에는 요청받은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응답 패킷을 보낸 송신 측은 첫 번째 네임서버와 두 번째 네임서버로 서로 다르므로 송신측이 동일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는 응답 패킷이 버려지는 상황이다. 6문단에 의하면 ㉯의 상황에서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한다. 그런데 5문단에 의하면 UDP는 처음 도착한 응답 패킷을 신뢰하고 다음에 도착한 패킷은 확인하지 않고 버린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 상황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은 공격자가 보낸 것이 아니라 네임서버가 보낸 것이다. 따라서 ⓓ에는 질의 패킷에서 요청한 옳은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⑤ ㉮ 상황에서 ⓔ는 공격자가 보낸 IP 주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의 IP 주소는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아니다. ⓐ에서 질의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는 ⓓ에서 버려진 응답 패킷에 포함되어 있다.

9.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에 보면 사설 IP 주소는 내부 네트워크에서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은 분별하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사설 IP 주소가 서로를 식별하는 역할을 하려면 사설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한다. 같은 것은 구별되지 않아서 식별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DNS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제시되어 있는데, DNS는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쓰는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4문단에 의하면 이때의 IP 주소는 '공인 IP 주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하였고, DNS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DNS가 필요 없는데, 3문단에서 사설 IP 주소는 인터넷에 직접 접속은 안 되고 내부 네트워크에서만 사용된다고 했으므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DNS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DNS는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것이다.

③ 3문단에 의하면 유동 IP 주소는 DHCP가 각 컴퓨터에 부여하는데, DHCP는 IP 주소가 필요한 컴퓨터의 요청을 받아 주소를 할당해 주고, 컴퓨터가 IP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주소를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 부여했던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받아 다른 컴퓨터에 할당한다는 것은, '동시에' 동일한 공인 IP 주소를 할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2문단에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는 '중복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

④ 각 컴퓨터들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하며 IP 주소가 중복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정 IP 주소 방식은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선지의 내용대로 동일한 IP 주소를 부여하면 중복 지정을 하는 것이 되므로 글의 내용에 어긋난다.

⑤ 인터넷 통신사는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임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컴퓨터들에도 동일한 네임서버의 IP 주소가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10.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지문에 따르면 DNS 스푸핑은 DNS를 이용하여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하지 않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hosts' 파일에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가 적혀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hosts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네임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의 hosts 파일에 적어 놓으면 DNS 스푸핑을 피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가 hosts 파일을 찾아 삭제하면 <보기>에 제시된, 클라이언트가 hosts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즉 클라이언트는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지 못한 경우이므로 네임서버에 질의 패킷을 보내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② 클라이언트는 웹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일컫는 용어이다.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클라이언트의 IP 주소가 아니다.

③ <보기>에 따르면 hosts 파일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주소창에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면 네임서버가 운영하는 DNS를 이용해 해당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게 된다. 이렇게 네임서버를 사용하게 될 경우 DNS 스푸핑이 이루어질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해서 hosts 파일에 적어 놓아야 하는 것은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이지 네임서버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가 아니다.

11.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이 포함된 문장은 구체적인 사물이 아닌 IP 주소를 숫자로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냄으로써 다른 것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의 서술어인 ㉡은 외부로 드러낸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이는 '표를 하여 외부로 드러내 보이다'의 뜻을 가진 '표시(標示)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포함된 문장은 컴퓨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고유 IP 주소는 IP에 따라 만들어지는 (㉠) 것이다. 이때 ㉠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물이 생겨나다'의 뜻을 지닌 '생성되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적절하다. '제조(製造)되다'는 '공장에서 큰 규모로 물건이 만들어지다.' 혹은 '원료에 인공이 가하여져 정교한 제품이 만들어지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이 포함된 문장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IP 주소 대신 이용하는 도메인 네임을 설명한 것으로, 도메인 네임이 어떤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는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은 문맥상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

의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해당하는 단어는 '구성(構成)되다'이다. '발생되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포함된 문장은 클라이언트가 네임서버를 통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웹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이때 ㉣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인정(認定)하다'는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다.'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⑤ ㉤이 포함된 문장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UDP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 패킷을 주고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때 ㉤은 네임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주고받을 때 UDP 프로토콜의 '방식에 따라' 혹은 '그 방식을 이용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비교(比較)하다'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다.'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12~15]

12.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별주부가 '토 선생 계시오'라고 부른다는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자라를 보고 '입가심 허여 볼까' 한다. 그러자 자라는 깜짝 놀라 '여보 당신이 뉘라 허시오'라고 묻고 호랑이는 자신을 '이 산중 지키는 호 생원 어른' 이라고 답한다. 이에 자라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라고 하고 있으므로 자라가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슴은 발론하면서 호랑이에게 '수령님의 좋은 꾀를 일러' 달라고 요청한다. 그러자 호랑이는 '수령 말을 듣더니마는 거두룸을 피우며' '노소고하를 막론하고 자세히 말해 보라'하고 있으므로 사슴이 호랑이에게 대책을 구하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들에게 발언하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별주부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앞에서 '기왕 죽을 바에는 속임수나 한번 써 보고 죽을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는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한다. 이에 깜짝 놀란 호랑이가 '당신 명색이 무엇이오'라고 묻자 별주부는 자신의 '목'에대한 내력을 늘어놓는다. 그리고는 '도리랑귀신'에게 '이 호랑이 배 갈라라'라고 외치는 방식으로 호랑이를 속이며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만다. 따라서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리랑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고 할 수 있다.

④ 별주부가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 돌아 놓'자 호랑이는자라에게 사정사정하게 되고, 이에 자라가 '쓸개만 내놔라'라고 하자 '여기만 놓아주면 당장에 쓸개를 드리'겠다고 한다. 그러자 별주부는 호랑이가 '얼주검이 된 모양이라'고 판단하여 호랑이 '아랫도리를 슬그머니 늦춰 놓'는다. 따라서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며 놓아 달라는 것을 듣고 자라는 호랑이가 얼주검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는 '전라도 해남에서 냅다 뛰'어 '의주 압록강 가에서' 한숨을 돌리는데, 남생이를 발견하고는 별주부로 착각하고 '또 후다닥 빼 놓'아 '함경도 세수람 고개'에 다다른다. 따라서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했던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하였다고 할 수 있다.

13.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자라는 '토 선생 계시오'라고 할 것을 '호 생원 계시오'라고 하여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은 자라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위험에 빠지게 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자신의 목이 '이 모양 된 내력'을 늘어놓기 위해 ㉡에서의 일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자라가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짐승을 잡아먹'는 무서운 인간에 대한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슴의 발론을 들은 호랑이가 '모족'들의 의견을 두루 청하고 토끼가 대책을 여쭙고 있다. 이때 별주부가 '호 생원 계시오'라고 호랑이를 잘못 부르자 호랑이가 내려와 별주부를 보고는 잡아먹으려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간신히 도망하고 있다. 따라서 ㉠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족의 노력이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와 호랑이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에서 호랑이를 만난 자라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자 호랑이에게 속임수를 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내 목'이 '이 모양'이 되었다며 '내력'을 언급하면서 목을 고치기 위해 '도리랑 귀신 잡어 타고 호랑이 사냥을 나왔'다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자라가 자신의 내력을 소개하며 언급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가 호랑이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이를 대비한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자라를 피해 도망한 호랑이는 '압록강 가'에서 남생이를 별주부로 착각하고는 ㉢까지 도망친다. 그리고는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따라서 ㉢은 호랑이가 안도감을 나타내는 공간이 라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살아남은 것을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뜻밖의 행운이라고 여겼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에서 호랑이는 사슴과 토끼에게 '수령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으므로 ㉠은 호랑이의 지위가 다른 존재의 발언을 통해 확인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서는 호랑이가 '내 용맹이나 된 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잡놈 같았으면 하마 그놈 뱃속에 굳었으렷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호랑이가 다른 존재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엄을 부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1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는 '한 입가심 허여 볼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와 ⓕ는 각기 다른 주체가 상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생긴 위기 상황에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자라의 '호 생원 계시오'라는 말을 들은 호

랑이의 반응으로 호랑이가 예의를 갖춘 자라의 태도에 대한 보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는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눕고 땅이 뚝 꺼지난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한 자라의 반응으로 자라가 예의를 갖춘 호랑이의 태도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없다.

② ⓑ는 '주홍같은 입 벌리고 홍행행 허는 소리 산천이 진동하고 강산이 뒤눕고 땅이 뚝 꺼지난 듯'이 나타난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며, ⓒ는 '한 입가심 허여 볼까' 하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대해 자라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와 ⓒ는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는 '나는 명색이 자라 새끼요'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자라의 말을 들은 호랑이가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일러니 오늘날 만났구나' 하며 반기는 반응이며, ⓔ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따라서 ⓓ는 호랑이가 자신의 숙원이 성취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보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지만, ⓔ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

⑤ ⓔ는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호랑이에 맞서 속임수를 쓰려고 작정한 자라가 '목을 길게 내놓으며 네 이놈 호랑아 내 목 나간다'고 하자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며, ⓕ는 자신의 '아랫도리를 꽉 물고 뺑 돌아 놓'는 자라에 대해 호랑이가 보인 반응이다. ⓔ와 ⓕ는 상대의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에 대해 보이는 호랑이의 반응이므로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예상 밖 제안에 대해 보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15.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별주부는 호랑이가 '자라'든, '두꺼비'든 '남생이'든 '맛진 진미'를 맛볼 수 있으리라며 기뻐하는 호랑이의 모습에 '동의보감을 얼마나 통달허였는지 보는 대로 약 취해 먹기로만' 든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현실감을 부여하여 인물, 즉 자라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것을 현실의 의서를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위선적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토끼는 '같은 우리 모족으로 사람 집에 기식허'면서 '무슨 아첨으로 내 잘 맡는 자랑'을 하면서 '심산궁곡 층암절벽'까지 들어와 '동제 간 살해만 허'냐며 사냥개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부정적 면모를 지닌 다양한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어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에 해당하므로, '사냥개' 에 대한 토끼의 평가는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상황에 중첩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호랑이는 토끼의 청대로 사냥개를 '다 잡어 먹었으면 네 원통함도 풀고 나도 배부른 꼴을 보'았겠지만 포수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포수'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존재임을 보여 줌으로써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는, 호랑이보다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위계질서에 중첩함으로써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호랑이가 위신을 잃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호랑이 아랫도리를 꽉 물고' 있는 자라에게 호랑이는 자신이 '오대독신으로 오십이 다 되도록 슬하 일점혈육이 없'으며, 자신이 '죽게 되면 선영에 죄가 망극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호랑이가 처한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것은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호랑이는 자라를 피해 '전라도 해남'에서 '의주 압록강 가'까지 '냅다 뛰'어 도망하고 있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바와 같이 현실이라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것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청중의 흥미를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 가'까지 뛴 데서,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함으로써 실제라면 단숨에 닿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19]

16.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방삼복은 아내가 전해 준 각봉투를 뜯어 보고는 적은 돈을 두고 간 서 주사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미군 헌병에게 말하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그를 위협하는 말을 한다. 또한 자신의 말 한 마디에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백 주사에게 위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방삼복이 아내나 백 주사에게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방삼복은 술을 정종으로 가져오느냐는 아내의 질문을 듣고 서 주사를 비난하다가, 아내에게 정종을 데워 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 이외에 방삼복이 질문에 대꾸하지 않아 상대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방삼복은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차에서 내린 뒤, 어쩌다 눈이 마주친 백 주사에게 알은체를 하고는 바로 백 주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따라서 방삼복이 동승자 즉 '서양 사람'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방삼복은 출세를 하여 신수가 좋아진 모습으로 백 주사를 만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백 주사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이를 방삼복이 상대에 대한 열등감을 감추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7. 인물의 성격 이해

정답해설 : ㉠에는 해방 직후 미군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방삼복의 부정적 모습이, ㉡에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권력에 기대어 사익을 추구하는 백선봉의 부정적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과 ㉡에서 미군과 방삼복의 권력 관계나, 일

본과 백선봉의 권력 관계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과 ㉡에서 방삼복이나 백선봉이 몰락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에서 방삼복의 조바심이 드러나지는 않으며, ㉡에서 백선봉의 좌절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방삼복의 확신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에서 추락한 권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백선봉의 자신감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18.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해설 : ⓒ는 신수가 좋고 재력이 대단해 보이도록 변화한 방삼복을 보는 백 주사의 심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백 주사가 무엄스럽게 구는 방삼복의 태도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그가 고향 사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빼앗긴 재물을 찾으려 하지만 그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백 주사의 상태를 강조하여, 그의 답답한 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② ⓑ는 방삼복이 변모한 것을 보고 놀라던 백 주사가 방삼복이 잡아끄는 대로 방삼복의 집에 끌려 온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백 주사가 얼떨떨한 상태임을 보여 주고 있다.

④ ⓓ는 백 주사가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출세한 방삼복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에서 백 주사가 자리에서 일어설 생각이 든 것은 거만하게 행동하는 방삼복에게 반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백 주사가 일어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참은 것은 방삼복을 통해 재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서술자는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서술자의 시선뿐 아니라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와 작중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한다. [E]에서 '백 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는 백 주사의 시선으로 초점화된 부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백 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그의 광에는~ 날이 없었다'에는 백선봉의 풍요로운 생활이, '남들은 주린 창자를 졸라맬 때'에는 '남들'의 굶주린 생활이 나타나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일제의 권력에 빌붙어 풍요롭게 생활하던 백선봉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② [B]에서 나열된, 백선봉이 부정하게 모은 물건들은 군중이 백선봉의 집을 습격했을 때 나온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선봉이 가진 재산의 실상을 목격한 '군중'의 놀람과 분노를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 '있었더란다'는 누군가에게 들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만 원어치 ~고만두고 말이었다'에서 서술자는 군중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군중이 찾아낸 재물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군중'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④ [D]에서 '백 주사가,~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는 서술자가 동네 사람의 시선으로 초점화하여 백 주사의 만행을 드러낸 것이다. 독자는 이 부분을 통해 백 주사가 습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0분

국어 영역

홀수형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6학년도 수능)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앎'을 말한다.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고,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다.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인격이다.'와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A〕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비판한다.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본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하므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
②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다.
③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④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학적 사실이다.
⑤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다.

2.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의 함의는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를까?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어떤 점에서 반박되고 있을까?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는 무엇일까?
④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라는 전제와 다름없는 근거는 무엇일까?

3. 다음은 윗글을 읽고 학생이 작성한 학습 활동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아래의 핵심 개념에 대해 윗글에 제시된 학자들이 보일 수 있는 입장을 작성해 봅시다.

[핵심 개념 1] 자아에 대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

- 칸트: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본다. ····· ①
- 스트로슨: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②

[핵심 개념 2] 추상화 과정

- 스트로슨: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 롱게네스: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 ③

[핵심 개념 3] 통시적 인격과 도덕적 존재

- 칸트, 롱게네스: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 ····· ④
- 칸트, 스트로슨, 롱게네스: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한다. ····· 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갑 :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스캔하여 프로그램으로 재현한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 경우, 본래의 자신과 재현된 의식은 동일한 인격이 아니야. 두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은 신체 전체의 기여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지. 즉,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이 보장될 수 없고, 살아있는 신체도 인격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거든.

을 :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야. 비록 프로그램은 신체가 없지만 우리 두뇌와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사고 기능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거든. 인격의 동일성은 어떤 가정도 두지 않고 이러한 사고 기능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겠군.

② 스트로슨의 견해에 의하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③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겠군.

④ 칸트의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 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겠군.

[5～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2학년도 6모)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PCR는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 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로, 2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 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 가닥 DNA를 생성한다.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2개의 이중 가닥 DNA가 생긴다.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를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PCR는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2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二合體)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이 형광 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PCR 과정에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면, 형광 표식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 물질이 발색되며,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 표식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다.

〔A〕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 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PCR는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감별, 암 및 감염성 질병 진단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특히 실시간 PCR를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5.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②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의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④ 실시간 PCR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양을 증폭할 수 있다.
⑤ 실시간 PCR를 실시할 때에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 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② ㉠은 ㉡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③ ㉡은 ㉠과 달리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④ ㉡은 ㉠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과 ㉡은 모두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7.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 검사에 PCR를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싸겠군.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④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⑤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은 확인할 수 있겠군.

8. [A]를 바탕으로 <보기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2>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와,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를 실시한다.

<보기 2>

만약 ⓐ가 ⓑ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가 (㉮).
↓
실시간 PCR의 C_t값에서의 발색도는 ⓐ가 (㉯).
↓
따라서 실시간 PCR의 C_t값은 ⓐ가 (㉰).

	㉮	㉯	㉰
①	ⓑ보다 많겠군	ⓑ보다 높겠군	ⓑ보다 크겠군
②	ⓑ보다 많겠군	ⓑ와 같겠군	ⓑ보다 작겠군
③	ⓑ와 같겠군	ⓑ보다 높겠군	ⓑ보다 작겠군
④	ⓑ와 같겠군	ⓑ와 같겠군	ⓑ보다 작겠군
⑤	ⓑ와 같겠군	ⓑ보다 높겠군	ⓑ보다 크겠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4학년도 6모)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A〕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농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놓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급히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선다. 중문으로 들어 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러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같이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종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러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 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종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

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중략)

사실 이렇게 되어서까지도 죽기가 싫은가 하고 아버지를 눈 찌푸리고 바라보는 자기는 죽음의 공포를 해탈한 무슨 수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것뿐이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의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므로 이같이 죽음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그래서 정일이는 어떤 위대한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때가 있었다.

〔B〕 그때 심한 구토를 한 후부터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고 혓바닥을 축이는 것만으로도 심한 구역을 하게 된 만수 노인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요를 둑여서 병상을 돋우고 아버지가 바라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아 드렸다. 그러나 그 물그릇을 바라보기에 피곤한 병인은 어디나 눈 가는 곳에는 물이 보이기를 원하 였다. 그래서 큰 어항을 병실에 가득 늘어놓고 물을 채워 놓았다. 병인은 이 어항에서 저 어항으로 ㉡서늘한 감각을 시선으로 핥듯이 돌려 보다가 그도 만족하지 못하여 시원히 흐르는 물이 보고 싶다고 하였다. 정일이는 아버지가 보기 편한 곳에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는 작은 폭포같이 들이 쏟고 또 떠서는 들이 쏟기를 계속하였다. 만수 노인은 꺼멓게 탄 혀를 벌린 입 밖에 내놓고 황홀한 눈으로 드리우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을 볼 때 정일이는 걷잡을 사이도 없이 자기 눈에 눈물이 솟아오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정일이는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더욱이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 아버지에게서 저러한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을 보게 되는 것은 의외라고 할밖에 없었다.

- 최명익, 「무성격자」 -

9.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사건의 흐름을 반전시킨다.
②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장면의 현장성을 강화한다.
③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
④ 서술자가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다.
⑤ 서술자가 중심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의 양상을 제한적으로 나타낸다.

1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는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③ ⓒ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④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⑤ ⓔ는 아버지가 보여 주는 삶의 태도에 대한 정일의 평가를 드러낸다.

11. [A], [B]를 고려하여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용팔의 '웃음'에 대한 정일의 불쾌감으로 인해, ㉡은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발생한다.
② ㉠은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은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지속된다.
③ ㉠은 정일의 '신경 쇠약'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은 아버지가 '꺼멓게 탄 혀'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④ ㉠은 용팔에 대한 미움이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되는 정일의 마음을,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
⑤ ㉠은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성격자 의 정일은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을 경멸하고 현실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는 한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는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파악한 내용에 반응하며, 그런 자신을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관찰과 분석을 수행하는 자신의 내면마저 대상화함으로써 인간 심리의 중층적 구조를 드러낸다.

①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상대를 경멸하면서도 산판 알이 올라가는 것을 주목하는 데에서,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②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③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상대를 불러내지는 못하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를 생각하는 데에서, 행동을 주저하고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④ 상대의 고통을 바라보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데에서,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⑤ 물줄기를 바라보는 상대로부터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눈을 확인하는 데에서,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5학년도 수능)

[앞부분의 줄거리] 승상 정을선이 출정한 사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자진한다. 옥에서 얼굴이 상한 금섬의 시신이 발견되자 왕비는 월매를 문초한다. 전장에서 정을선은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는다.

원수가 대경하여 호첩을 불러 연고를 물으시고 인하여 중군장에게 분부하시되 '나는 집에 변이 있어 먼저 가니 중군장은 차후에 인솔하여 오라.' 하고 밤낮 삼 일 만에 득달하니 이때에 왕비의 시비 월매가 종시 토설치 아니하매 **매를** 많이 맞고 여쭈오되

"어서 바삐 죽이시면 금섬의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한데 왕비 크게 노하여 목을 베라 할 즈음에 이때 승상이 필마로 달려오다가 월매 죽이려 하는 거동을 보고 급히 소리를 지르며 말에서 내려 이를 구호하매 문왈

"충렬부인은 어디 계시냐?"

월매 인사를 모르다가 승상을 보고 방성통곡 왈

"승상은 바삐 충렬부인을 살리소서."

한데 승상이 급히 문왈

"어디 계시냐?"

한데 월매 울며 왈

"소인이 걷지 못하오니 어찌 가오리까?"

한데 급히 종을 불러 월매를 업히고 구덩이를 찾아가 보니 부인이 아기를 안고 있거늘 아기는 잠을 깊이 들었는지라. 승상이 **통곡** 왈

"부인은 눈을 떠 나를 보소서."

한데 부인이 눈을 떠 보니 승상이 왔거늘 정신 아득하여 인사를 모르다가 겨우 인사를 차려 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년지수의 해 같고 칠년대한의 빗발같이 바라더니 지금 구덩이에서 만날 줄 알았으리까. 승상은 나의 누명을 씻겨 주소서."

하며 인사를 모르는지라. 그 참혹한 형상을 어디에 비하리오.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나**게 되었는지라. 승상이 아기를 안아 월매를 주고 부인을 구한 후에 자리를 마련하여 옥석을 구별할새, 왕비전에 뵈온대 왕비 못내 반기시며 **사연**을 낱낱이 이르시되 승상 왈

㉠"이 일은 소자가 이미 아는 바이오니 염려 마옵소서."

하며 왈

㉡"처음에 그놈이 충렬부인 방에 간 줄 어찌 알으셨나이까?"

왕비 왈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

하신대 승상이 복록을 찾는데 벌써 제 **죄**를 알고 후원에 올라가 이미 죽었는지라. 하릴없어 옥졸을 잡아들여 엄히 문왈

"너희는 어찌 충렬부인 아닌 줄 알았느냐? 바로 아뢰라."

하신대 옥졸이 급히 여쭈오되

"얼굴이 상하여 아모란 줄 모르오나 손길이 곱지 못하오매 소인 등 소견에 충렬부인이 천하일색이라 하더니 손이 곱지 아니하더라 하올 제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이르고 부디 다른 데 가서 이 말 말라 당부하옵더니,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발설이 된가 하나이다."

한데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왈

"이 말을 듣고 네게 국문하니 바른대로 고하라."

하는 소리가 벼락이 꼭두에 임한 듯하고 궁궐이 뒤집히는 듯하더라. 이때에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는지라. 금연이 하릴없어 바로 아뢰나니라 하고 정렬부인 하던 말이며 제가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간 말이며 이불 속에 누웠다가 달아난 말이며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사오매 충렬부인이 약으로 구병하며 곁에 있으시매 침소로 가라 강권하여 침소로 마지못하여 가시매 복록이 왕비께 참소하던 연유를 낱낱이 아뢴대 왕비 곁에 있다가 **앙천통곡**하시며 왈

"내 밝지 못하여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나니 무슨 면목으로 충렬부인을 보리오."

하시며 자결코자 하거늘 승상이 붙들고 울며 왈

"모친이 너무 과도히 하시면 소자가 먼저 죽으려 하나이다."

왕비 금침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더라. 승상이 정렬부인을 결박하여 땅에 꿇리고 크게 노하여 왈

"너는 무엇이 부족하여 충렬부인을 해코자 하느냐. 어찌 일시를 살리리오. 내 임의로는 죽이고 싶으나 황상께 아뢰고 죽게 하리라."

하고 **상소**하니 그 글에 하였으되

"대사마 대도독 대원수 정을선은 돈수백배하고 아뢰나니 신이 서융을 쳐 사로잡고,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할 때,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군사를 중군장에게 맡기옵고 필마로 올라와 본즉, 정렬부인이 이러이러한 변을 일으켰사오니 세상에 이러하온 일이 있사오닛가."

하고 금연이 흉계를 꾸민 일과 월매가 당하던 고초를 낱낱이 아뢰었다.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13. ㉠, ㉡과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겠군.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14. 누명과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15.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활동>

정을선전 은 모략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인물 간 소통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윗글을 바탕으로 인물 간에 나타난 소통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인물 A	인물 B	소통의 내용
①	원수	중군장	A가 B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함.
②	승상	월매	A가 B에게 충렬부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물음.
③	옥졸	금연	B가 A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음.
④	옥졸	승상	A가 B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함.
⑤	금연	승상	B가 A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음.

1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을선전은 영웅소설과 가정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 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②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③ 왕비가 '앙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⑤	①	②	③	①
②	④	②	⑤	③
④	②	②	④	①
④				

[1~4]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6문단에 따르면 롱게네스는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기 위해서는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 필수적이라는 것은 6문단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칸트는 '자기의식'이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일 뿐 '영혼의 실재함'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영혼의 실재를 보장한다는 것은 2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 4문단에서 칸트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른다고 보고 이러한 구성에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칸트에 따르면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과 독립적이라는 것은 4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자기의식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 5문단에서 스트로슨은 인격은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이고,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스트로슨에 따르면 의식을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5문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 글의 의도, 목적 추론

정답해설 : [A]에서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와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함의하는 바를 실재성과 관련하여 구분하면서, 전자는 실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나 후자는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같이 [A]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부터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의 함의가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지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으므로, ①은 [A]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에 대한 반박의 양상을 찾을 수는 없다.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은 4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것으로, 5문단에서 스트로슨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③ [A]에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2문단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로, 칸트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A]에서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한 것이다.

④ [A]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를 찾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⑤ [A]에서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라는 전제와 다름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영혼'을 '생각하는 나'로, '자기의식'을 '나는 생각한다'로 재진술할 수 있는 근거는 각각 1문단의 네 번째 문장, 그리고 2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스트로슨은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이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지 않다.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이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신체를 매개로 한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5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스트로슨은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아에 대한 인식이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라고 본 5문단의 스트로슨과 달리, 6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한 것을 통해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나', 즉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함을 알 수 있다.

④ 6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는 것을 통해, 칸트와 롱게네스는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칸트가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을 통해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수용함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의 네번째 문장에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스트로슨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스트로슨이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그리고 6문단의 첫 번째 문장에서 롱게네스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다고 보고 있음을, 같은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통시적으로 인식되는 신체라고 주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롱게네스 역시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에 대한 수용을 바탕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뜻한다.

4.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1문단에 제시된, 칸트 이전까지 유력했던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인식 주체)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서로 다른 시간에 걸쳐 '생각하는 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곧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기에, '생각하는 나'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② 5문단에 제시된 스트로슨의 견해는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보면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하는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트로슨의 견해에 따르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을은 프로그램과 같이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의 인격 동일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는 가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은 그것에 대한 가정이 선행될 필요 없이 사고 기능의 동일성을 통해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칸트는 상술한 가정이 선행되어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⑤ 6문단에 제시된 롱게네스의 견해는 인격은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며,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가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과 상이한 존재에 의해서도 동일하게 수행될 수 있는 사고 기능이 인격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것이다.

[5~8]

5.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주형 DNA는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이고,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이다. 따라서 표적 DNA에는 프라이머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 있으므로, 주형 DNA에도 프라이머와 염기 서열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 따르면,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므로 처음의 양에서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은 같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인 PCR는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이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실시간 PCR와 다른 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PCR는 표적 DNA의 농도를 PCR 과정 중에는 알 수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실시간 PCR는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한다. 전통적인 PCR는 열을 가해 이중 가닥의 DNA를 2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며, 이러한 가열 과정은 실시간 PCR에도 적용이 된다.

⑤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와 동일하게 PCR를 실시하므로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프라이머와 DNA 중합 효소가 필요하다.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한다. 이와 달리 ㉡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표적 DNA와 결합한다.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하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이중 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 가닥의 이합체에도 결합한다. 그러나 ㉠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 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형광 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이중 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분해되어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형광 물질이 발색된다. 그러므로 한 사이클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끝날 때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⑤ ㉠은 이중 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지만, ㉡은 이중 가닥 DNA가 단일 가닥으로 되었을 때 표적 DNA에 결합한다.

7. 대안, 방안에 대한 적절성 탐구

정답해설 : 1문단에 따르면, PCR 과정에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단일 가닥 DNA이므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지 않으면 프라이머를 만들 수 없다. 따라서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을 모르면 진단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사이클을 충분히 수행하면 표적 DNA의 양이 증폭된다. 그러므로 시료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②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는 DNA 증폭 여부 확인

을 위해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킨다. 따라서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에는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종료한다. 실시간으로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에 시간이 더 걸리므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에는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DNA의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사이클을 수행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염 여부를 PCR가 끝난 후에야 알 수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8.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PCR의 과정에서 표적 DNA의 양이 한 사이클마다 2배씩 증폭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위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초기 농도가 높은 ⓐ가 ⓑ보다 많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많겠군'이 적절하다. Ct값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로 정의된다. 사이클의 값이 어떠하든 ⓐ와 ⓑ가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이르는 것은 이중 가닥 표적 DNA가 동일한 양으로 증폭되었을 때이므로 ㉯에는 'ⓑ와 같겠군'이 적절하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은 ⓐ는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른 표적 DNA의 증가량이 많기 때문에 ⓑ에 비해 빨리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Ct값은 ⓐ가 작다. 그러므로 ㉰에는 'ⓑ보다 작겠군'이 적절하다. 정답 ②

[9~12]

9.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이야기 밖에서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정일이 경험하거나 감각한 일과 정일의 내면으로 사건의 양상이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지문에 회상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회상 장면을 병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산판알, 도장, 물그릇, 어항 등의 사물이 지문에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의 세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정일이 큰 물그릇을 놓고 대접으로 물을 떠서 들이 쏟기를 계속하는 대목에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일의 반복적인 행동은 병을 앓는 아버지의 바람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내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중심인물의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여 내적 갈등을 표면화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서술자는 중심인물인 정일의 시선에 의존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을 뿐, 풍자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는 '용기를 못 내는 자기'와 달리,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아버지가 있는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의 모습을 정일의 관점에서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가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용팔이 상속세를 물지 않을 방안을 정일에게 제안하면서 한 말이다. 장인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계산을 하며 상속세 물지 않을 궁리를 하는 용팔의 모습에서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드러나며, 정일이 이러한 용팔의 모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에서 용팔이 정일에게 '공손히' 행동하고 존댓말을 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에는 용팔이 정일의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중문 안'으로 들어가자, 정일이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며 주시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다.

⑤ ⓔ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생활을 회의하거나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는 정일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11.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A]에서 정일은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자신과 공모하려는 용팔의 언행을 접하며 불쾌함과 미움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감정은 ㉠을 일으켜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으로 격화된다. [B]에서 정일은 '물을 보기라도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물그릇'을 놓아 주었다가 '어디나 눈 가는 곳'에 물이 보이도록 '어항'을 늘어놓고, 아버지가 그로 인한 ㉡에도 만족하지 못하자 '흐르는 물'이 보일 수 있게 '드리우는 물줄기' 를 만드는 행동을 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은 '물그릇'에서 '어항', '드리우는 물줄기' 로 심화되는 아버지의 갈망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정일이 용팔의 '웃음'을 미워하며 느낀 불쾌감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황홀한 눈'은 ㉡을 갈구하는 아버지의 눈을 나타낸 것이므로, 아버지가 내비치는 '황홀한 눈'으로 인해 ㉡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② [A]에서 정일이 용팔에게 '도장'을 내어 준 후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아 정일이 갈등 끝에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아버지는 ㉡을 느끼려는 '동경'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가 사무치는 '동경'을 포기함으로써 ㉡이 지속된다고 볼 수 없다.

③ [B]에서 '꺼멓게 탄 혀'는 심하게 앓다가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된 아버지의 고통을 보여 주는데, 아버지는 '어항'이 환기하는 ㉡을 방편으로 삼아 이러한 고통을 줄이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정일이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은 정일의 '신경 쇠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여지는 있지만 '신경 쇠약'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B]에서 아버지는 '심한 구역' 이후 '한 방울 물도 먹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다.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느끼는 갈증을 ㉡을 통해서나마 해소하려 하고 있으므로, ㉡은 '심한 구역' 이후로 아버지가 '물'에서 얻고자 하는 육체적 안정에 대한 추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에서 ㉠은 용팔이 '공모' 요구를 하며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에 정일이 느낀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용팔의 '공모' 요구로 인해 표면화된 정일의 물질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1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용팔이 정일에게 위임장을 내놓고 도장을 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자, 정일은 그러한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고 불쾌감에서 비롯된 '심열'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정일은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으면서도 용팔에게 도장을 건네다가 '실없이 웃'는 자신이 '더 심한 심열에 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정일이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일은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산판알을 놓으며 이익을 따지는 용팔을 속으로 '이 소인 놈!'이라고 하며 경멸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알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행동은 그 자신을 구속하는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정일은 용팔이 벌이는 행동에 반감을 느끼고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를 불러내고 싶어하지만, 행동을 주저하며 붙잡지 않고 자신이 그를 부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면서 용팔을 불러낼 기회를 놓친 것을 자신이 '정말 후회하'는지에 대해 자문하며 자신에게로 관심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다.

④정일은 '애써 살려는 의지력이 없는' 자신과 달리 고통 속에서 죽음과 싸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위대한 의지력'을 느낀다. 또한 그런 의지력을 '우러러보는 듯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데, <보기>를 참고하면 정일의 이러한 모습은 상대와의 차이를 인식하는 스스로의 내면마저 대상화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⑤ 정일은 아버지가 죽음과 싸우는 모습에서 '위대한 의지력'을 느끼고 그런 아버지가 '물줄기를 바라보'는 눈을 '동경에 사무친 황홀한 눈'이라고 표현하며 '일찍이 그러한 눈을 본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주인공의 이러한 모습은 주변 대상을 관찰하여 상대가 내비치는 생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파악하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13~16]

13.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이미 아는 바'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은 승상이 호첩에게 저간의 상황을 묻고 얻게 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전장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승상이 월매와 왕비, 옥졸로부터 얻은 정보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의 자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편지를 전해 받은 승상은 호첩에게 그 '연고'를 묻고는 집안에 변이 생겼음을 알고, 전장을 떠나 득달같이 집에 와서 왕비로부터 그동안의 '사연'을 전해 듣고는 '이미 아는 바'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충렬부인을 구한 승상이 왕비를 만나 '사연'을 듣고 나서 던진 물음이 ㉡이므로 승상이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라고 할 수 있다.

④ 승상의 물음 ㉡에 대해 왕비는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이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에 대한 왕비의 답변을 들은 승상은 복록을 찾았으나 복록은 이미 자신의 죄를 알고 이미 죽어버렸다. 따라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1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승상에게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아뢰는 금연의 말을 통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이 자신을 찾은 충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하여 충렬부인을 침소로 보내어 마치 충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분을 통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누명을 씌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인 충렬부인을 자신의 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복록이 이미 죽었음을 알게 된 승상은 옥졸을 잡아들여 문초한 결과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임을 알게 된다. 승상이 금연을 잡아들여 문초하는 과정을 곁에서 보고 있던 왕비는 충렬부인이 누명을 썼음을 뒤늦게 알고 앙천통곡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는 인물은 누명을 썼던 인물인 충렬부인이 아니라 왕비라 할 수 있다.

② 승상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누명을 쓴 채로 옥에 갇힐 뻔하다가 가까스로 피신한 충렬부인을 구해 내고, 누명을 씻어 달라는 충렬부인의 말을 듣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있다. 승상은 충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인물이 정렬부인임을 알고 크게 노하고 그동안의 사건 경과를 황상께 아뢰고 있으므로 누명을 쓴 인물인 충렬부인의 요청으로 승상이 누명을 씌운 인물인 정렬부인의 처벌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금연이 자신을 국문하는 승상에게 털어놓은 사건의 진상은 금연이 남복을 하고 충렬부인 침소로 들어가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달아나 마치 충렬부인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이다. 따라서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인 충렬부인이 승상이 아닌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지 충렬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라

고 할 수 없다.

⑤ 전장을 떠나 급히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금연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충렬부인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따라서 충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일 때문이지 승상이 자신의 어머니인 왕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

15.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크게 놀란 원수는 집에 변고가 생겨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중군장에게 군을 인솔하여 돌아오라고 분부하면서 중군장에게 군의 통솔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문 뒷부분에 제시된 상소에 따르면 이미 승상이 서융을 쳐 사로잡았으므로 원수가 중군장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 서융을 사로잡으라고 명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으로 돌아온 승상은, 왕비의 명령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낸 후 충렬부인이 어디 있는지를 그녀에게 묻고 있다.

③ 승상의 문초를 받은 옥졸은 자신이 옥에서 죽은 이가 충렬부인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말을 하자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이 이를 듣고 묻기에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금연이 옥졸로부터 옥중 시신의 정체와 관련한 정보를 얻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승상의문초를 받은 옥졸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에게 옥중 시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자 부디 다른 데 가서 그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고 말하면서 필연 금연의 입을 통해 그 사실이 발설되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옥졸은 승상에게 금연이 옥중 시신에 대하여 발설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금연을 잡아들여 직접 국문을 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충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과정에서 정렬부인이 앓는 체하고 누웠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따라서 승상은 금연으로부터 정렬부인이 거짓으로 앓아누웠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1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앞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정렬부인의 모략으로 충렬부인이 옥에 갇히자 시비 금섬이 충렬부인을 피신시키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얼굴이 상한 채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런데 옥졸이 승상의 문초에 대답한 말에 따르면 옥졸은 옥중 시신이 충렬부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있었는데, 그러한 옥졸의 이야기를 들은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은 옥졸의 입단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옥중 시신이 충렬부인이 아니며 충렬부인은 이미 다른 데로 도망했음을 알 수 있다. 왕비의 시비 월매가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끝내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충렬부인의 시비인 금섬처럼 죽겠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월매가 자신이 모시는 주인인 왕비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승상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그는 대원수로서 서융을 쳐 사로잡은 후에 백성을 진무하고 돌아오려 하던 차에 집에서 급한 소식을 듣고 집에와 정렬부인이 충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아뢰고 있다. 이를 통해 주인공인 정을선이 가정 안팎의 사건에 두루 관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전장을 떠나 집으로 온 승상 정을선은 죽을 위기에 처한 월매를 구해 내고 월매와 함께 충렬부인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구덩이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충렬부인을 구해 낸 승상은 '통곡'하고, 충렬부인은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참혹한 형상을하고 있으므로 승상과 부인의 모습은 인물의 감정과 고난이 극대화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왕비가 '앙천통곡'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왕비는 충렬부인의 수난이 일부다처제에서 비롯한 문제가 아니라 정렬부인의 인성 문제에서 비롯하였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정렬부인은 '승상의 호통 소리'를 듣고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다고 서술되고 있다. 이는 가정의 상층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승상의 부인이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는 부분이므로,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그녀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35분

국어 영역

홀수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6학년도 6모)

(가)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았다.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대기환경 보전법 은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 환경 관리 체계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A]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 온 고유한 직업 윤리 등 문화적·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 규범에 의해 침법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그로 인해 법 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체계를 지배해 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나)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의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 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② (가)는 시대의 요구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나)는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2. [A]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된다.
③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
④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들어 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깨진다.

3.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겠군.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기겠군.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보겠군.
④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 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겠군.

4. (나)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②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써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④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5.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보 기>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한다.

갑이 위의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 주택과 B 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군.
②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이겠군.
③ 을은 갑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④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겠군.
⑤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군.

6.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① ⓐ : 그는 신문 기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② ⓑ : 아이가 한눈을 팔다가 친구와 부딪혔다.
③ ⓒ : 그가 사용한 전문 용어들은 너무 어렵다.
④ ⓓ : 열심히 장사했더니 이익이 많이 남았다.
⑤ ⓔ : 언니가 화분들을 모두 베란다에 내놓았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21학년도 수능)

최근의 3D 애니메이션은 섬세한 입체 영상을 구현하여 실물을 촬영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 주로 3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때 삼각형의 꼭짓점들은 물체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는 정점이 되는데, 이 정점들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으며, 정점들의 상대적 위치는 물체 고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한 달라지지 않는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에는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 렌더링이다.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이 화소인데,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솟값이 부여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화면 안에서 동일 물체라도 멀리 있는 경우는 작게, 가까이 있는 경우는 크게 보이는 원리를 활용하여 화솟값을 지정함으로써 물체의 원근감을 구현한다. 표면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바탕으로, 다른 물체에 가려짐이나 조명에 의해 물체 표면에 생기는 명암, 그림자 등을 고려하여 화솟값을 정해 줌으로써 물체의 입체감을 구현한다.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화소의 화솟값이 결정되면 하나의 프레임이 생성된다. 이를 화면출력장치를 통해 모니터에 표시하면 정지 영상이 완성된다.

모델링과 렌더링을 반복하여 생성된 프레임들을 순서대로 표시하면 동영상이 된다. 프레임을 생성할 때, 모델링과 관련된 계산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용하여 렌더링을 위한 계산을 한다. 이때 정점의 개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CPU)는 데이터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병목 현상이 생겨 프레임이 완성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CPU의 그래픽 처리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그래픽처리장치(GPU)는 연산을 비롯한 데이터 처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치인 코어를 수백에서 수천 개씩 탑재하고 있다.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서 저속으로 연산한다. 하지만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해야 하는 경우, 고속으로 출력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하면, 각 코어는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여 연산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연 영상은 모델링과 렌더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생성된다.
② 렌더링에서 사용되는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화솟값에 의해 결정된다.
③ 물체의 원근감과 입체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구현한다.
④ 3D 영상을 재현하는 화면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연산 양이 많아진다.
⑤ 병목 현상은 연산할 데이터의 양이 처리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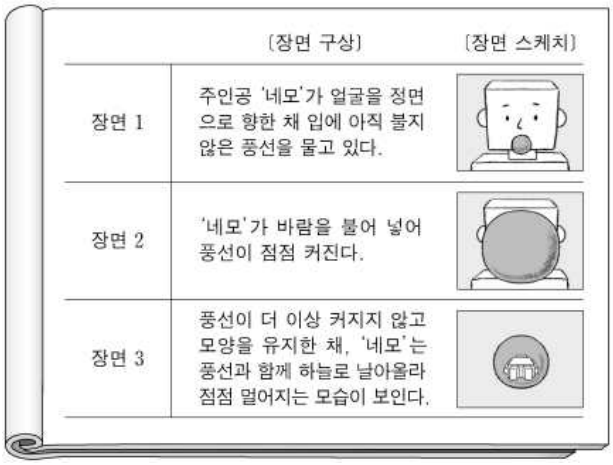
8.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삼각형의 정점들의 위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 삼각형들을 조합함으로써 물체의 복잡한 곡면을 정교하게 표현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작은 삼각형에 다양한 색상의 표면 특성들을 함께 부여한다.
④ 공간상에 위치한 정점들을 2차원 평면에 존재하도록 배치한다.
⑤ 다양하게 변할 수 있는 관찰 시점을 순차적으로 저장한다.

9. ㉠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동일한 개수의 정점 위치를 연산할 때, 동시에 연산을 수행하는 코어의 개수가 많아지면 총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
②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10개의 연산을 10개의 코어에서 동시에 진행하려면, 10개의 연산 명령어가 필요하다.
③ 1개의 코어만 작동할 때, 정점의 위치를 구하기 위한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를 가진 CPU의 연산 시간과 같다.
④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한 각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는 경우 총 연산 시간은 1개의 코어만 작동하는 경우의 총 연산 시간과 같다.
⑤ 정점 위치를 구하기 위해 연산해야 할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서 처리할 경우, 모든 데이터를 모든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과 같다.

10. 다음은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계획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장면 구상]	[장면 스케치]
장면 1	주인공 '네모'가 얼굴을 정면으로 향한 채 입에 아직 불지 않은 풍선을 물고 있다.	
장면 2	'네모'가 바람을 불어 넣어 풍선이 점점 커진다.	
장면 3	풍선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모양을 유지한 채, '네모'는 풍선과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① 장면 1의 렌더링 단계에서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들의 표면 특성은 화솟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겠군.
②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되겠군.
③ 장면 2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겠군.
④ 장면 3의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 들이 작아지겠군.
⑤ 장면 3의 렌더링 단계에서 전체 화면에서 화솟값이 부여되는 화소의 개수는 변하지 않겠군.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1학년도 6모)

(가)

[앞부분 줄거리]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천서를 빼앗아 술법을 배웠으나 구미호가 전우치를 속여 천서의 일부를 가져간다.

우치 대노 왈,

"흉악한 요물이 나를 업수이 여겨 이같이 속이니 내 이제 여우굴에 가 책을 찾고 요괴를 소멸하리라."

하고 방망이와 송곳을 가지고 여우 굴로 가니, 산천이 깊고 길이 아득하여 찾을 수 없어 도로 돌아와 생각하되, '이 요괴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우니 가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리라.' 하고 서책을 수습하여 돌아오니, 대저 천서 상권은 부적을 붙인 까닭에 빼앗아 가지 못함이러라.

우치 집에 돌아와 천서를 보아 못 할 술법이 없으매, 과거에 뜻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되, '내 벼슬하여 모친을 봉양하려 하면 자연히 더디리라.' 하고 이에 한 계교를 생각하여 몸을 흔들어 변하여 선관이 되어 오색구름을 타고하늘에 올라 바로 궐내로 들어가 대명전에 자리하니 서기가 공중에 어리었으니 궁중이 황홀했다. 이에 조정의 신하들이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임금께 아뢰기를,

"고금에 드문 괴변이라."

하니, 왕이 대경하사 여러 신하를 모아 의논하시더니, 우치가 운무 중에 서고 청의동자가 외쳐 왈,

"고려국 왕은 옥황상제 전교를 들으라."

하거늘, 왕이 명하사 바닥에 깔 자리와 향로를 올려놓은 상을 갖춰 놓게 하고 나아가 보니 한 선관이 금관 홍포로 동자를 좌우에 세우고 오색구름 중에 싸여 단정히 섰거늘, 왕이 네 번 절한 후 땅에 엎드리시니, 우치 왈,

[A]

"하늘의 궁궐이 오래되어 낡고 헐었기에 이제 수리하고자 하여 인간 여러 나라에 뜻을 전하여 모든 물건을 다 바쳤으나 다만 황금 들보 하나가 없는지라. 옥황상제께서

그대 나라에 황금이 유족함을 아시고 이제 뜻을 전하사 칠 월 칠 일 오시에 상량하리니, 그날 미쳐 대령하되 길이

십 척 오 촌이요, 너비 삼 척 이 촌, 만일 그날 미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

하고 말을 마치자 선악 소리 은은하며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더라.

(중략)

우치 무안하여 달아나고자 하더니 화담이 알고 변신하여 삵이 되어 달려드니, 우치가 보라매 되어 날려 한 즉, 화담이 또한 청사자가 되어 우치를 물어 쓰러뜨리고 크게 꾸짖어 왈,

"너 같은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하니 어찌 죽이지 아니하리오?"

우치 애걸 왈,

"선생의 도술이 높으심을 모르고 존엄을 범하였으니 죄당만사(罪當萬死)이오나, 소생에게 노모가 있사오니 원컨대 선생은 잔명을 빌리소서."

화담 왈,

"내 이번은 살리거니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그대 모친을 봉양하다가 그대 모친이 돌아가신 후에 나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仙道)를 닦음이 어떠하뇨?"

우치 왈,

"선생의 교훈대로 봉행하리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와 효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우치 모부인이 졸하니 우치 예를 갖추어 선산에 안장하고 삼 년을 받들더니, 하루는 화담이 왔거늘, 우치가 황망히 나와 맞아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후에 화담 왈,

"그대와 약속한 일이 있으매 그대 상중에 있는 것을 알고 왔거늘, 이제 그 산에 있는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고 그 굴에 불 지름이 어떠하뇨?"

우치 왈,

"이제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하시면 진실로 온 나라의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나이다."

화담 왈,

"내 이제 그대를 데려가려 하나니, 행장을 꾸리거라."

하거늘, 우치 크게 기뻐하며 재산을 흩어 노복을 주며 왈,

"나는 이제 영원히 이별하려 하니, 너희들은 탈 없이 있어 나의 조상의 제사를 받들라."

하고 조상의 무덤에 하직한 후에 화담을 모시고 구름을 타고영주산으로 향하니, 그 뒷일은 알지 못하니라.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나)

S#1. 궁궐. 낮.

궁궐을 향해 날아 내려가는 오색구름. ㉠선녀와 천군 호위 속에 전우치가 지상을 내려 본다.

왕 :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왕이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정악을 연주한다. 지상으로 내려온 구름. 전우치가 입을 연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왕이 고개를 더 낮춘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은 내가 시킨 대로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냈느냐?

왕 :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 치 틀림없이 그리 했습니다.

전우치 :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

왕 : 황공하옵니다. 왕가의 보물을 보자시길래 그것 역시 준비했습니다.

전우치 :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근데… 에이 가락이 맘에 안 드는구나.

전우치가 손짓하자, 궁중 악사들이 무엇에 홀린 듯 다른 음악을 연주한다. 맘에 안 드는지, 전우치가 손가락을 튕기자, 악사들은 음악을 바꾼다. 그제서야 맘에 든 전우치. 머리를 흔들어 박자를 느끼며, 보물이 늘어선 곳으로 걷는다. 보물을 발로 툭 쳐 보고, 도자기는 관심 없어 깨고, 보고, 던지고, 보고, 깨는데,

(중략)

거울을 연신 깨던 전우치. ㉡한 거울에 눈이 멈춘다. 작고 투박하다. 앞면은 청동이라 탁하고 뒷면은 자개로 덮여 있다. 전우치가 슬쩍 주머니에 넣는다.

전우치 : 왕은 고개를 들라.

왕 : 예?

전우치 : 내 본시 그림 그리기를 즐겨 해 나무를 그리면 나무가 점점 자라고 짐승을 그리면 그림에서 튀어나오니 내 재주가 아까워 그런데…

전우치가 품에서 두루마리를 꺼내 펼친다. 산수화. 궁녀2 손에 들게 한다.

전우치 : 어떤가?

왕 : 지상의 풍경이 아닌 듯 살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인이 과문하여 묻는데 주인 없는 빈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전우치 : 이 도사 전우치가 타고 갈 말이니라.

왕 : … 전우치? 망나니 전우치?

전우치가 대동하고 왔던 천군들을 보면,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전우치 : 나를 아는가?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거 참.

왕 :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 여봐라 이놈을 잡아라.

궁중 무관들이 들이닥치는데, 전우치는 태평하게 한 잔 더 걸치고는, 손가락을 튕겨 음악을 바꾼다. 음악은 점점 흥겨워진다. 진땀나는 궁중 악사들.

전우치 : 도사 놈이라? 에…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이 분다)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순식간에 장대비가 내린다) 땅을 접어 달리고 (술상을 향해 축지법으로 갔다가 돌아온다) 날카로운 검을 바람보다도 빨리 휘두르고 (검이 쉭– 하는 소리와 함께 허공을 가르고) 그 검을 꽃처럼 다룰 줄 아니 (검이 왕 얼굴 앞에서 꽃으로 변한다)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게 바로 도사의 일이다. 무릇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으니 공치사 받을 일도 아니고.

전우치를 에워싸는 궁중 무관들. 섣불리 접근하지 못하는데,

전우치 천천히 붉은 붓을 들어 술병 모가지 테두리를 둘러 원을 그린다. 서로를 바라보다 자신의 목을 보는 무관들. 모두의 목에 붉은 테두리가 그려져 있다.

전우치 : 내가 이 병 목을 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 같으냐?

무관들, 술렁거리며 주춤한다.

왕 : 저놈을 잡는 자에게 황금 2천 냥을 주겠다.

전우치 : 하하하… 돈을 막 쓰는구나. 하하하… 전우치가 그림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웃음 소리는 오래도록 왕을 언짢게 한다.

- 최동훈, 「전우치」 -

11. (가)의 화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끈다.
② 전우치의 요청에 따라 선도를 닦기 위해 함께 간다.
③ 전우치의 공격을 받으나 도술로 전우치를 제압한다.
④ 전우치와 함께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⑤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영주산에 갈 것을 재촉한다.

12.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가)를 이해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일반적으로 영웅 소설에서 주인공은 고난을 겪지만 조력자를 만나 병서나 무기 등을 얻어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후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때 주인공은 유교적 이념을 존중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전형적인 영웅 소설과 「전우치전」이 어떻게 유사하고 다른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생 1 : 전우치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능력을 얻게 된 것은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

학생 2 : 전우치가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은 충효라는 유교적 이념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 비슷해요. …… ⓑ

학생 3 : 전우치가 입신양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널리 떨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학생 4 : 전우치가 옥황상제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학생 5 : 전우치가 재산을 흩어 노복에게 주고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과는 달라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13. (가)를 토대로 (나)가 창작되었다고 할 때, [A]와 (나)에 대한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우치가 왕에게 말하는 태도는 [A]에서는 근엄하였으나, (나)에서는 거드름을 피우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② 전우치가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까닭은 [A]에서는 모친 봉양을 위한 것이었으나, (나)에서는 백성을 보살피는 것으로 바뀌었다.
③ 전우치가 자신의 요구 실현에 대해 취한 조치는 [A]에서는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변을 당하리라 위협하는 것으로, (나)에서는 실행한 것에 대해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④ 전우치가 왕과의 만남을 끝내는 모습이 [A]에서는 구름을 타고 남쪽으로 가는 것으로, (나)에서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며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하는 장면은 [A]에서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자세히 서술되었으나, (나)에서는 꿈에 나타나 하명하였다는 왕의 대사로 간략히 처리되었다.

14. (나)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우치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계기로 왕과의 갈등이 표출되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② 전우치가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고 말함으로써 왕과의 갈등이 부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다.
③ 왕이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최고의 예우로 대하는 것은 장차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④ 왕이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에서 '도사 놈'으로 바꿔부르는 것에서 전우치를 향한 왕의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다.
⑤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연주되는 음악이 계속 바뀜으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이 드러난다.

15. (나)를 영화로 제작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연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하려면,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해야겠군.
② ㉡ :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면,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화면에 가득 담아야겠군.
③ ㉢ : 천군들의 정체로 인한 왕의 당혹감을 표현하려면,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주어야겠군.
④ ㉣ :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려면,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각각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 주어야겠군.
⑤ ㉤ :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하려면,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주며 전우치가 남긴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어야겠군.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학년도 9모)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 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입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 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위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 투성이다.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 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에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아아'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인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몸이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장녀: 제 말이 맞았지요?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처: 여보,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떡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교수: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 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시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 이근삼, 「원고지」 -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여 장남의 말과 배치되는 극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을 제시하여 교수가 처한 상황과 교수의 신분을 관객이 인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교수의 '비명' 같은 하품을 '달콤한 하품'이라고 말하는 장녀의 대사를 통해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지는 효과를 활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교수와 처의 연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⑤ '철쇄'를 풀어 주는 처의 행위를 통해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이근삼 희곡에는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하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해설자는 관객들에게 인물 사건 배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대에서 배우의 연기를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해설자는 기본적으로 관객들을 극중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지만,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① 장남의 대사는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② 장남은 극중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다른 인물의 등장을 예고한다.
③ 장녀는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관객들에게 시 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준다.
④ 장녀는 해설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수 처와 분리된 공간에 위치한다.
⑤ 장녀는 관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고 극중 상황에 몰입하도록 인도한다.

정답과 해설

빠른정답

②	③	④	④	⑤
①	②	②	④	④
①	②	④	⑤	④
⑤	④			

[1~6]

1.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현재의 법체계에 공존하는 세 가지 법 모델이 각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출현해 온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한편 (나)의 2문단에서는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에 우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과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는 법 모델들의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와 (나) 둘 다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 즉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문제점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⑤ (가)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하며 등장한 새로운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 방안의 한계점을 비판하고 있지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A]에서 ㉠'이러한 악순환'이란 법 규범에 의해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면 갈등 상황에서 공동체가 점점 더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의 상황에서,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상황에서는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더욱 망가지게 된다.

② 근대법의 기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다. ㉠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이 아니라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을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체되는 것이다.

④ ㉠의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의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법 규범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

⑤ ㉠의 상황에서는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어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

3.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법이 삶의 세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므로, 임차인의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③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므로,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사회·경제적 조건이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을,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 후, 거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두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할 것이다.

4.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가 계약만으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에서는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되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따라서 ㉮의 이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과 관련이 없다.

② 약자 보호를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임차인의 권리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임차물이 생업의 근거인 상가일 경우 사회·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5.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나)에서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사자들

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갑이 A 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 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다.

② (가)에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에서는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가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보증금이 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은 갑에게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④ B 상가의 보증금은 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고, 계약 당시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은 B 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는 자유주의적 법 모델에서 강조하는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6.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선지에 제시된 '삼다'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을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 '부딪히다'의 문맥상 의미는 '예상치 못한 일이나 상황 따위에 직면하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게 되거나 마주 대게 되다.'이다.

③ ⓒ '어렵다'의 문맥상 의미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말이나 글이 이해하기에 까다롭다.'이다.

④ ⓓ '남다'의 문맥상 의미는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들인 밑천이나 제 값어치보다 더 얻다.'이다.

⑤ ⓔ '내놓다'의 문맥상 의미는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하다.'이다. 선지의 문맥상 의미는 '물건을 밖으로 옮기거나 꺼내놓다.'이다.

[7~10]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모델링 단계를 설명한 2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하였다. 즉 물체 고유의 표면 특성은 렌더링 과정이 아닌 모델링 단계에서 지정된다. 렌더링 단계에서는 공간에서의 입체에 대한 정보인 모델링 단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면을 생성하며 각 화소별로 화솟값을 부여하여 밝기나 색상을 나타낸다고 3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1문단에서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려면 자연 영상과 달리 모델링과 렌더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물체의 입체감과 원근감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렌더링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해상도가 높아 출력 화소의 수가 많을 수록 연산양이 많아져 연산 시간이 길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⑤ 4문단에서 과도한 양의 데이터가 집중되어 미처 연산되지 못한 데이터가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병목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8. 중심 내용 파악

정답 해설 : 2문단에서 모델링은 작은 삼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 형태로 물체 표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복잡한 굴곡이 있는 표면도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물체와 관련한 모든 삼각형 정점들의 위치를 계산하게 된다. 다른 물체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한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렌더링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이다. ③ 2문단에서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 하나씩 지정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⑤ 2,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수정하는 단계이고, 렌더링은 물체를 어디에서 바라보는가를 나타내는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다수의 코어가 작동하더라도 데이터의 연산을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해야 한다면, 이전 코어의 연산 이후에 다른 코어에서 다음 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의 총 연산 시간은 단일 코어에서 데이터 연산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걸리는 총 연산 시간과 같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② 4문단에서 GPU는 동일한 연산을 여러 번 수행할 경우,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전체 코어에 하나의 연산 명령어를 전달해 각 코어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연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연산 시간이 짧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4문단에서 GPU의 각 코어는 그래픽 연산에 특화된 연산만을 할 수 있고 CPU의 코어에 비해 저속으로 연산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GPU와 CPU가 각각 1개의 코어에서 1개의 동일한 연산을 할 경우, CPU의 연산 시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 따르면 GPU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한 번

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 후, 동시에 모든 데이터를 연산하기 때문이다. GPU는 한 번의 연산에 쓰이는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각 코어에 전송한다고 하였으므로 10개의 데이터를 10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은 1개의 데이터를 1개의 코어에 전송하는 시간보다 길다.

10.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 해설 : 장면 3은 풍선과 '네모'가 함께 하늘로 날아올라 특정한 관찰 시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작게 보이는 장면을 구상한 것이다. 3문단에 따르면 이러한 원근감은 모델링이 아닌 렌더링 단계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2문단에 따르면 모델링 단계에서는 물체의 모양과 크기, 공간적인 위치,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데, 장면 3은 풍선이 그 자체의 크기에 변화 없이 '모양을 유지한채' 하늘로 날아올라 가는 장면이므로, 모델링 단계에서 풍선에 있는 정점들이 이루는 삼각형들이 작아질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3문단의 내용을 통해 렌더링은 관찰 시점을 기준으로 2차원의 화면을 생성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면 1에서 관찰 시점상 풍선에 가려 보이지 않는 입 부분의 삼각형은 2차원의 화면에 생성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해당 부분의 표면 특성이 화솟값을 구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

② 2문단에서 모델링 단계에서의 정점의 개수는 물체가 변형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장면 2가 풍선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장면이라고 해도 풍선에 있는 정점의 개수는 유지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모델링에서는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정점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면 2에서는 풍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화소는 전체 화면을 잘게 나눈 점으로, 정해진 개수의 화소로 화면을 표시하고 각 화소별로 밝기나 색상 등을 나타내는 화솟값이 부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렌더링 단계에서 장면이 나타난 전체 화면의 화소 개수 자체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면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소의 화솟값만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11~15]

11.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 해설 : 화담은 전우치의 '요술이 임금을 속이고 세상을 희롱'한다고 말하며 전우치를 죽이려 한다. 전우치가 사죄하자 화담은 '다시 그런 버릇없는 일을 행치 말고', '선도(仙道)를 닦'기를 권한다. 전우치는 이에 응하여 '요술을 행치 아니하고 모친을 봉양하'게 된다. 따라서 '화담'을 '전우치가 요술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이끄'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선도를 닦기 위해 영주산으로 함께 가기를 권유한 인물은 전우치가 아니라 화담이다.

③ 화담은 도술을 써서 달아나는 전우치를 공격하여 제압할 뿐 전우치의 공격을 받지는 않는다. ④ 화담이 '구미호를 잡아 돌상자에 가두'기를 제안하자 전우치가 '선생이 그 여우를 없이 하시면', '나라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는 아직 계획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미호를 퇴치하여 나라를 안정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⑤ 화담은 '영주산에 들어가 선도를 닦'기로 한 전우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우치의 집에 찾아와 영주산으로 함께 갈 것을 권하였다.

12. 갈래의 특징과 성격

정답 해설 : 전우치는 술법으로 왕과 조정의 신하들을 희롱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전우치를 ⓐ처럼 나라에 '충을 다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우치는 모친에게 '효'를 이행하기는 하나 '충'을 행하지는 않으므로 충효를 다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는 구미호로부터 얻은 천서를 익혀 뛰어난 도술 능력을 갖게된다. 이는 병서를 익혀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③ 전우치는 천서를 통해 술법을 습득하게 되자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 '벼슬하여' 입신양명을 이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는 탁월한 능력으로 나라에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이다.

④ 전우치가 고려국 왕에게 '옥황상제 전교'를 빙자하여 나라의 재산을 취하려 하는 것은 임금과 조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는 다른 모습이다.

⑤ <전우치전>에서 전우치는 '재산을 흩어 노복'에게 나눠 주고 화담과 함께 영주산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주인공이 나라에 공을 세워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영웅 소설의 결말과는 다른 모습이다.

13.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 해설 : [A]에서 전우치가 왕과 헤어지는 장면은 전우치가 탄 '오색구름이 남녘으로 향하여 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과 헤어질 때 '말을 타고' 산수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산수화) 속으로 들어가 말을 타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때 전우치는 돌아올 것을 예고하지도 않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전우치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전하는 설정을 취하여 왕에게 매우 근엄하게 말하나 (나)에서 전우치는 '유명하면 아무리 이름을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등과 같이 말하며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② [A]에서 전우치는 '모친'을 가급적 빨리 '봉양'하기 위해 계교를 부려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다. 한편 (나)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 1만 냥을 함경도 기근 지역에 보내'게 하고 '왕과 대신들이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아 이 도사 전우치가 친히 백성들 심부름을 하고자 왔'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전우치는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서 왕에게 황금을 요구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③ [A]에서 전우치는 왕에게 황금을 요구하며 황금을 '그날' 대령하지 못하면 '큰 변을 내리우시리라'고 위협한다. 그런데 (나)에서는 전우치가 왕의 꿈에 나타나 내린 명령을 실행한 것에 대해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 사 그대가 하늘로 돌아올 때 7배 70배 700배로 갚아 줄 것이다'라며 보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⑤ [A]에서 전우치가 왕에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장면에는 요구 사항이 대화를 통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만 (나)에서 전우치의 요구 사항은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라는 왕의 대사에 포함해 간략히 처리되고 있다.

14. 갈등의 원인, 유형 파악

정답 해설 : 처음에는 왕의 손짓에 따라 궁중 악사들이 정악 연주를 시작한다. 하지만 이후 전우치의 손짓에 따라 악사들은 '무엇에 홀린 듯' 전우치가 좋아하는 다른 음악을 연주하게 된다. 따라서 왕과 전우치의 주문에 따라 음악이 계속 바뀌거나 이로써 왕과 전우치 간의 대결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임을 드러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전우치와 왕과의 갈등은 전우치가 '나를 아는가?'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을 계기로 왕이 '감히 도사 놈이 주상을 능멸해.'라고 반응하는 것에서 표출된다. 이로써 사건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된다.

② '생선은 대가리부터 썩는 법'이라는 전우치의 말은 '기근에 시달리는 백성을 보살피지 않'는 부패한 왕과 대신들에 대한 비판으로 확장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③ 처음에 왕은 전우치에게 속아 그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알고 '고개를 더 낮추'며 최고의 예우로 대한다. 그러나 이는 전우치의 정체가 밝혀질 때 전우치가 왕을 '능멸'한 일이 되고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요인이 된다.

④ 전우치에게 속은 왕은 전우치를 '옥황상제의 아드님'으로 떠받들다가 전우치가 정체를 드러내자 '도사 놈'으로 바꿔서 부른다. 이로부터 전우치에 대한 왕의 인식이 적대적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15. 촬영, 편집의 방법과 효과 추리

정답 해설 : ㉣은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로 보기 어렵다. 전우치가 도사로서 가진 출중한 도술 능력을 입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번갈아 보여 줄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바람을 불게 하고 장대비를 내리게 하며 전우치가 땅을 접어 달리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는 것으로 연출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 지상을 내려다보는 전우치를 올려다보며 촬영하는 방법으로 전우치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게 할 수 있다.

② ㉡: 전우치의 얼굴이나 눈동자를 클로즈업(close-up)하여 화면에 가득 담음으로써 전우치가 거울에 관심이 있음을 강조할 수 있다.

③ ㉢: 천군이 있던 자리에 놓인 허수아비를 왕의 시점으로 보여 줌으로써 천군들의 정체를 알게 된 왕이 느끼는 당혹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⑤ ㉤: 왕을 농락하고 떠나는 전우치의 웃음소리를 효과음으로 길게 끌고, 언짢아하는 왕의 표정을 보여 줌으로써 왕이 전우치로 인해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16~17]

16.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굵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 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짤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